

2013 휴가철에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가 추천하는 읽기 좋은 책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가 추천하는) 2013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 국립중앙도서관 [편]. --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13

p. ; cm

ISBN 978-89-7383-832-5 04020 : 비매품

ISBN 978-89-7383-654-3(세트) 04020

선정 도서[選定圖書]

독서[讀書]

029-KDC5

028-DDC21

CIP2013010950




##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가 추천하는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을 내면서

‘현대에 출판된 책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소설가 헨리 밀러의 말입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의 생활 속에서 책 읽는 시간을 내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을 골라 읽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는 요즘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민의 독서력 향상과 책 읽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리 도서관에  
새로 들어온 도서 가운데 이용자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을 선정하여 매월 사서추천도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사서추천도서 중에서 휴가철에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일반교양도서를 다시 골라『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으로 묶어 발간한 추천도서목록입니다.

모처럼의 휴가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꺼내 볼 수 있는 마음에 드는  
책 한 권을 가방에 챙겨 든든한 여행의 동반자로 삼아 보시기를 권하며, 국립중앙도서관  
사서들이 선정한『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속에서 여러분에게 꼭 맞는 책을 찾아 짧은 휴가를  
행복한 책 읽기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3년 7월  
국립중앙도서관장 

# 목차

구분 ㉠ 서명 ㉡ 저자 ㉢ 출판사

## 문학

문학, 글의 향기에 취하다

- 001 ㉠ 고독의 권유 ㉡ 장석주 .....10
- 002 ㉠ 그들은 소리 내 울지 않는다 ㉡ 송호근 .....11
- 003 ㉠ 꿈꾸는 카메라 ㉡ 고현주 .....12
- 004 ㉠ 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 정호승 .....13
- 005 ㉠ 느낌보 마음 ㉡ 문태준 .....14
- 006 ㉠ 소년은 철들지 않는다 ㉡ 이성규 .....15
- 007 ㉠ 안녕 다정한 사람 ㉡ 김훈 등 .....16
- 008 ㉠ 어른공부 ㉡ 양순자 .....17
- 009 ㉠ 어머니학교 ㉡ 이정록 .....18
- 010 ㉠ 엄마를 졸업하다 ㉡ 김영희 .....19
- 011 ㉠ 영 ㉡ 김도연 .....20
- 012 ㉠ 지금도 나를 가르치는 아이 ㉡ 황금성 .....21

## 철학

철학을 권하다

- 013 ㉠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 ㉡ 댄 애리얼리 .....22
- 014 ㉠ 나는 결심하지만 뇌는 비웃는다 ㉡ 데이비드 디살보 .....23
- 015 ㉠ 내가 말하는 진심 내가 모르는 본심 ㉡ 매릴린 케이건, 닐 아인번드 .....24
- 016 ㉠ 마지막 한 걸음은 혼자서 가야 한다 ㉡ 정진홍 .....25
- 017 ㉠ 모든 슬픔에는 끝이 있다 ㉡ 로버타 템즈 .....26
- 018 ㉠ 왜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가 ㉡ 김태관 .....27
- 019 ㉠ 일주일만 남았다면 ㉡ 카렌 와이아트 .....28
- 020 ㉠ 죽음이란 무엇인가 ㉡ 셸리 케이건 .....29
- 021 ㉠ 철학을 권하다 ㉡ 줄스 에반스 .....30
- 022 ㉠ 콰이어트 ㉡ 수전 케인 .....31
- 023 ㉠ 프로이트, 인생에 답하다 ㉡ 이병욱 .....32

## 사회·경제

사회 경제를 들여다보다

- 024 ● 경제학자의 영화관 ● 박병률 .....33
- 025 ● 빅데이터 혁명 ● 권대석 .....34
- 026 ● 세상은 나의 멘토 ● UNGO아카데미 강사진 .....35
- 027 ● 세상을 바꾼 경제학 ● 야자와 사이언스 연구소 .....36
- 028 ● 세상의 모든 전략은 전쟁에서 탄생했다 ● 임용한 .....37
- 029 ● 자존감이 나를 세운다 ● 임미희 .....38
- 030 ● 조선의 리더십을 탐하라 ● 이영관 .....39
- 031 ● 집요한 상상 ● 최종일, 김용섭 .....40
- 032 ● 하버드의 세계를 움직이는 수업 ● 리처드 H.K 비에토, 나카조 아키코 .....41
- 033 ● 행복의 경제학 ●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42

## 자연·과학

과학에게 묻다

- 034 ● (권오길의) 괴짜 생물 이야기 ● 권오길 .....43
- 035 ● 광물, 역사를바꾸다 ● 에릭 살린 .....44
- 036 ● 노벨상 수상자와 함께한 24일 ● 레오니트 아자로프 .....45
- 037 ● 수학 시트콤 ● 크리스토프 드뢰서 .....46
- 038 ● 식물, 세상의 은밀한 지배자 ● 고정희 .....47
- 039 ● 우주 다큐 ● 메리 로치 .....48
- 040 ● 진정일 교수, 詩에게 과학을 묻다 ● 진정일 .....49
- 041 ● (고규홍의) 한국의 나무특강 ● 고규홍 .....50

## 가정·교육

행복한 가정을 꿈꾸다

- 042 ● 가르친다는 것 ● 윌리엄 에어스 .....51
- 043 ● 꿈이 있는 공부는 배신하지 않는다 ● 쇼 야노 .....52
- 044 ● 나는 아빠다 ● 정우성 .....53
- 045 ● 나는 원래 행복하다 ● 스티븐 S. 일라디 .....54
- 046 ● 도시락의 시간 ● 아베 나ومی .....55
- 047 ● 아파트 테라피 ● 맥스웰 길링엄 라이언 .....56
- 048 ● 엄마라서 다행이다 ● 잭 캔필드 외 .....57
- 049 ● 오래된 미래, 전통육아의 비밀 ● 김광호, 조미진 .....58
- 050 ● 음식 여행 끝에서 자유를 얻다 ● 데이나 메이시 .....59
- 051 ● 좋은 아버지 수업 ● 임정묵 .....60

# 목차

구분 ● 서명 ● 저자 ● 출판사

## 예술·문화

예술과 함께 여행하다

- 052 ● 그리메 그린다 ● 전경일 .....61
- 053 ● 그림공부 인생공부 ● 조정육 .....62
- 054 ● 그림속에서 나를 만나다 ● 김선현 .....63
- 055 ● 나는 오늘도 유럽에서 클래식을 듣는다 ● 하석배 .....64
- 056 ● 식민지 조선의 또 다른 이름, 시네마 천국 ● 김승구 .....65
- 057 ● 클래식이 필요한 순간들 ● 홍승찬 .....66
- 058 ● 탱고 인 부에노스 아이레스 ● 박종호 .....67
- 059 ● 하루 ● 박영택 .....68

## 자기계발

책에서 리더를 만나다

- 060 ●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 칼 필레머 .....69
- 061 ● 마흔, 인문학을 만나라 ● 최효찬 .....70
- 062 ● 왜 부자들은 모두 신문배달을 했을까 ● 제프리 J. 폭스 .....71
- 063 ● (통찰력을 길러주는) 인문학 공부법 ● 안상현 .....72
- 064 ● 잡스 사용법 ● 한미화 .....73
- 065 ● 질문이 답을 바꾼다 ● 앤드루 소벨, 제럴드 파나스 .....74
- 066 ● 책읽기 좋은날 ● 이다혜 .....75
- 067 ● 청춘, 그 이름만으로도 된다 ● 완즈프 .....76
- 068 ● 하워드의 선물 ● 에릭 시노웨이, 메릴 미도우 .....77
- 069 ● 협상의 심리학 ● 정인호 ..... 78
- 070 ● (학력 파괴로 세상의 경계를 허무는) 한국의 아웃라이어들 ● 김영상 .....79

## 역사·여행

역사와 소통하다

- 071 ● 백마 탄 왕자들은 왜 그렇게 떠돌아 다닐까 ● 박신영 .....80
- 072 ● 섬문화 답사기 ● 김준 .....81
- 073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 자크 보세 .....82
- 074 ●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가 없다 ● 윤상욱 .....83
- 075 ● 언제나 민생을 염려하노니 ● 이정철 .....84
- 076 ● 오래된 서울 ● 최종현, 김창희 .....85
- 077 ● 왕의 서재 ● 소준섭 .....86
- 078 ● 제국의 탄생과 몰락 ● 김원동 .....87
- 079 ● 조선 사람의 조선여행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88
- 080 ● 조선의 왕비로 살아가기 ● 심재우 등 .....89

## 청소년

- 081 ● 1945, 철원 ● 이현 .....90
- 082 ● 가시고백 ● 김려령 .....91
- 083 ● 과학, 10월의 하늘을 날다 ● 정재승 등 .....92
- 084 ● (중학생 토론학교) 교육과 청소년 ● 한국철학교육연구원 .....93
- 085 ● 그치지 않는 비 ● 오문세 .....94
- 086 ● 나는 칼라랜드로 간다 ● 김영리 .....95
- 087 ● 나는 어떤 집에 살아야 행복할까? ● 고제순 등 .....96
- 088 ● 두려움에게 인사하는 법 ● 김이윤 .....97
- 089 ● 생각해 봤어? ● 홍세화 등 .....98
- 090 ● 수상한 화가들 ● 박석근 .....99
- 091 ● 식탁 위의 세계사 ● 이영숙 .....100
- 092 ● 열혈 돼지 전설 ● 창신강 .....101
- 093 ● 충분히 아름다운 너에게 ● 신네 순 뢰에스 .....102
- 094 ● 프리 캣 ● 존 블레이크 .....103
- 095 ● 피그보이 ● 비키 그랜트 .....104

# 목차

구분 ㉠ 서명 ㉡ 저자 ㉢ 출판사

## 어린이

- 096 ㉠ 5학년 5반 아이들 ㉡ 윤숙희 .....105
- 097 ㉠ 거북이가 2000원 ㉡ 이와사키 코코 .....106
- 098 ㉠ 게임왕 ㉡ 선자은 .....107
- 099 ㉠ 그 고래, 번개 ㉡ 류은 .....108
- 100 ㉠ 꼬마 사서 두보 ㉡ 양연주 .....109
- 101 ㉠ 나는 어린이입니다 ㉡ 콜라스 귀트망 .....110
- 102 ㉠ 나도 예민할 거야 ㉡ 유은실 .....111
- 103 ㉠ 나의 사촌 세라 ㉡ 김민령 .....112
- 104 ㉠ 내 목소리가 들리나요 ㉡ 다시마 세이조 .....113
- 105 ㉠ 다락방 명탐정 ㉡ 성완 .....114
- 106 ㉠ 명태를 찾습니다! ㉡ 주강현 .....115
- 107 ㉠ 삶과 죽음에 대한 커다란 책 ㉡ 실비 보시에 .....116
- 108 ㉠ 서로를 보다 ㉡ 윤여림 .....117
- 109 ㉠ 시간 가게 ㉡ 이나영 .....118
- 110 ㉠ 여기가 우리 집이라면 ㉡ 자일스 라로슈 .....119
- 111 ㉠ 열한 살의 가방 ㉡ 황선미 .....120
- 112 ㉠ 우리 동네 전설은 ㉡ 한운섭 .....121
- 113 ㉠ 울 애기 예쁘지 ㉡ 장영복 .....122
- 114 ㉠ 장복이, 창대와 함께하는 열하일기 ㉡ 강민경 .....123
- 115 ㉠ 책 좀 빌려 줘유 ㉡ 이승호 .....124
- 116 ㉠ 천사를 미워해도 되나요? ㉡ 최나미 .....125
- 117 ㉠ 하나뿐인 친구 ㉡ 실뱅 뢰니에 .....126
- 118 ㉠ 할머니, 왜 하필 열두 동물이에요? ㉡ 배유안 .....127
- 119 ㉠ 호랑이 눈썹 ㉡ 이반디 .....128
- 120 ㉠ 희망이 내리는 학교 ㉡ 제임스 럼포드 .....129

## 일러두기

---

### 수록범위

-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추천도서 및 일간지 게재 추천도서에 수록된 내용을 정리하였다.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홈페이지 '책소개 : 사서추천도서'에 수록된 내용을 정리하였다.

### 배열

-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은 일반, 청소년, 어린이 등으로 대상별 구분 후, 일반도서는 문학, 철학, 사회·경제, 자연·과학, 가정·교육, 예술·문화, 자기계발, 역사·여행 등 분야별로 나누어 그 아래 서명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다.
- '찾아보기'는 서명과 저자명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 '덧글'은 '사서들이 권하는 책' 덧글 이벤트에서 선정된 덧글을 정리하였다.

\* 2008-2013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서평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www.nl.go.kr](http://www.nl.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 고독의 권유

### 사서의 추천글

“홀로 있다는 것, 홀로 깨어 있는 의식으로 ‘홀로 있다는 것’을 냉철하게 관조하는 것, 그것이 고독이다. 홀로 있는 시간은 진정한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이다. 그것은 내면의 응시이며, 참 자아와의 대면이다.”

『고독의 권유』는 장석주 시인이 10여년 전 경기도 안성 금광호숫가로 내려가 맨 처음으로 낸 『추억의 속도』의 개정증보판이다. 도시에서 시골로 내려간 작가의 소외와 고독, 자발적 유배를 선택한 심경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으로, 도시생활에 지쳐 고독이 필요한 독자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힘을 준다.

### 저자소개 / 장석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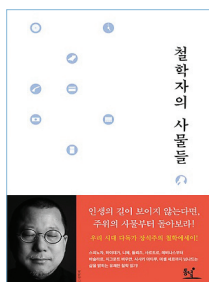
시인이자 비평가, 독서광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엄청난 독서량과 시인 특유의 감성적 문장, 평론가의 인문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여러 권의 시집을 포함해서 70여 권의 저작물들을 펴냈다.

저서로는 『드뢰즈 카프카 김훈』, 『장소의 탄생』, 『이상과 모던뽀이들』, 『느림과 비움의 미학』, 『일상의 인문학』, 『마흔의 서재』, 『철학자의 사물들』 등이 있으며, 에지문학상(2003), 질마재문학상(2010),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사랑상(2012), 영랑시문학상(2013) 등을 수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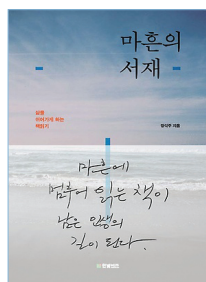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시골에서의 일상은 느림 그 자체다. 천천히 밥 먹고, 천천히 옷 입고, 천천히 개에게 먹이를 주고, 천천히 산책을 한다. 새로 돋는 잎들 사이로 날카롭게 뻗어오는 빛들을 보는 순간 문득 나는 어떤 고립의 느낌을 강하게 느낀다. 하지만 고립은 그것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인 자에겐 더 이상 고립이 아니다. (p.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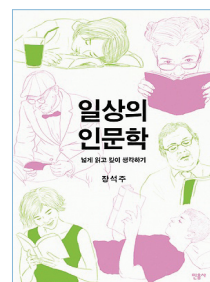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철학자의 사물들  
장석주 | 2013



마흔의 서재  
장석주 | 2012



일상의 인문학  
장석주 | 2012

장석주 지음 다산북스 2012



# 그들은 소리 내 울지 않는다

002

## 사서의 추천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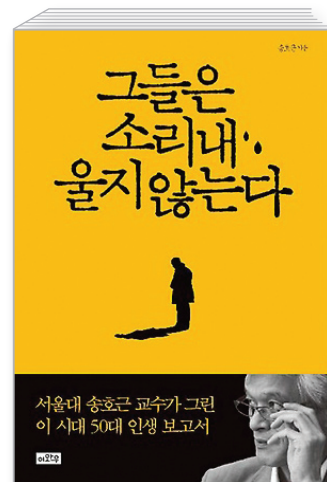
이 책은 슬픈 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50대, 베이비 부머들의 서글픈 현실을 자전적 시각으로 그려낸 에세이이자 세대 치유서이다. 지난 30년간 숨차게 달려온 우리 사회를 꿰뚫어 보는 사회학 교수의 시선을 통해 현 세대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며, 이는 우리 아버지 세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세대 간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학자인 저자는 시대적 배경이나 상황에 대해 구체적 통계를 인용하는 등 사회학적 분석을 가미하였으며, 다른 베이비부머들의 사례 인터뷰를 통해 공감적 요소를 더해 주었다.

## 저자소개 / 송호근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학자이며 정치와 경제, 사회를 넘나드는 넓은 안목과 정교한 분석으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학자이자 칼럼니스트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89년 한림대, 1994년 이후 서울대에서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칼 만하임의 지식사회학연구』, 『정치 없는 정치 시대』, 『세계화와 복지국가』, 『한국,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독 안에서 별을 헤다』, 『인민의 탄생』, 『이분법 사회를 넘어서』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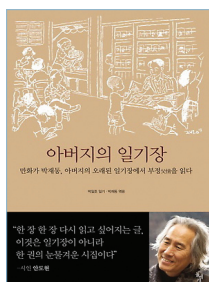


송호근 지음 이와우 옮김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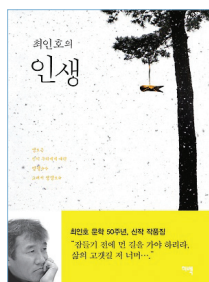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어느 날 귀로(歸路)에서’ - 돌아오는 길목에 기다리던 그대 모습 / 어두워진 그 길에 나를 맞은 그대 미소 / 화려했던 시간들 울고 웃던 친구들 그 곳에 두고 떠나야 하네 / 앞만 보고 달려온 지난날의 추억을 아파하지 마라 / 나는 왜 귀로를 맴돌고 있나 아직 꿈이 가득해 그 자리에 / 나는 왜 귀로를 서성거리나 돌이킬 순 없지만 이제는 알 것 같은데... (p.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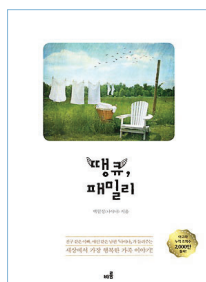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



아버지의 일기장  
박일호, 박재동 | 2013



최인호의 인생  
최인호 | 2013



땡큐, 패밀리  
백일성 | 2013

## 꿈꾸는 카메라

### 사서의 추천글

사진작가 고현주가 4년여에 걸쳐 소년원의 아이들과 함께한 사진수업 이야기로 <프레시안>에 연재했던 '고현주의 꿈꾸는 카메라'의 글을 모아 엮은 것이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이 제한된 공간에서 사진수업을 통해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고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마음을 여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상처 나면 상처 난 대로, 카메라를 통해 거리낌 없이 자신을 드러내는 아이들은 사진을 통해 세상을 내다보고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세상과 함께하는 법을 배운다.

아이들은 모두 '꽃을 피우는 씨앗'으로 만약 꽃을 피우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것은 어른들의 잘못이라는 저자의 말처럼 이 책은 독자들에게 세상의 아이들은 서로 다르지 않으며 모두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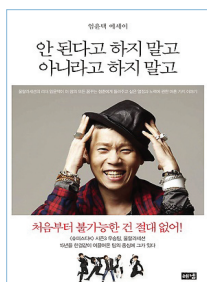
### 저자소개 / 고현주

제주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는 피아노를 전공했고 중학교에서 음악교사를 했다. 그 후 대학원에서 순수사진을 전공했다. 2002년에 <재건축아파트>, 2006년 <기관의 경관>으로 서울에서 두 번의 개인전을 열었다. 현재 프레시안에 『고현주의 꿈꾸는 카메라』, 디지털 사진 전문잡지 VON에서 『사진, 음악에 눈뜨다』를 연재 중이며 『꿈꾸는 카메라』를 통해 이 세상에 외로운 청소년들과 사진으로 소통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 책 속 한 문장

우리는 서로의 가슴을 드러내는 일에 서툴다. 아마도 드러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지 모른다. 하지만 드러내는 순간 서로의 가슴이 열린다. (p. 69)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임윤택 | 2012



무조건 살아, 단 한 번의  
삶이니까  
최성봉 | 2012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은지성 |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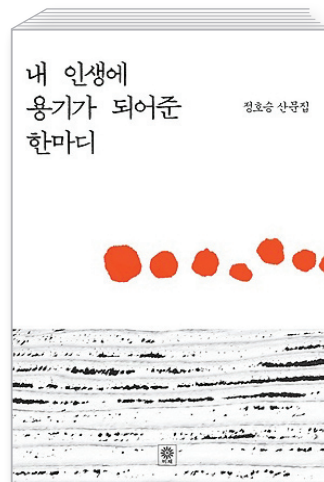
고현주 지음 네임클로바 2012

# 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 사서의 추천글

정호승 시인의 신작 산문집으로 총 76편의 글이 담겨 있다. 누구나 고통 없는 삶을 원하지만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며 마라톤처럼 긴 시간을 달려야 한다. 그러한 인생의 가시밭길을 달리면서 무사히 결승지점에 다다르는 이가 있는 반면, 중간에서 포기해 버리는 낙오자도 속출하기 마련이다. 그런 힘든 순간에 누군가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기를, 위로해 주기를, 가시밭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를 희망한다. 이 책은 그 희망에 답하고 있다.

고통과 실패는 피하기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그 또한 우리 삶의 일부분이며 실패와 성공은 같은 얼굴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다. 소수의 성공에만 집중하고 다수는 실패, 고통, 자살로 얼룩져 가고 소외당하는 현실을 용기와 희망으로 보듬어 준다. 인생의 순간마다 저자가 접한 한마디의 말들과 인생경험을 통한 성찰과 주옥같은 시들이 담긴 이 책을 읽노라면 부모님, 친구가 곁에서 어깨를 두드려 주는 듯하다.



정호승 지음 비채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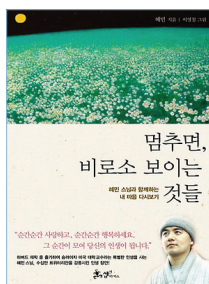
## 저자소개 / 정호승

1950년 하동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성장했으며,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7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동시, 1973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시, 198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이 당선되어 문단에 나왔다. 시집으로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라』등, 시선집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갈대』등, 어른이 읽는 동화로 『연인』, 『항아리』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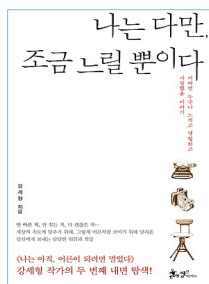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오늘보다 과거나 미래를 그리워하게 되면 결국 오늘을 잃게 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은 꽃에서 나는 향기라 할지라도 오늘의 꽃에서 나는 향기가 더 아름답습니다. (p. 4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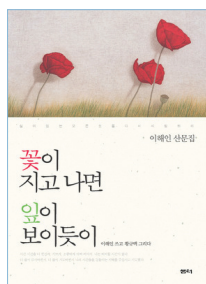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헤민 |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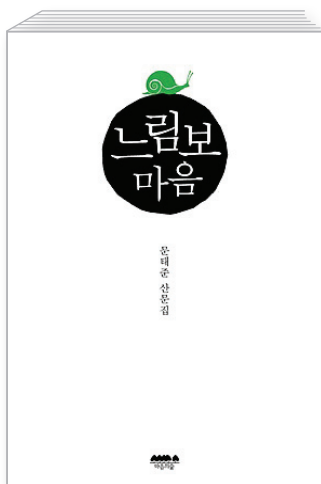


나는 다만, 조금 느릴 뿐이다  
강세형 | 2013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보이듯이  
이해인 | 2011

## 느림보 마음



문태준 지음 마음의숲 2012

### 사서의 추천글

이 책은 한국의 서정 시인으로 유명한 문태준의 산문집이다. 작가는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작고 평범한 것들과 소소한 풍경들을 세밀하게 관찰하며 아기자기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서정시의 읊음을 품은 그의 정갈한 산문은 바쁘고 숨가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메마르고 경직된 마음을 따뜻하고 말랑말랑하게 만든다. 느림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세상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그는 우리 곁에 흩어진 소중한 아름다움을 이 산문집에 모아 놓았다.

일상에 치여 우리 주변에 있었으나 보지 못했던 혹은 보고도 무심히 넘겼던 사물과 풍경들을 문태준의 따뜻한 시선을 통해 다시 만나 보게 될 작품이다.

### 저자소개 / 문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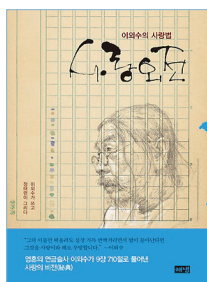
1970년 김천에서 태어나 고려대 국문과와 동국대 대학원 국문과를 졸업했다.

1994년 《문예중앙》 신인문학상에 시가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시집으로 『수런거리는 뒤란』, 『맨발』, 『가재미』, 『그늘의 발달』, 『먼 곳』 등이 있고 시선 해설집으로 『어느 가슴엔들 시가 꽃피지 않으랴』가 있다. 2007년 소월시문학상, 2005년 미당문학상을 비롯하여 노작문학상, 유심작품상, 동서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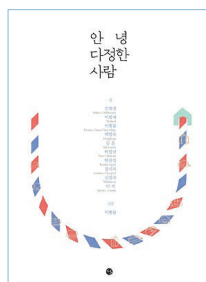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나를 단속하면서 나를 자유롭게 할 일이다. 꽃밭은 저 마당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마음에도 꽃밭을 가꾸어야 한다. 나의 마음도 꿀을 찾아 하늘을 날아가는 작고 귀여운 꿀벌이 되어야 한다. 밀원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p. 32)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사랑외전  
이외수 | 2012



안녕 다정한 사람  
김훈 등 | 2012



세상에 예쁜 것  
박완서 | 2012

# 소년은 철들지 않는다

006

## 사서의 추천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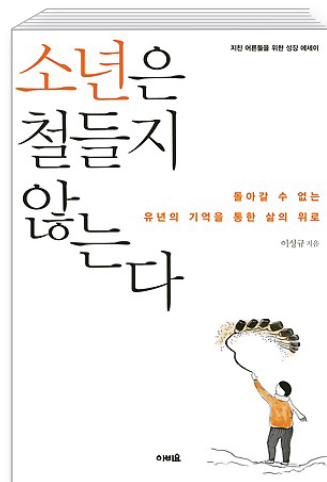
저자의 성장 에세이로 1960년대에 유년기를 보낸 저자가 자신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모습을 담담하면서도 섬세하게 표현한 책이다. 회충약과 채변봉투, 불주사를 피한 줄행랑, 새로 산 《어깨동무》 한 권에 들썩이던 반 아이들, 여름 냇가에서 먹감기 등. 때론 철없고 순수하며 유지했던 유년시절의 꾸밈없는 모습들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주제로 나누어 추억을 담아낸다.

주인공 소년의 시각에서 잔잔하게 그려지고 있는 이 평범한 이야기들이 읽는 이의 가슴에 진한 여운을 남기는 까닭은 지금의 어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절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무한경쟁시대를 살고 있는 지친 어른들에게 유년의 기억을 통해 따뜻한 위로의 시간을 갖게 한다.

## 저자소개 / 이성규

1950년대 말에 태어나 60년대 중반에 유년기를 거친 전형적인 베이비부머 세대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경영·경제를 전공했으며 오랫동안 금융권에 몸 담았다. 한때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일을 했으나 현재는 부실채권을 다루는 민간 배드뱅크의 대표를 맡고 있다.

저서로 『이현재식 경영철학』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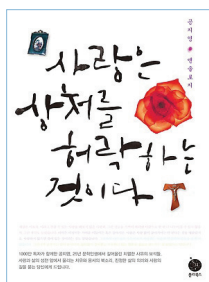


이성규 지음 아비요 2012

## 책 속 한 문장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추억의 자리는 계속해서 줄어만 간다. 벌써 40년 전의 기억들이다. 하지만 아직도 한복을 곱게 차려 입으신 어머니가 어두운 방안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주문을 걸면 추억 속 친구들이 대문 밖에서 뛰어 놀고 있다. (p. 10)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사랑은 상처를 허락하는 것이다 공지영 | 2012



숲의 인문학 김담 | 2013



소설가의 여행법 함정임 | 2012

## 덧글

유년기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잔잔하면서도 기분 좋아지는 책입니다. 어린시절의 잊고 있던 기억을 돌려받게 된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책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오랜만에 너무 기분 좋은 책을 만났습니다.

## 안녕 다정한 사람

### 사서의 추천글

이 책은 각계각층 명사 열 명의 개성있는 '테마여행' 경험담을 모아 생동감 있는 사진과 함께 구성한 여행 에세이다. 여행 무대는 북극선을 넘나드는 북유럽 국가에서부터 아시아를 거쳐 북미까지 세계 구석구석을 누볐으며,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의 직업 및 관심 분야 또한 다양하다.

소설가 김훈, 은희경, 백영옥, 영화감독 이명세, 시인 이병률, 뮤지컬 음악감독 박칼린, 셰프이자 에세이스트 박찬일 등 10인 10색 테마여행의 진수를 간접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주며, 여행의 깊은 사색과 감성과 낯날의 경험을 진솔하게 들을 수 있다.

### 저자소개 / 김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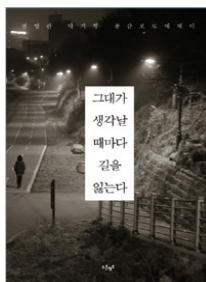
1948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1973년 한국일보에 입사하여 초창기 사회부 기자로 현장을 주로 취재했다. 그 외에도 시사저널, 국민일보, 한겨레신문 등에서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하였다.

장편소설 『빛살무늬토기의 추억』, 『칼의 노래』, 『남한산성』, 『공무도하』, 『내 젊은 날의 숲』 등이 있다. 2001년 『칼의 노래』로 동인문학상을, 2004년 단편 『화장』으로 이상문학상을, 2005년 역시 단편 『언니의 폐경』으로 황순원문학상을, 2007년 『남한산성』으로 대산문학상을 수상했다.

### 책 속 한 문장

낮선 것은 매혹적이다. 그러나 낮섬을 느끼는 건 익숙함에 의해서이다. 그래서 낯선 것 가운데에 들어가면 간혹 내가 더 포렷이 보인다. 내 삶의 틀 속에서는 자연스러웠던 것들의 더러움과 하찮음도 보게 되고, 무심했던 것들에 대한 아름다움도 깨친다. 아득히 잊고 있었던 오래전 일이 기억나기도 한다. (p. 42)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그대가 생각날 때마다  
길을 잃는다  
전영관 | 2013



우리 얼마나 함께  
마종기 | 2013



눈을 감으면  
황경신 | 2013

김훈 등 지음 달 2012



## 어른공부

008

### 사서의 추천글

『인생9단』으로 독자에게 잘 알려진 저자의 '나이들의 지혜'를 전하는 책이다. 저자는 30년간 교도소 교화위원으로 활동하며 사형수를 만나고 떠나보내면서 그리고 인생 황혼기에 암 선고를 받으며 되돌아본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얻은 인생의 소중한 가치들을 기록해내었다.

삶은 원래 힘들다 엄살떨지 마라, 정상에 오르려고 안달복달 하지 마라, 남보다 조금 앞섰다고 뽐내지 마라 등 한 번쯤은 들어봤을 소재들로 구성된 책은, 지식은 넘치는데 지혜는 없고 내 것 챙기기에 바쁜 현대인에게 진짜 어른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

이 책은 삶이 버겁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재방송이 없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할 것이다.

### 저자소개 / 양순자

1940년생으로 올해나이 73세다. 현재 심리상담소 소장인 저자는 37세부터 서울구치소 교화위원으로 29년 동안 사형수를 상담했으며, 영암군청 사회복지과 상담실장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남을 돕는 일에는 계산하지 말고, 누군가 넘어지면 빨리 일으켜줘야 한다'가 신조인 그녀는 지금도 누군가가 SOS를 치면 언제든지 달려가는 열혈 상담가로 180도 변한다.

저서로 『인생 9단』, 『인생이 묻는다 내가 답한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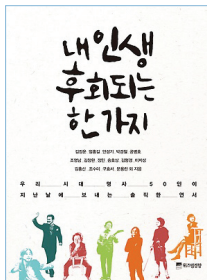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가슴을 울리는 말은 화려하고 힘 있고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말이 아니야. 말주변이 없어 표현이 미숙해도 그 속에 정을 담고 있으면 상대가 움직이지. (p. 101)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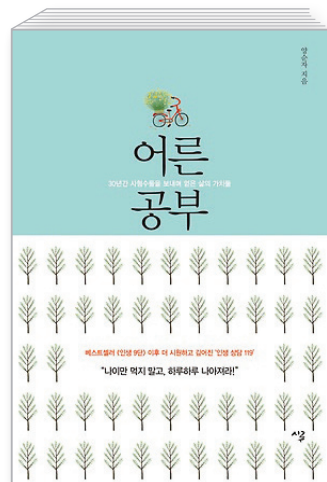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김여환 | 2012



내 인생 후회되는 한 가지  
김정운 외 | 2012



천 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김난도 | 2012



양순자 지음 가디언 2012

## 어머니학교



이정록 지음 열림원 2012

### 사서의 추천글

이정록의 『어머니학교』는 어머니의 말씀을 받아 적어 한권의 시집으로 엮은 책이다. 어머니의 툭툭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대로 시가 된 것이다. 어머니의 삶에서 묻어나는 72편의 시에서 깊은 삶의 철학과 연륜을 느낄 수 있다.

『어머니학교』는 어머니의 구어체를 옮겨 적어 쉽고도 재미있다. 농담 내뱉듯 말하지만 자식의 한숨을 달래는 것 같은 어머니의 말투는 아픔과 괴로움을 소중한 기억과 추억으로 감싸고 보듬어 승화시키는 부드러운 위력을 지니고 있다.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는 따뜻하고 정감어린 시집이다.

### 저자소개 / 이정록

1964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났으며 1989년 대전일보 신춘문예, 199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로 등단하였으며 김수영문학상과 김달진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시집으로 『정말』, 『의자』, 『제비꽃 여인숙』, 『버드나무 껍질에 세들고 싶다』, 『풋사과의 주름살』, 『벌레의 집은 아늑하다』 등이 있고, 산문집 『시인의 서랍』, 동화 『십 원짜리 동탑』, 『귀신골 송사리』, 동시집 『꽃구멍만 바쁘다』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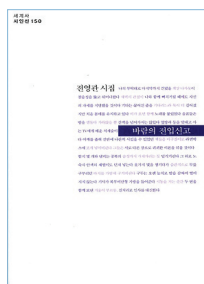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그믐달〉 가로등 밑 들개는/ 올해도 쪽정이란다./ 설 틈이 없었던 거지./ 너도 곧 좋은 날이 올 거여./ 지나고 봐라. 사람도/ 밤낮 밝기만 한다고 좋은 것 아니다./ 보름 아녘던 그믐달 없고/ 그믐 없었던 보름달 없지./ 어둠은 지나가는 거란다./ 어떤 세상이 맨날/ 보름달만 있겠냐?/ 몸만 성하면 쓴다. (p. 38)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세계의 명시 1-2  
문태준 | 2012



바람의 전집신고  
전영관 | 2012



나의 대표시를 말한다  
최두석 | 2012



# 엄마를 졸업하다

## 사서의 추천글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로 독자에게 친숙한 닥종이 인형작가 김영희의 자전적 에세이다. 일흔을 맞아 펴낸 책에는 '엄마'가 아닌 '여자'로서 인생의 2막을 시작하는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다섯 명의 아이들이 장성해서 독립하기까지, 새로운 남편과 결별하기까지 그리고 인생의 황혼기라 말하는 이즈음 처음 써보는 연애편지까지 그녀의 삶의 기록들이 그것이다.

빨리 뛰고, 빨리 일하고 등등 '빨리빨리'를 외치며 살아온 인생이기에 하이힐이 끼어들 틈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저자에게 늙는다는 것은 서러운 것이 아닌 화려한 아름다움의 시작이다. 엄마로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맞이하는 노년의 휴가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가지지 못한 것 대신 가진 것을 확인하며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담담하면서 꾸밈없는 저자의 인생 이야기는 읽는 이로 하여금 잔잔한 감동을 느끼게 해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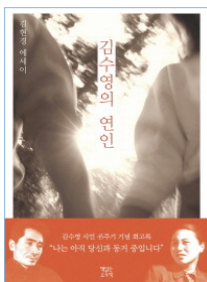
## 저자소개 / 김영희

홍익대학교에서 회화와 조각을 전공한 후, 1981년 독일 뮌헨으로 이주해 닥종이 조형작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1978년 서울에서 가진 개인전을 시작으로 독일뿐 아니라 네덜란드,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스위스 등에서 개인전과 그룹전, 퍼포먼스를 가졌으며 작품으로는 수필집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 『뮌헨의 노란 민들레』, 『밤새 훌쩍 크는 아이들』, 『눈 화장만 하는 여자』, 『눈이 작은 아이들』 등이 있다.

## 책 속 한 문장

젊은 시절에는 안 되는 구멍만 보고 메우려 애썼고, 미완성의 인생이 두려워 마음의 가난을 짊어지고 살았다. 그런데 이제 곳곳에서 생각지 못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여유를 즐길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노년기를 누구에게 감사할까? (p. 202)

##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



김수영의 연인  
김현경 | 2013



행복편지  
박시호 | 2013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임윤택 | 2012



◆ 김영희 지음 ● 샘터사 ㉠ 2012

## 덧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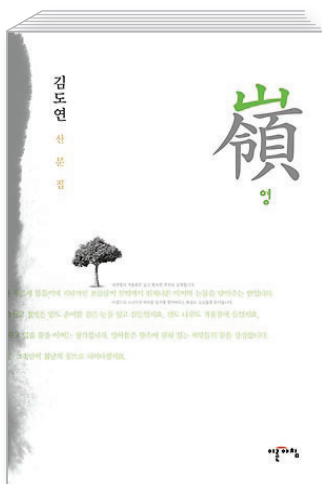
엄마를 당당히 졸업하시고 인생의 전성기라 말하고 계신 작가님! 책을 읽은 후 선생님의 남은 날들도 여자로서, 예술가로서, 찬란하게 즐겁게 자유롭게 즐기분하게 달콤하게, 그리고 사랑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것이 틀림없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 영

### 사서의 추천글

이 책은 강원도 평창에 사는 소설가 김도연의 신작 산문집이다. 대관령의 눈과 바람, 오대산의 풍광과 자연, 봉평의 소박하고 아름다운 정취 등의 사계절이 그의 과거 기억과 현재의 삶을 넘나들며 오묘조묘 펼쳐져 있는 작품이다. 춘천의 뒤편, 대관령 아흔 아홉 구비, 속초의 갯배, 탄광지역 폐광 등 이 책에서는 사라지는 모든 것들에 대한 작가의 연민과 감성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우리는 살면서 이곳과 저곳을 연결하는 가장 빠른 길을 찾고 달리느라 사라지는 것들을 눈여겨보지 못한다. 작가가 느끼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통해 그 소중함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되며, 더불어 작가의 느린 호흡을 통해 강원산간 자연의 매력에 흠뻑 취하게 된다.



● 김도연 지음 ● 이른아침 ● 2012

### 저자소개 / 김도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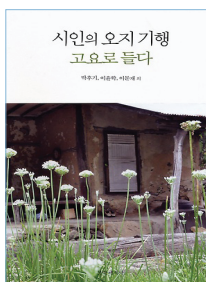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나 강원대 불문과 졸업, 소설집으로 『0시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십오야월』, 『이별전후사의 재인식』, 장편소설로는 2010년 영화화 된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 『삼십 년 뒤에 쓰는 반성문』, 산문집으로 『눈 이야기』 등이 있다.

『0시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작품을 통해 한국소설의 '마술적 리얼리즘 기법'을 가장 잘 소화하는 작가라는 평을 받고 있는 작가이다.

### 책 속 한 문장

메밀꽃이 지고 있습니다. 세월 속으로 사라지는 나귀의 방울 소리처럼 애잔하게. 피고 지는 메밀꽃은 장을 보고 돌아가는 당신의 환한 마음입니다. (p. 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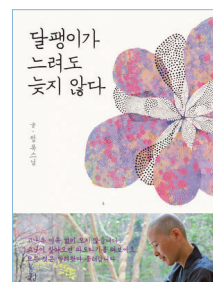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시인의 오지기행 고요로 들다  
고영 등 | 2012



이철수의 웃는마음  
이철수 | 2012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 2012

# 지금도 나를 가르치는 아이

012

## 사서의 추천글

평생을 교직에 몸담아온 저자 황금성이 들려주는 이야기로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지금도 나를 가르치는 아이』에서는 1992년부터 2011년까지 가르친 아이들과의 일화들을 편지, 일기 등으로 풀어놓고 있다. 2부 『조그마한 내 꿈 하나』에서는 저자가 살고 있는 충남 서천의 '산너울' 생태 마을을 일궈낸 과정과 앞으로의 소박한 꿈을 그려냈다. 그리고 3부 『거꾸로 가는 세상』에서는 교사이자 자연인으로서의 이야기를 담았다.

생태마을에서의 소박한 삶과 함께 어우러진 교단의 이야기들은 학생들에 대한 저자의 애정과 진심을 가득 담고 있다. 또한 황금성의 아들 황해프리가 그린 삽화들은 이 책에 담긴 저자의 따스한 마음을 더욱 잘 와 닿게 만든다. 각박하고 상처 받기 쉬운 요즘의 세태를 잠깐이나마 잊고서 이 책을 읽어 보는 것은 어떨까. 학창시절 나만의 일화들과 고마우신 선생님에 대한 아련한 추억 속으로 빠지게 하여 현실에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게 해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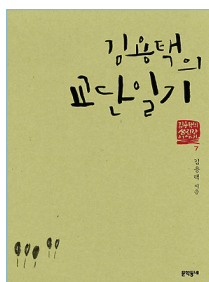
## 저자소개 / 황금성

1955년 경기 부천에서 태어난 저자 황금성은 현재 충남 서천의 장항중학교에서 사회과 교사로 재직 중이며 '산너울' 생태 마을에서 살고 있다.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 회장을 지냈으며 지금은 《글과 그림》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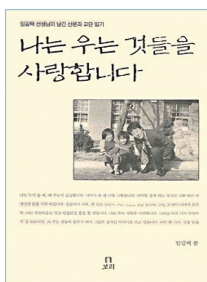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항상 생각하며 살아 보니 그것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 근본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 이 근본 정신은 내가 그 일을 이루는 데 아주 많은 힘과 도움을 주었다. (p. 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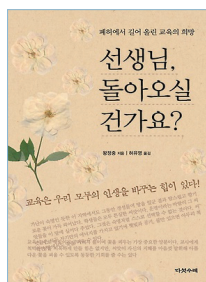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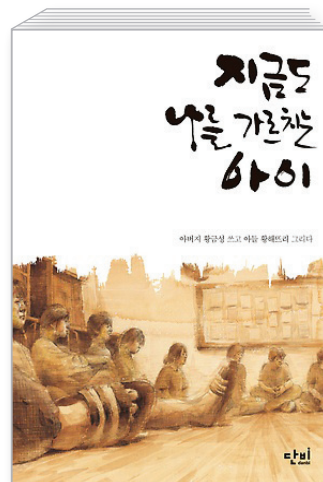
김용택의 교단 일기  
김용택 | 2006



나는 우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임길택 | 2004



선생님 돌아오실 건가요  
왕정중 | 2013



● 황금성 지음 ● 단비 ● 2012

## 덧글

이책을 보면서 학창시절의 추억이 막 떠오르네요! 그땐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조그만 것 하나 하나가 다 소중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주변의 작은것에 소중함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

### 사서의 추천글

우리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논리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저자는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경제성보다 도덕성에 좌우될 때가 더 많다고 말한다. 경제적 욕구와 도덕적으로 보이기 위한 욕구가 대립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덕적 인물로 보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에서는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면서도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는지,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행위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기에 짝퉁 명품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스스로 채점해 맞힌 수에 따라 돈이 지급되는 과제 등 흥미로운 실험을 통해 인간 심리 현상뿐만 아니라 행동경제학의 기본적인 개념까지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소소한 거짓말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소한 거짓말이나 부정행위에 무더진 우리의 모습을 한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 댄 애리얼리 지음 📖 청림출판  
📅 2012

### 저자소개 / 댄 애리얼리

저명한 행동경제학자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상식 밖의 경제학』의 저자이다. 행동경제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그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좀 더 현실적으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 책 속 한 문장

우리는 부정직함의 마술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p. 317)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생각에 관한 생각  
대니얼 카너먼 | 2012



9시의 거짓말  
최경영 | 2010



타고난 거짓말쟁이들  
이언 레슬리 | 2012

# 나는 결심하지만 뇌는 비웃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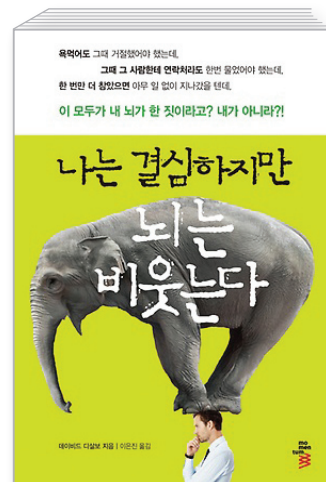
014

## 사서의 추천글

왜 우리는 가끔씩 자신에게 이득이 안 되는 행동을 할까? 저자는 우리의 뇌가 도전하는 것보다는 순응하는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보다는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기질을 갖고 있다고 한다.

『나는 결심하지만 뇌는 비웃는다』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뇌가 나의 노력을 어떻게 무시하고 편향된 판단을 내리게 하는지 이야기한다. 뇌는 발전적인가? 치밀한가? 성실한가? 주도적인가? 똑똑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우리가 뇌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깰 수 있도록 도와준다.

모든 것이 편하고 예측 가능하길 바라는 '행복하고 싶은 뇌'와 씨름하다 보면 좌절감이 몰려오기도 하고,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때도 있다. 하지만 저자는 최종 결정은 여전히 우리의 몫이라고 강조한다. 이 책을 통해 뇌라는 놀라운 기관을 이해하고 '뇌가 비웃지 못하는 결심'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데이비드 디살보 지음 푸른숲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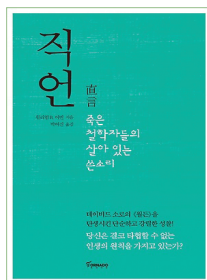
## 저자소개 / 데이비드 디살보

“과학을 방자해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른바 ‘자기계발성 가짜 약’의 실체를 신랄하게 폭로하는 탁월한 안내자”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우주가 나를 도와준다’는 식의 달콤한 거짓말에 사람들이 더 이상 속지 않도록 하는 것, 우리를 움직이는 뇌를 쉽게 이해하고 잘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것을 천직으로 여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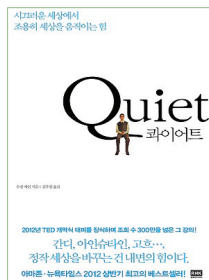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뇌의 신호를 무시해야 하는 순간을 잡아라. (p.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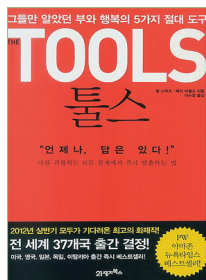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직언  
윌리엄 B. 에빈 | 2012



콰이어트  
수전 케인 | 2012



툴스  
필 스타츠 | 2012



## 내가 말하는 진심 내가 모르는 본심

### 사서의 추천글

무엇이 내 행복을 훼방 놓는가? ‘난 괜찮아, 모든 게 괜찮아’, ‘내가 아니라 당신이 문제야’, ‘그건 나에게 그리 중요한 건 아니었어.’, ‘감정보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런 당신의 말과 생각들이 바로 당신의 행복을 훼방 놓는 것이라면?

『내가 말하는 진심 내가 모르는 본심』은 현대인들이 마주치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와 이를 감추려는 10가지 방어기제를 설명한 심리서이다. 방어기제가 있어서 우리는 느끼기 싫어하는 감정을 외면할 수 있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지 않으며 살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온전하고 풍요로워야 할 삶을 제한하고 행복을 가로막는 역할도 한다.

저자는 마음의 보호자의 뒤에 숨지 말라고 한다. 기쁨과 행복만큼의 불편함 그리고 불안감을 외면하지 말고 온전히 느끼고 똑바로 바라본다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진짜 마음을 찾아보자. 더 이상 내 행복을 방해하지 않도록 말이다.



● 매릴린 케이건, 닐 아인번드 지음  
● 전나무숲 檜林 © 2012

### 저자소개 / 매릴린 케이건, 닐 아인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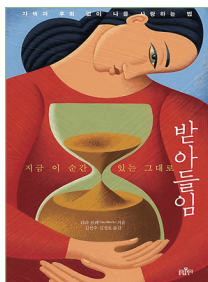
**매릴린 케이건** - 25년 이상 개업으로 일해 온 공인임상사회복지사이다. 로스앤젤레스의 KFI 방송국에서 8년간 인기 토크쇼를 진행하였다.

**닐 아인번드** - 공인임상심리치료사이자 결혼 및 가족 치료 전문가이다. 지난 20년간 미국 유대대학교에서 부부 상담 프로그램인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하여'를 진행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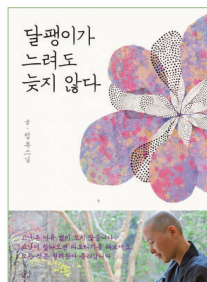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기쁨을 느끼는 만큼 가끔은 불편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p.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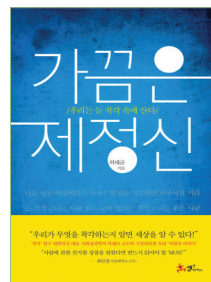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  
타라 브랙 | 2012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 목 | 2010



가끔은 제정신  
하태균 | 2012

# 마지막 한 걸음은 혼자서 가야 한다

016

## 사서의 추천글

누구나 챗바퀴 돌듯 하는 일상을 떠나고 싶을 때가 있다. 세상에 만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순간도 있다.

『마지막 한 걸음은 혼자서 가야 한다』의 저자는 일상을 떠나 50여 일간 산티아고 900킬로미터를 걸으며 몸과 마음으로 느꼈던 이야기를 들려준다. 대학 교수에서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또 작가로서 계속 도전하는 삶을 살았지만 세월의 흐름 앞에 어느 순간 다시 멈춰버린 자신을 발견하고 '세상은 저지르는 자의 몫이다'라고 외치며 불안한 안주를 박차고 산티아고로 향하는 인생배낭을 꾸린다.

저자는 산티아고로 가는 길이 타인과 경쟁하며 가는 길이 아니라고 말한다. 여럿이 함께 가든 혼자 가든 결국에는 자아를 찾아가는 고독한 길인 셈이다. 인생의 해답을 내 안에서 스스로 찾고 그 마지막 한 걸음은 혼자서 가야하는 것이 아닐까.



## 저자소개 / 정진홍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으며, 커뮤니케이션학으로 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8년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를 지냈으며 현재는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 <정진홍의 소프트파워> 칼럼을 매주 연재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인문의 숲에서 경영을 만나다 1, 2, 3』, 『정진홍의 사람공부』, 『사람이 기적이 되는 순간』, 『아홉@비트』,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세 시대』가 있다.

정진홍 지음 문학동네 2012

## 책 속 한 문장

느리면 어쩌하랴. 그것이 자기 걸음이라면 느린 것이 아니라 적당한 거다. (p. 193)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존 맥스웰 | 2012



살아야 하는 이유  
강상중 | 2012



천 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김난도 | 2012

## 덧글

저자가 산티아고 900킬로를 걸으면서 얻은 삶의 철학이라는 말에 마음이 이끌렸습니다. 자신의 깊은 곳에 쌓여있던 것에 대한 진솔한 고백은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안겨줍니다. 우리가 먼 인생길을 가려면 서두르기보다 정지와 멈춤이 필요한 것처럼 이 책을 통해 새로운 철학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 모든 슬픔에는 끝이 있다

### 사서의 추천글

가급적 피하고 외면하며 가능한 최후에 찾아오기를 바라는 죽음.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진 사람도 그 아픔을 안고 삶을 이어갈 것이다.

『모든 슬픔에는 끝이 있다』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을 경험한 사람들을 위한 심리치유서로 저자가 30년간 만난 상담자들의 이야기와 실질적인 조언들을 담았다. 영원한 이별을 받아들이고 감정을 잘 추스르는 방법, 슬픔을 이겨내는 과정 등을 설명한다. 저자는 사별은 죽은 사람의 빈 의자를 두고 살아가는 상태에 적응하는 것이며, 사별의 마지막 단계는 고인을 잊거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닌 소중한 기억을 자기 삶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엮어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사별을 겪은 사람들이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행복해질 삶의 궤도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따뜻한 위로와 구체적 도움을 주는 책이다.



- 로버타 템즈 지음
- 비전비엔피 : 애플북스 ㉠ 2012

### 덧글

책은 줄곧 이야기합니다. 슬픔을 이겨내는 시간이 저마다 다르고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도 저마다 다르지만 결국은 모든 슬픔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지금 힘들더라도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라고 조언합니다. 어떻게 이별하고 나서 어떤 감정이고 어떤 상태인지, 또한 어떤 과정으로 사별하게 되는지 상담자의 사례를 들어 이야기해 주고 있죠. 책을 읽으며 어느때에 이별할지 모르는 나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저자소개 / 로버타 템즈

저명한 심리치료 전문가로 Downstate Medical School과 뉴욕시립대 등에서 죽음, 임종, 사별에 관해 가르쳤다. 저서로는 수상 작품인 『Living with an Empty Chair』를 비롯해 『The Tapping Cure』, 『Getting Your Life Back Together When You Have Schizophrenia』 등 여러 권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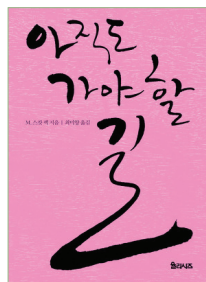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사랑하는 이의 죽음 탓에 세상은 한 뼘 줄어들었지만 자신까지 작아질 필요는 없다. (p.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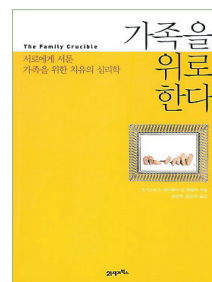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가짜 우울  
에릭 메이젤 | 2012



아직도 가야 할 길  
M. 스캇 펙 | 2011



가족을 위로한다  
오거스터스 네이피어,  
칼 휘태커 | 2012



## 왜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가

018

### 사서의 추천글

한비자가 보는 세상은 어둡고 냉혹하다. 자기 이익만을 좇는 이기와 탐욕, 위선과 배신이 판치는 세상이다. 그의 눈으로 보면 현실과 멀리 떨어져 인의와 예를 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리석어 보인다.

왕의 백성에 대한 측은지심보다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준이나 법이 세상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제왕이 법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충신의 목이라도 베어야 한다고 비정하게 말한다.

한비자는 군주를 위한 책으로 오늘날로 보자면 각계의 리더를 위한 책이다. 그런데 저자는 왜 서른 살에 한비자를 권하는 걸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막연한 이상을 좇기보다 한비자의 냉철한 현실인식이 더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난세의 처세철학이 담긴 <한비자>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의 힘으로 일으켜 세우려는 오늘의 세대에게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 김태관 지음 ● 홍익출판사 ● 2012

### 저자소개 / 김태관

스포츠경향 편집국장, 경향신문 종합편집장 및 논설위원을 역임한 언론인 출신이다. 그의 글은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찌른다. 유려하면서도 예리하다. 일련의 칼럼과 인터뷰를 통해 사회 현상과 시대 흐름을 관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얻었다. 당분간 고전의 바다에서 사유와 사물의 본질을 낚아 올릴 계획이다.

### 책 속 한 문장

천리마라도 부릴 수 없다면 베어 버려라. (p. 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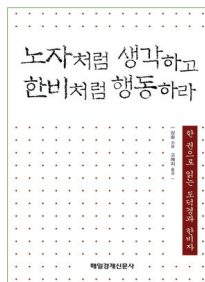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



한비자 교양강의  
가이즈카 시게키 | 2012



공자가 청춘에게  
신창호 | 2012



노자처럼 생각하고 한비처럼 행하라  
상화 | 2012

## 일주일이 남았다면

### 사서의 추천글

주어진 삶이 일주일 뿐 이라면 무엇을 하고 싶을까? 이 책은 25년간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삶을 살았던 그들이 죽기 전에 무엇을 가장 후회하는지를 들려준다. 죽음을 앞둔 이들이 절실하게 후회하는 것을 7가지로 정리하여 누구나 삶의 마지막을 향해 걸어가는 여행자인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여정지의 후회 없는 선택을 말한다.

25년간 호스피스 의사로 일해 온 저자는 자신에게 깨달음을 준 27명의 환자들의 마지막 시간을 통해 감동과 함께 후회 없는 삶이 무엇인지 들려준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는 영국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처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잠시 멈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카렌 와이어트 지음 예문 2012

### 저자소개 / 카렌 와이어트

뉴멕시코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가정의학과를 전공하고 유타대학교에서 정신의학을 공부 후 25년간 저소득층 시한부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와 가정 호스피스 등에 종사해 왔으며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병원을 설립했다. 본서 외에도 『삶과 죽음의 문제: 상실과 슬픔의 치유에 관한 이야기』를 저술했으며, ‘미국여성의 정신상’을 수상하고 ‘유타 주의 주목할 만한 여성’으로 선정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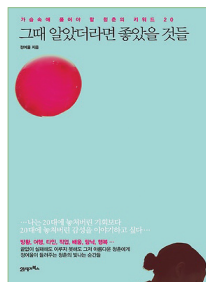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행복해지면 욕망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를 살면 걱정해야 할 미래도, 애통해할 과거도 없습니다. (p.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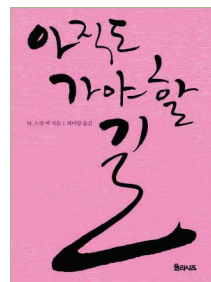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



내가 알고 있는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칼 필레머 | 2012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정여울 | 2013



아직도 가야 할 길  
M. 스캇 팩 | 2011

# 죽음이란 무엇인가

020

## 사서의 추천글

가족 누군가가 죽음이란 단어로 인터넷 검색을 한 것을 알게 됐거나 죽음관련 책이 책상 위에 놓여있는 걸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죽음이란 주제는 심각하고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마이클 샌델교수와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현대철학자인 케이건 교수는 ‘죽음이란 주제로 강의를 한다. 즉, ‘인간은 모두 죽을 운명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대한 Well Dying 류의 책이 아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은 나쁜 것인지, 영원한 삶은 좋은 것인지 등 죽음에 대한 질문들을 플라톤, 에피쿠로스 등 철학자의 의견 및 일반적 견해들을 반증하며 죽음에 대한 저자 자신의 논리를 펴나. 철학적 사고방법이 쓰였다고는 해도 걸리버여행기, 레버-퀴 실험 등 다양한 사례로 풀어가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는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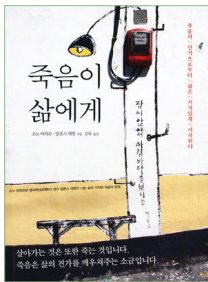
## 저자소개 / 셸리 케이건

예일대학교 철학교수로 철저히 현실에 기반을 두고 삶과 죽음의 문제, 행복, 도덕적 가치, 공공의 선, 인간의 본성 등에 관한 논문과 저작을 발표하고 있다. 대표 저작인 『도덕의 한계(The Limits of Morality)』와 『규범윤리학(Normative Ethics)』은 세계 유수 대학에서 철학 교재로 채택하고 있으며, 최근에 출간되어 인간의 도덕성을 재고하는 『사막의 기하학(The Geometry of Desert)』은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 책 속 한 문장

영원히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럴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것을 택할 테죠. 하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p. 351)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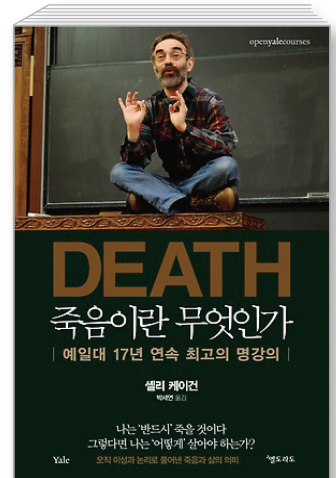
죽음이 삶에게  
소노 아야코, 알폰스 데켄  
| 2012



행복한 인생의 세가지 조건  
오츠 슈이치 | 2011



살아야 하는 이유  
강상중 | 2012



📖 셸리 케이건 지음 📖 웅진씽크빅  
📅 2012

## 덧글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 이름을 보고 처음에는 반감을 가졌어요. 『정의란 무엇인가』가 흥행을 하니, 유사한 도서들이 계속 출간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책을 읽을수록 반감이 호감으로 바뀌면서 죽음에 대한 깊이있는 사유가 가능해졌어요. 죽음이 내결에 있다는 것, 죽음 역시 삶의 연장선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죠.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죽음을 깨닫는 삶에 대한 애착을 갖게 해준 도서입니다.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철학을 권하다

### 사서의 추천글

누군가 '고대철학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으며 오프라 윈프리가 옥스퍼드대 인문학교수들보다 적절한 질문을 더 많이 한다.'고 말한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럴 듯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줄스 에반스는 철학을 통해 사회불안장애를 치유한 후 사람들의 삶에 적용되는 철학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저널리스트로 박물관의 유물로 취급되는 고대철학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삶의 기술로서의 철학을 내놓았다.

소크라테스는 '스스로 질문하기'를 통해 '내가 지금 현명하게 반응하고 있나?'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도록 권한다. 세네카는 '이미 끝난 고통을 질질 끌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단지 과거에 그랬던 이유로 지금 불행해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묻는다.

저자는 철학을 삶의 기술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훈련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삶의 철학은 '아는 철학'이 아닌 '체득되어 마음으로 행복해지는 철학'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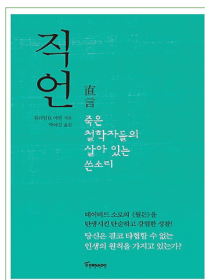
### 저자소개 / 줄스 에반스

영국 최대 규모의 철학 커뮤니티인 '런던필로소피클럽'의 공동창립자이자 운영자로, 영국 전역에서 강연과 워크숍을 진행하며 삶과 맞닿은 실용 철학을 전파하고 있다. 런던대학교 퀸메리캠퍼스의 '감정의 역사 연구소'에서 '행복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으며, 심리학과 철학의 접점을 찾아 <월스트리트저널>, <더 타임스>, <스펙 테이터>, <프로스펙트> 등에 꾸준히 기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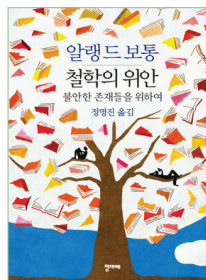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커리어란 무작정 추구하고 봐야 한다고 인식되는 개념이다. 그것이 중산층이 겪는 고통의 원인이다. (p.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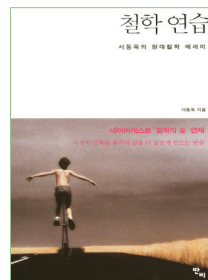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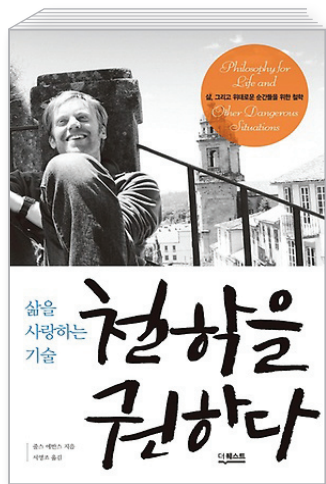
직언 : 죽은 철학자들의  
살아 있는 쓴소리  
윌리엄 B. 어빈 | 2012



철학의 위안  
알랭 드 보통 | 2012



철학연습  
서동욱 | 2011



● 줄스 에반스 지음 ● 길벗  
2012

## 콰이어트

022

### 사서의 추천글

현대사회에서 소심하고 내향적인 사람은 부정적으로 평가받기 일쑤다. 그래서 내향적인 아이를 둔 부모는 양육방법을 고민하고 학교에서는 '껍질을 깨고 나오라'며 재촉한다.

저자는 우리 안의 외향성과 내향성에 대한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세상은 외향적인 사람을 선호하지만 정작 세상을 바꾸는 건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증거로 루즈벨트, 워런 버핏, 간디 등과 같은 중대한 발자취를 남긴 내향적인 사람들을 통해 내향성이 사회와 만날 때 어떤 중대한 효과와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실제로 현대를 살아가는 내향적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작용들이 과연 무엇인지, 이들의 심리적 사고와 행동 패턴이 가진 긍정적 가치들을 조직이나 사회 내에서 어떻게 계발시키고 이끌어 낼 것인지에 관해 심도 있게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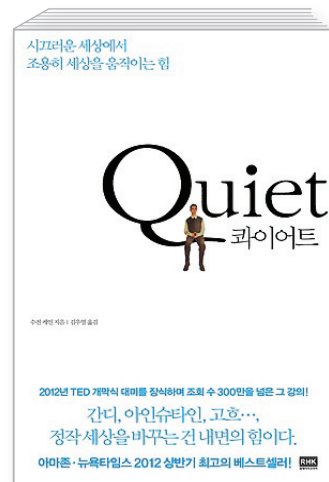
'행동보다는 사색을 좋아하는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내향적인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내향성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 저자소개 / 수전 케인

그녀는 조용한 책벌레 소녀였다. 프린스턴과 하버드 법대를 우등생으로 졸업한 후 기업과 대학에서 협상기법을 가르치는 변호사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궁금했다. '왜 세상은 외향적인 사람을 선호하고, 왜 내향적인 사람은 자기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원래의 성격을 감추려 하는 걸까?' 수년간의 연구와 수많은 사람과의 인터뷰 끝에 그녀는 자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내향성이 얼마나 위대한 기질인지 스스로 증명해보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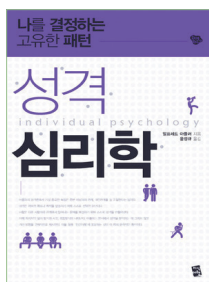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조용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의지가 나약한 것은 아니다. (p. 362)



● 수전 케인 지음 ● 알에이치코리아  
📅 2012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성격심리학  
알프레드 아들러 | 2012



타인보다 더 민감한 사람  
일레인 N. 아론 | 2011



왜 나는 항상 욕하는 걸까  
토마스 자움 알데호프 | 2010



## 프로이트, 인생에 답하다

### 사서의 추천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 대해 나만큼 잘 아는 이가 또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남들은 다 알고 있는 '나'를 정작 본인은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에 정신건강 전문의인 책의 저자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을 이용해 '나'를 들여다보는 방법을 소개한다.

소월의 시 <엄마야 누나야>에는 왜 아버지나 형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 심리학적 관점으로 보면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버지나 형을 경쟁자로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렇게 우리의 일상을 프로이트식으로 풀어나간다. 자신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는 정신분석은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이를 극복하고 용기를 내면 자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내가 살아온 길, 그 길에 답이 있다고 강조하며 정신분석은 단번에 나를 파악할 수 있는 마법이 아니라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며 노력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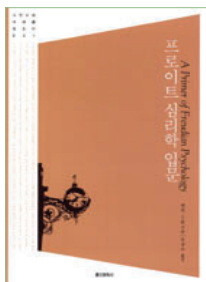
### 저자소개 / 이병욱

1985년부터 현재까지 한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정신치료란 무엇인가', '프로이트와 마르크스', '정신분석, 과학인가 문학인가', '창조성과 정신병리' 등 115편에 달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제1회 한국정신분석학회 학술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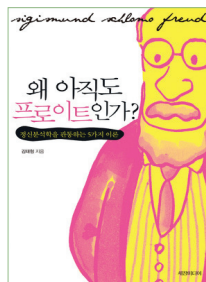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지나온 길의 연장선에 있는 게 분명하지만, 그러나 길은 안개 때문에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다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토대로 현재 나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프로이트를 표지 삼아 자신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p. 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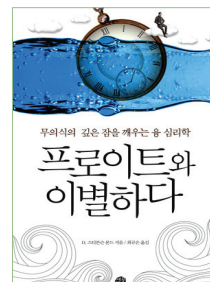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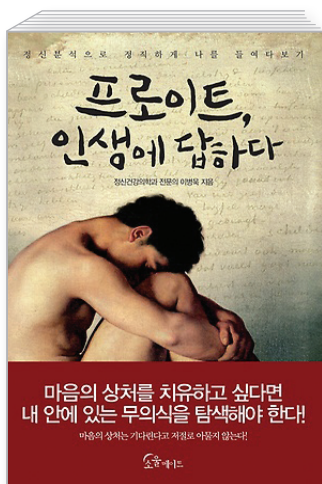
프로이트 심리학 입문  
캘빈 S. 홀 | 2010



왜 아직도 프로이트인가?  
김태형 | 2011



프로이트와 이별하다  
D. 스티븐스 본드 | 2012



이병욱 지음 | 소울메이트 | 2012

## 경제학자의 영화관

024

### 사서의 추천글

〈레터스 투 줄리엣〉에 나오는 첫사랑, 〈은교〉의 이적요가 보여주는 행동변화, 〈마당을 나온 암탉〉의 양계장, 〈광해, 왕이 된 남자〉의 진정한 왕을 경제학의 시각으로 본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저자는 각각을 다음과 같이 풀어내고 있다. 첫사랑은 한계효용제감의 법칙이 적용된다. 첫아이에 대한 부모의 관심도 그러하다. 이적요의 입장에서 은교는 넋지효과이다. 팔꿈치로 툭 친 것 같은 은교의 등장은 노시인의 삶을 바꿔놓는다. 마당을 나온 암탉에서 양계장은 초기 자본주의를, 마당 밖의 자연은 자본주의 4.0을 닮았다. 광해군의 대동법은 부자 증세로 설명되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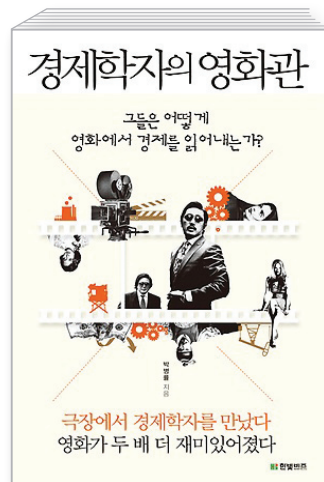
35편의 영화를 통해 경제원리, 경제심리, 경제사, 현실경제, 경제지표를 담아낸 이 책은 저자가 서문에서 말하길, 자신이 가진 재주인 '글을 쉽게 쓰는 것'으로 영화 50퍼센트, 경제 50퍼센트를 맞잡나게 잘 버무렸다고 한다. 영화를 좋아하고 경제를 궁금해 하는 독자에게 이 책은 경제상식의 '호우(好雨)'되어줄 것이다.

### 저자소개 / 박병률

저자 박병률은 어느 날 뮤지컬과 영화를 보다 문득 "어? 저런 경제학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영화 속 경제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글을 썼다. 《주간경향》에 2년간 연재하고 있다. 1999년 《국제신문》에서 기자생활을 시작했고, 2008년 《경향신문》으로 옮겼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경제부 기사를 지냈다. 부산대를 거쳐 KAIST 과학저널리즘대학원프로그램(경영학 석사)을 마쳤다. 저서로는 『부산에 관한 스물두 가지 발칙한 상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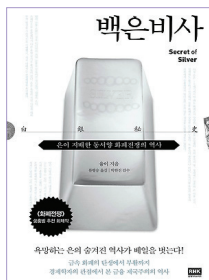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이제 경제학자의 프레임을 살짝 끼우고, 영화를 보며 뜨겁게 경제상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p.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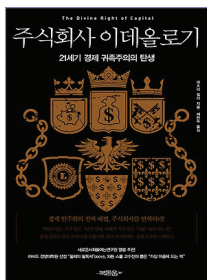


● 박병률 지음 ● 한빛비즈 ● 2012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백은비사  
윤이 |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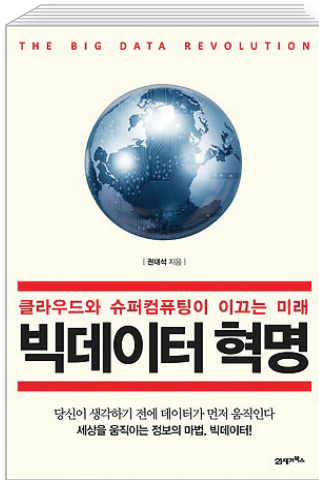
주식회사 이데올로기  
마조리 켈리 | 2013



조지 소로스는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까  
니콜라 귀요 | 2013

## 빅데이터 혁명

### 사서의 추천글



- 권대석 지음
- 북이십일 21세기북스 2012

이 책은 '빅데이터'라는 신개념을 여러 사례를 통해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책이다.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이길지 알 수 있다면 어떨까? 내 아이는 몇 살쯤 암에 걸릴까?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는지 알아낼 수 있다면 무엇이 변할까?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개념이 '빅데이터 기술'이다. 책의 첫 번째 장은 빅데이터와 슈퍼컴퓨팅 등 첨단 기술의 가능성을 소개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장에서는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슈퍼컴퓨팅이 교육, 의료, 학문 등 개인적 차원의 활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이런 변화를 활용하여 기업과 조직 등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당면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첨단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다. 기술의 발달과 미래의 변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저자소개 / 권대석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기술인 '클러스터링 기술'을 연구해 서울대학교에서 국내 최초로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 수여, 2000년 (주)클루닉스를 창업해 대표이사로 재직 중, 금융, 조선, 에너지,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 슈퍼컴퓨팅과 클라우드 기술을 보급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1년 지식경제부로부터 'IT 융합 기업인상'을 수상했다. 10년 넘게 벤처기업을 경영하면서 '몸으로 체험한' 한국 사회의 문제를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해답을 이 책에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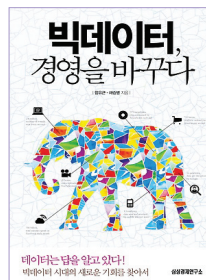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빅데이터는 자신이 믿는 누군가의 의견에 동조한다거나,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이해해서 할 일을 결정한다거나, 자기의 신념과 감으로 결정을 내리는 '인간의 본성' 반대편에 있는 기술이다. (p. 10)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플랫폼 전쟁  
조용호 | 2012



빅데이터, 경영을 바꾸다  
함유근, 채승병 | 2012



빅 데이터가 만드는  
비즈니스 미래지도  
송민정 | 2012



## 세상은 나의 멘토

### 사서의 추천글

한국의 기성세대들에게 UN이란 6.25전쟁, UN군 참전, 국제원조 등이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젊은이들에게는 UN평화유지군 파견,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故 이종욱 박사 등과 같은 말들이 더욱 친숙하게 느껴질 것이다. 이처럼 한국은 경제가 발전하고 국력이 신장됨에 따라, 보다 능동적으로 국제기구의 활동에 참여하고, 세계무대에서 활약하고자 하는 능력있고 꿈 많은 젊은이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세상은 나의 멘토』는 국제구호 활동가 ‘한비야’를 비롯하여 NGO분야의 국제기구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13명의 현장 실무자들의 이야기로 UN과 NGO의 전통적인 활동 주제인 인권과 빈곤, 사회적 정의 문제부터 기후변화와 북한 문제, 교육,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들을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삶에 대해 고민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는 젊은이들에게 삶의 방식과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저자소개 / UNGO아카데미 강사진

UNGO란 UN과 NGO라는 뜻으로 ‘UNGO아카데미’는 UN국제기구, NGO, 그리고 유관기관에서 현직으로 일하고 있는 젊은 활동가들이 강연한 세미나이다. UNGO 아카데미는 ‘실무자의, 실무자에 의한, 실무자를 위한 아카데미’를 표방하며, 각 단체에서 실제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경험과 사례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UNGO 아카데미의 차별화된 강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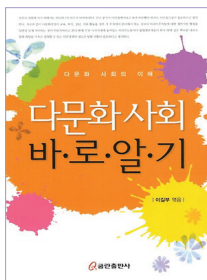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세상에 정형화된 길은 없다는 것, 그 사람에게만 맞는 오직 그 사람에게만 보이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중요한 것은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입니다. 최고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비전을 그려온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최선은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p. 126)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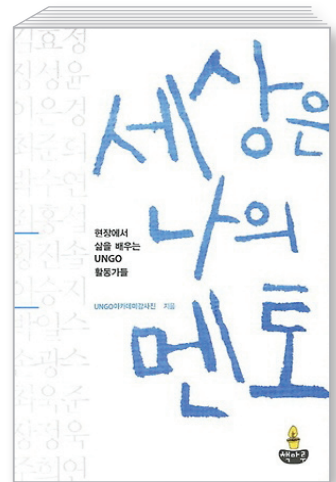
혁명을 리트윗하라  
폴 메이슨 | 2012



다문화사회 바로 알기  
이길부 | 2012



다문화 사회와 글로벌 리더  
추병완 | 2012



● UNGO아카데미 강사진 지음  
● 책마루 ㉠ 2012

### 덧글

책 속의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소중한 깨달음을 주었고 비단 UNGO 단체에서 근무하는 실무자에게뿐 아니라 저에게도 실무자로서 어떤 자세로 말은 일을 진행해야 할 지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지인들에게도 한 번 읽어보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당당한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 언급된 다만 몇 가지라도 마음에 새기고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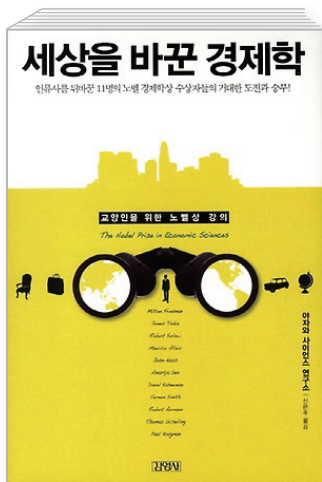
## 세상을 바꾼 경제학

### 사서의 추천글

최근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맥킨지는 ‘한국의 위기는 북핵보다 경제다’라며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밖에도 각종 언론에서는 세계의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각국의 움직임 등에 관한 뉴스를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는 우리 삶에 상당히 밀접하고도 현실적인 중요한 문제이다.

『세상을 바꾼 경제학』에서는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에게 주어지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가운데 1976년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부터 이후 30년 동안 흥미롭고 혹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1명의 경제학자들에 대해 그들의 연구와 삶을 진솔하고 생동감있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경제학이 현실 세계에 미친 영향과 세상을 바꾼 이론들의 탄생 배경에 대한 고찰을 통해 21세기 경제학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을 통해 경제학이라는 연구 분야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경제위기들에 대한 세계의 움직임을 좀더 거시적으로 통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야자와 사이언스 연구소 지음  
김영사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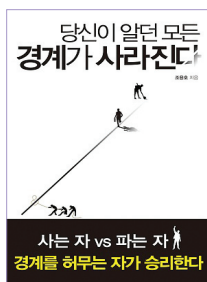
### 저자소개 / 야자와 사이언스 연구소

야자와 사이언스 연구소는 1982년에 설립된 과학정보 그룹으로,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출간 기획 및 집필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발간한 출판물로 『최신 과학론 시리즈』(전 3권), 노벨상 수상자를 인터뷰한 『지식의 거인』, 『경제학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거대 프로젝트』 등이 있다.

### 책 속 한 문장

시장은 사회적인 안전망을 갖추어야 하고 경제성장은 그 각각의 지역 문화가 공존해야 한다. 문화는 사용이 끝났다고 폐기되는 기계처럼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p. 166)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당신이 알던 모든 경계가 사라진다  
조용호 | 2013



멀티플라이어  
리즈 와이즈먼, 그렉 맥커운  
| 2012



국가는 왜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가  
랑셴핑 | 2012

# 세상의 모든 전략은 전쟁에서 탄생했다

028

## 사서의 추천글

이 책은 오랫동안 세계 각국의 전쟁사를 연구하고 실제로 답사를 통해 분석해온 저자가 역사 속 위대한 전쟁에서 탄생한 뛰어난 전략과 전술을 소개하는 책이다.

기원전 490년의 마라톤 전투부터 1950년의 한국 지평리 전투까지 동양과 서양, 고대와 현대의 전쟁을 아우르며 그 중에서도 매우 획기적이고 창의적이며, 전쟁의 원칙을 완전히 뒤집었던 전쟁과 전투 25건을 다섯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상식을 뒤집은 전투들, 두 번째 카테고리는 두려움을 떨치고 과감히 도전하여 혁신을 이룬 전투들, 세 번째 카테고리는 실패한 전투들, 네 번째 카테고리는 팀워크가 빛을 발한 전투들, 마지막 다섯 번째 카테고리는 명장의 리더십으로 승리를 거둔 전투들을 소개하고 있다.

전쟁도 본질은 경영이다. 따라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위대한 명장들이 고안한 전략과 전술은 오늘날의 기업과 개인의 삶의 경영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전쟁 같은 삶을 사는 그대여, 이 전쟁에서 승자이고 싶은가? 그럼 전쟁의 역사가 가르쳐주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자.

## 저자소개 / 임용한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 동 대학원에서 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한국사로 박사학위수여, 한국역사교전 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며 경기도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활동, 경희대학교, 해 광운대학교, 충북대학교, 공군사관학교 등에 출강, <DBR(동아비즈니스리뷰)>에 '전쟁과 경영'을 2008년부터 현재까지 연재 중, 저서로는 『난세에 길을 찾다』, 『한국고대전쟁사』, 『전쟁과 역사』, 『조선국왕이야기』 외 다수가 있다.

## 책 속 한 문장

조직이든 개인이든 자기계발과 발전을 원한다면 내일의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필요를 찾아야한다. (p. 105)



임용한 지음 교보문고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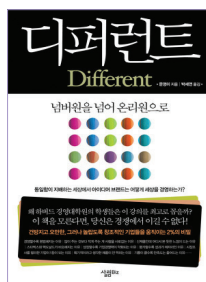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위닝  
해미시 맥레이 | 2012



전략의 적은 전략이다  
리처드 루멜트 | 2011



다퍼런트  
문영미 | 2011

## 자존감이 나를 세운다

### 사서의 추천글

‘할 수 있어. 나는 잘 되는 사람이야. 나는 소중한 귀한 존재야. 지금까지 잘 해왔어.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잘 될 거야’하며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며 신뢰하는 자존감은 행복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성공 도구이다. 저자는 성공과 직결된 자존감 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현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피드백할 것과, 일을 사랑하고 고객을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의 브레이크를 원활하게 작동시킬 수 있도록 감정제어를 위한 긍정의 에너지와 마음의 여유를 키우고, 마음의 정원에서 불필요한 감정의 걸가지들과 잡초를 제거하고, ‘감사’와 ‘사랑’이라는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야 자존감 나무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역대연봉을 꿈꾸는 세일즈맨들과 행복한 성공을 이루고자하는 모든 이에게 올림픽메달리스트와 같은 열정과 사랑으로 세일즈의 링이 기회와 행복의 무대임을 기억하고, 자존감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원동력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 저자소개 / 임미희

은행에서 적금가임을 유지하는 세일즈 경험을 시작으로 자동차, 보험업계 등에서 20년간 영업직 실무 경력과 지점장, 교육파트장 등 관리자로 근무, 세일즈인을 위한 카탈리스트(Catalyst 성공을 가져다주는 촉매제 또는 변화의 기폭제)가 되어 ‘행복과 성공을 만드는 세일즈 전략’으로 국내는 물론 중국에서 강사로 활동, 현재 이너코칭 대표이며, 신뢰 리더십 센터에서 책임연구원을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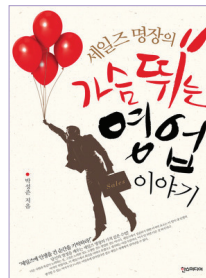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오늘 하루 동안 스스로 생각해보아도 대견한 일, 노력한 일, 사랑을 표현한 일들을 적어보자..... 자존감 일기를 쓴 노트는 에너지 북이 되는 것이다.....이렇게 써내려간 자존감 일기는 내안에 자존감을 깊게 뿌리내리게 하고, 작은 도토리가 참나무가 되듯 내 안에서 아름드리 나무가 되게 한다. (pp. 78-79)

###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존 맥스웰 | 2012



(세일즈 명장의)  
가슴 뛰는 영업 이야기  
박성준 | 2011



(나를 사랑하게 하는)  
자존감  
이무석 | 2009

📖 임미희 지음 📖 생각나눔 📖 2012

## 조선의 리더십을 탐하라

### 사서의 추천글

『스펙트럼 리더십』, 『조선 견문록』의 저자 이영관 교수의 『조선의 리더십을 탐하라』는 조선시대를 이끌었던 20여 명의 리더를 소개한 책이다. 이 책은 크게 위기관리·혁신·심학·여가의 네 부분의 목차로 나누어 각기 다른 상황에서 그 시대의 위인들의 위기관리능력, 자기계발 그리고 시대를 변화시킨 창조정신을 소개한다. 난세의 시대를 기회로 여긴 태조 이성계, 유배지에서 창조적인 서체를 개발한 추사 김정희, 덕치주의와 개혁의 군주였던 세종대왕 등 조선시대를 빛냈던 사상가들의 리더로서의 덕목과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사실을 인수합병, 인재개발, 자기혁신 등과 맞물려 알기 쉽게 설명한다.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과 같이 조선시대를 이끌었던 한국형 리더들의 모습에서 새로운 리더의 덕목이 무엇인지 배워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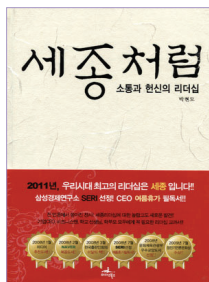
### 저자소개 / 이영관

한양대학교 관광학과와 동대학원에서 기업운리를 연구해 박사학위 수여, 2006년 코넬 대학교 호텔스쿨의 교환교수로 미국에 머물면서 21세기 글로벌경영의 트렌드를 심층적으로 연구했다. 현재는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한국형 리더십을 체계화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순천향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저서로 『스펙트럼 리더십』, 『조선 견문록』, 『한국의 아름다운 마을』 등이 있다.

### 책 속 한 문장

혁신이란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방식으로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조직이 추구하는 비전을 달성하는 것이기에 리더는 창조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p.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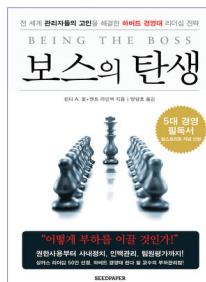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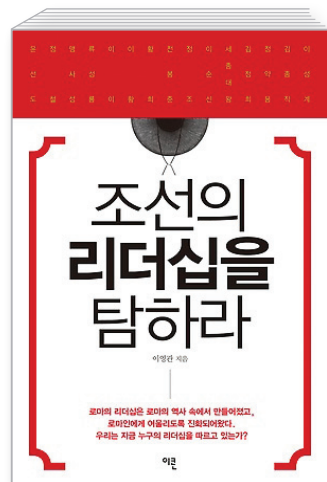
세종처럼  
박현모 | 2012



(존 맥스웰) 리더의 조건  
존 맥스웰 | 2012



보스의 탄생  
린다 A. 힐, 켄트 라인백 | 2012



이영관 지음 이콘출판 2012



## 집요한 상상

### 사서의 추천글

‘2011년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창의성 아이콘’의 1위는 토종 애니메이션캐릭터인 뽀로로가 꼽혔다. 아이들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뽀로로를 기획한 아이코닉스 대표 최종일은 애니메이션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10년간의 도전과 창조적인 일에 종사하면서 지쳐온 원칙과 상상력을 얻는 노하우를 설명한다. 미국, 일본의 하청 수준이었던 애니메이션시장의 위기의 시점에 새로운 캐릭터 발굴과 유아용 애니메이션 시장을 개척, 전 세계 120여 개 국에 ‘메이드 인 코리아’ 애니메이션을 수출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상상력의 개발, 그리고 크리에이티브로서의 기획력을 독자에게 알려준다. 문화가 국력인 시대에 세계시장에 통하는 문화 콘텐츠 개발이 화두인 지금, 자신의 일에 대해 창의적으로 바라보고, 창조적으로 바뀌고 싶은 이들에게 필요한 지침서이다.

### 저자소개 / 최종일, 김용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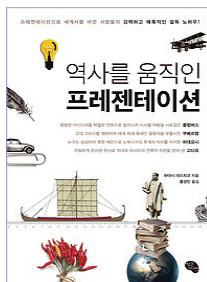
**최종일** - 아이코닉스 대표로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창작의 길을 개척한 끝에 대한민국 대표 캐릭터 ‘뽀로로’를 기획해 탄생시켜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는 ‘기획자 1세대’로 통한다.

**김용섭** - 트렌드 인사이트 및 비즈니스 창의성을 연구하는 날카로운 상상력연구소 소장이다. 삼성, LG, SK 등 주요 대기업과 정부기관 등에서 600여 회의 워크숍과 특강, 100여 건의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저서로 『청춘내공』, 『트렌드 히치하이킹』, 『페이퍼파워』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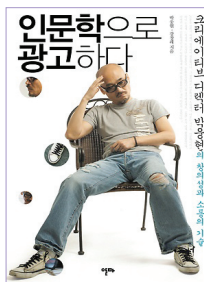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시야를 세계로 넓히고 미래를 멀리 두는 것은 나 혼자 힘으로는 어렵다. 그런 시야를 갖춰 성공한 거인들의 어깨위에 올라서는 수밖에, 가급적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그 안에서 흐름을 읽고 빈틈을 찾아내야 한다. (p. 150)

###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



역사를 움직인 프레젠테이션  
하야시 야스히코 | 2012



인문학으로 광고하다  
박웅현, 강창래 | 2009



기획의 神 스티브 잡스  
김정남 | 2011

- 최종일, 김용섭 지음
- 쌤앤파커스 2012

# 하버드의 세계를 움직이는 수업

032

## 사서의 추천글

이 책은 하버드 경영대학원 최고 경영자과정의 교수진 중에서 학생평가 1위, '최우수교수상'을 수상한 비에토 교수가 기업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역설한 수업 내용을 담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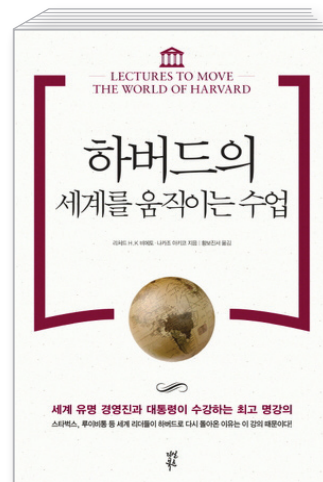
수업은 세계 각국의 움직임을 몇 개의 궤도로 나누어 가르친다. 첫 번째는 아시아의 고도 성장, 두 번째는 채무위기에 처한 회복중인 라틴아메리카, 세 번째는 아프리카의 르네상스, 네 번째는 이슬람 국가의 대두, 다섯 번째는 소련의 붕괴, 러시아와 동유럽의 포스트 소비에트의 재건, 여섯 번째는 유럽의 경제통합, 일곱 번째는 미국과 일본의 재정 적자와 막대한 채무, 마지막 여덟 번째 세계적 궤도는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이다.

한 나라의 경제를 논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역사,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에 대한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이 책을 통해 각국의 경제, 정치, 역사에 대한 지식과 미래에 대해 사고하는 시야를 키울 수 있을 것이다.

## 저자소개 / 리처드 H.K 비에토, 나카조 아키코

**리처드 H.K 비에토** -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로 아시아 이니셔티브 학과장을 맡고 있다. 6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최고경영자과정에서 경영자와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제 정치와 경제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나카조 아키코** - 하버드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일본인 여성으로는 세 번째로 졸업했다. 현재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재무연구과 비상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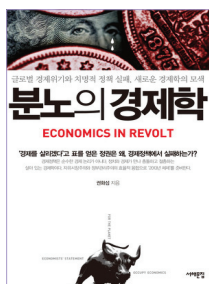


- 리처드 H.K 비에토, 나카조 아키코 지음
- 다산북스 2012

## 책 속 한 문장

명심하라. 여러분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라. (p. 320)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분노의 경제학  
권화섭 |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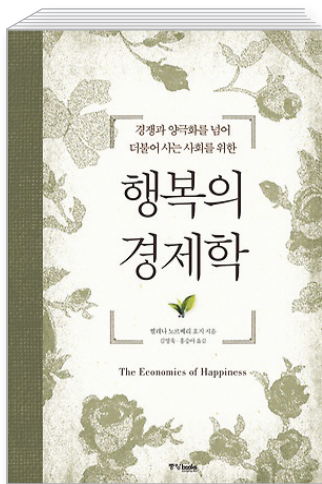
(삼성경제연구소 객수종 박사의)  
경제독법  
객수종 | 2009



(2020 세계경제의) 라이벌  
빌 에모트 | 2010



## 행복의 경제학



●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지음  
● 중앙북스 2012

### 사서의 추천글

글로벌 경제라는 미명 하에 모두에게 혜택을 줄 것 같았던 '세계화'가 오히려 우리를 얼마나 불행하고 불안하게 만들어왔는지, 또 이로 인해 다양한 문화가 어떻게 파괴되어지고 있는지, '세계화'를 둘러싼 불편한 진실들을 낱알이 파헤친 책이다. 1980년대 이후 전 세계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하여, '규제의 완화와 단일 세계시장'을 건설하는데 주력해왔다. 하지만 세계는 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다.

첫째, 거대한 권력을 가진 초국적 글로벌기업의 출현 둘째, 자원의 낭비, 과도한 에너지 사용 등에 따른 기후변화의 가속화 셋째, 기업들의 무한경쟁으로 고용의 불안정성이 확대 넷째, 분열과 폭력, 테러리즘의 증가 등 이다. 이는 다양한 문화와 인종을 글로벌 단일 문화로 강제 편입하는 과정에서의 발생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자는 공정하고, 다양한 지역과 문화에 맞는 '지역화'를 추구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핑크빛으로 치장된 '세계화'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그에 따른 문제해결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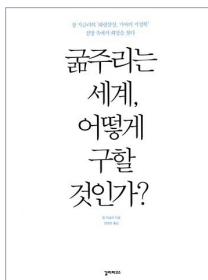
### 저자소개 /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사회비평가, 글로벌 경제가 세계의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는 대표적인 인물, 국제생태문화협회 설립자이자 대표이며, ISEC(국제생태문화협회)와 ISEC의 자매단체인 라다크 프로젝트(The Ladakh Project)의 책임자, '대안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스웨덴 바른생활재단 '바른생활상'(1986년)과 빌 클린턴이 받았던 '고이평화상'(2012)을 받았다. 그의 저서로는 『식량 경제를 집으로 가져오면서(Bringing the Food Economy Home)』(2002년)와 『오래된 미래-라다크로부터 배우다』 등이 있음.

### 책 속 한 문장

지역화란 근본적으로 관계에 관한 것이다. 사람과 자연계와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재구축하는 것이다. 이런 관계는 인간의 본질적 욕구 이므로 경제활동의 규모를 줄여야만 행복을 증대시킬 수 있다. (p. 49)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끓주리는 세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장 지글러 | 2012



오래된 미래  
헬레나노르베리 호지  
| 2007



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 | 2007

## (권오길의) 괴짜 생물 이야기

034

### 사서의 추천글

파리는 앞다리로 맛을 느낀다? 인종에 따라 주로 생기는 귀지의 종류가 다르다? 이 책은 《교수신문》에 ‘권오길의 세상읽기 사람읽기’란 제목으로 연재된 칼럼을 모은 글이다. 생물에 관한 내용을 일반적인 과학서처럼 딱딱하게 써 내려가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썼다. “사람이나 술이나 ‘발효’라는 농익음 끝에 맛있는 향기를 낸다.”(p. 260)와 같이 문학적 표현들로 가득한 이 책은 과학책은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준다.

참과 등나무 이 두 식물이 서로 얹히고 설킨 모습에서 ‘갈등’이란 단어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처럼 미처 알지 못했던 생물들에 관한 숨겨진 재미있는 이야기가 우리를 즐겁게 한다. 또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에서 인간까지 생물들의 다채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의 삶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해준다.

### 저자소개 / 권오길

쉽고 재미있는 과학을 알리는 데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과학문화상, 한국 간행물윤리상 저작상, 강원도문학상 학술상 등을 수상한 ‘달팽이 박사’다. 경상남도 산청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생물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이후 수도여중교, 경기 고교, 서울사대부고 교사를 역임했다. 현재 강원대학교 생물학과 명예교수이다. 저서로는 『꿈꾸는 달팽이』, 『인체 기행』, 『생물의 죽살이』 외 다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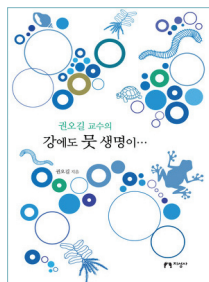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꽃감 빼먹듯이’ 한 살 두 살 내쳐 세월을 뿔아 먹다 보니 몇 안 남은 성살다. 아껴 먹을 것을 그랬다. 참 달고 맛있었는데... (p. 213)

###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



(우리 땅) 생물 콘서트  
한영식 | 2011



(권오길 교수의)  
강에도 못 생명이...  
권오길 | 2012



가장 오래 살아남은  
것들을 향한 탐험  
피오토르 나스크레츠키 | 2012



권오길 지음 | 을유문화사  
2012

### 덧글

신비하고 미스테리한 생물이야기 잘 읽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괴짜이지만, 환경에 최적화하기 위한 생존의 귀결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학이 발달한 지금이지만 심해에는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과학의 영역, 자연의 신비를 더듬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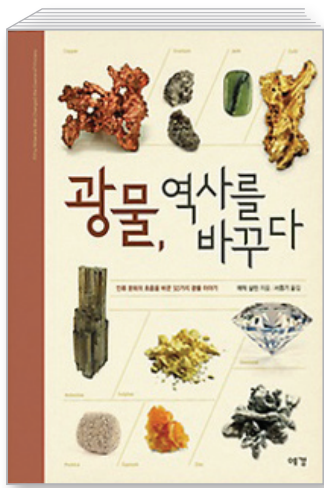
## 광물, 역사를 바꾸다

### 사서의 추천글

대부분의 광물에 관한 책은 일반인은 쉽게 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읽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책은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다이아몬드부터 아연까지 50가지 광물과 그 역사에 관한 이야기다.

자유의 여신상이 구리 조각상이다? 지금은 수많은 직업병 소송과 피해 소송의 대상인 석면이 과거에는 마법의 물질로 여겨졌다? 상아로 만드는 피아노 건반 때문에 코끼리의 생존이 위협 당했다? 이처럼 광물에 대한 과학적 분석보다는 흥미로운 광물의 역사를 담고 있다.

『광물, 역사를 바꾸다』에는 역사 속에서의 광물에 관한 이야기뿐 아니라 광물과 관련된 명언이나 인용문들이 함께 실려 있다. 이 책을 통해 광물이라는 분야에 흥미를 느끼고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에릭 살턴 지음 ● 예경 옮김 ●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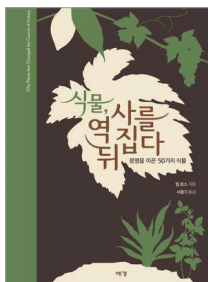
### 저자소개 / 에릭 살턴

영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이다. 『 역사를 바꾼 50가지 동물』, 『역사상 최악의 발명품들』을 비롯하여 다수의 역사와 철학 관련 책을 썼다. 현재 영국 런던의 사우스뱅크대학에서 사회학 박사과정 중이다.

### 책 속 한 문장

인간은 금의 변하지 않는 광채를 우리의 더럽혀진 마음을 밝힐 꿈과 희망처럼 여기며, 이 금속에 큰 가치를 부여해왔다. (p.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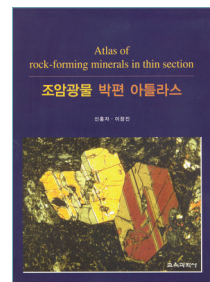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식물, 역사를 뒤집다  
빌 로스 | 2011



광물학 노트  
윤정환 | 2012



조암광물 박편 아틀라스  
신홍자, 이창진 | 2012

## 노벨상 수상자와 함께한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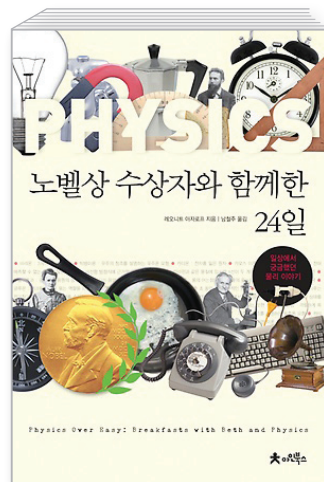
### 사서의 추천글

우리의 일상은 과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과학은 늘 우리에게 어려운 대화 주제 중 하나이다. 이 책은 물리학자이자 대학교수인 남편이 일상에서 궁금한 물리 이야기를 어렸을 때 물리학이 어렵게 느껴져 물리학 공부를 포기한 아내에게 설명하는 대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사시간을 활용하여 그날의 식사요리에 맞는 물리학 주제를 아내는 호기심을 갖고 물어보고, 남편은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들의 이야기를 곁들여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삶은 달걀에서 관성의 법칙을 찾고, 사과팬케이크 한 조각에서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떠올리며, 별집 모양의 바삭한 와플에서 흥미로운 원자의 세계를 발견하는, 남편과 아내의 즐거운 식사시간에 우리도 함께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

마냥 어렵다고 느껴지는 물리학을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어, 물리학에 대한 기초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 레오니트 아자로프 지음

● 아인북스 ●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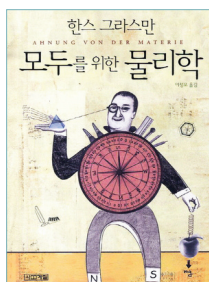
### 저자소개 / 레오니트 아자로프

어린 시절에는 아인슈타인과 같은 물리학자를 꿈꿨다. 대학에서 40년 이상 동안 물리학과 재료공학을 가르쳐왔다. 그는 『X선 결정학의 요소』, 『고체 개론』, 『X선 분광학』개론서 외에도 여러 권의 책과 다수의 논문을 집필했다.

### 책 속 한 문장

“딸기와 거품 크림을 얹기 전에 어떻게 와플이 표면이 큰 사각형으로 나누어지며, 그것이 다시 가장 규칙적인 방식의 더 작은 사각형으로 나누어지는지를 보세요.” 아내가 식탁에 김이 나는 와플을 놓으면서 말했다. (p. 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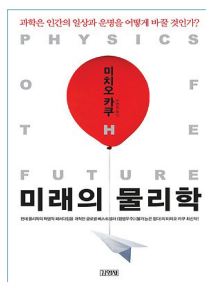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모두를 위한 물리학  
한스 그라스만 |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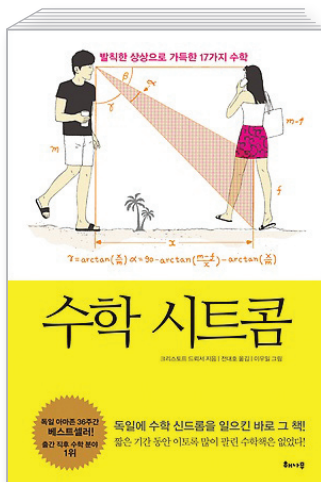


물리학 시트콤  
크리스토프 드뢰서 | 2012



미래의 물리학  
미치오 카쿠 | 2012

## 수학 시트콤



- 크리스토프 드뢰서 지음  
● 북하우스 퍼블리셔스 (북) 2012

### 사서의 추천글

수학이라고 하면 대부분 골치 아프고 웬지 꺼려지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또한 학교 다닐 때 배운 미적분이나 삼각함수는 학교만 졸업하면 쓸모없다고 말하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크리스토프 드뢰서의 『수학 시트콤』을 읽고 나면, 수학이 우리 생활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지 새삼 깨닫게 될 것이다.

독일의 유명한 과학 칼럼니스트인 크리스토프 드뢰서는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17가지 일들을 수학공식으로 풀어내며 수학의 개념과 원리를 좀 더 가깝게 설명해 주고 있다. 연인에게 청혼을 받은 마리아의 완벽한 반려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 이야기, 잘빠진 각선미를 보기 위해 삼각함수의 극댓값을 구하는 예스와 콜라 이야기 등은 수학이 이해하기 힘든 공식이 아닌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게 해준다. 이 책은 수학이란 나와 상관없고 어려운 것이라는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수학을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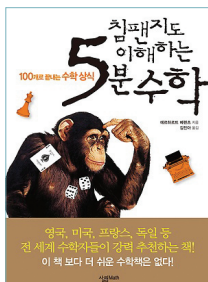
### 저자소개 / 크리스토프 드뢰서

독일의 주간지《디 차이트》의 과학 담당 편집자로, 1997년부터 일상적인 속설에 관한 과학 칼럼 〈맞아요〉를 연재했다. 이 칼럼은 책으로도 엮여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현재 독일의 공영방송사 NDR의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방송되고 있다. 드뢰서는 일상 속 수학을 다룬 『수학 시트콤』으로 독일에서 수학 신드롬을 일으켰으며, 2008년에 독일수학협회로부터 언론인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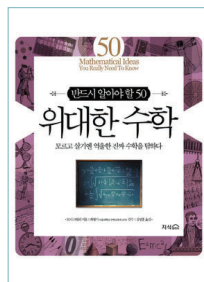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많은 도박꾼은 큰 수의 법칙을 오해한다. 수학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법칙으로부터 다음의 결론을 끌어낸다. 한동안 빨간색이 더 자주 나왔다면, 이제부터는 검은색이 더 자주 나와야 한다. 이것은 치명적인 오류다! 왜냐하면 룰렛기구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p.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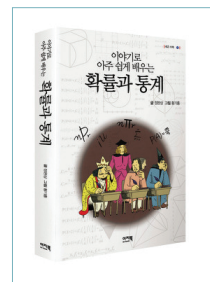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



(침팬지도 이해하는)  
5분 수학  
에르하르트 베렌츠 | 2012



위대한 수학  
토니 크릴리 | 2011



(이야기로 아주 쉽게 배우는)  
확률과 통계  
정완상 |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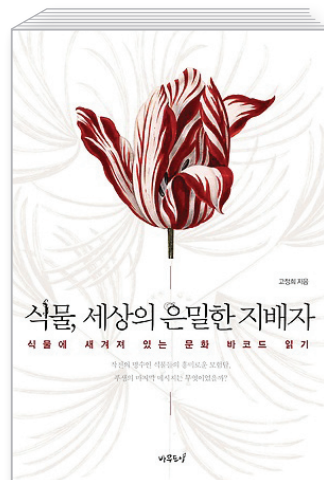
# 식물, 세상의 은밀한 지배자

038

## 사서의 추천글

오랜 시간 동안, 식물은 꽃, 나무, 곡물, 채소, 과일 등 다양한 이름으로 사람의 곁을 지키며 인류의 삶과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이 책은 조물주의 봄 컬렉션 톨립에서, 감자나 토마토, 후추, 커피 등의 식품,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나무 주목까지 다양한 식물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다.

토마토가 의리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무엇일까? 해리포터의 마법봉은 어떤 나무로 만들어졌을까? 조경디자이너인 저자는 식물도감에서처럼 식물학적 관점에서 식물의 모양이나 쓰임새 혹은 약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식물들의 역사, 신화와 전설, 상징 등 식물의 숨겨진 자취를 쫓는다. 식물들이 들려주는 신비로운 속삭임을 독자와 공유하고 싶다는 저자의 이야기에 귀기울여보자.



## 저자소개 / 고정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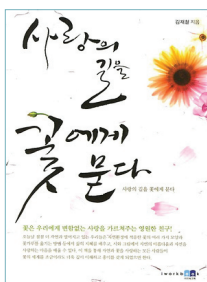
1981년 독일 유학길에 올라 베를린 공과대학 조경학과에서 Water-City 개념이론으로 석사 학위, 20세기 유럽조경사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베를린 자유도시개발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10년간 도시설계 및 조경 디자이너로 근무하다 독립하여 녹색 엔지니어링 사무소를 창립했으며, 2004년 귀국 후에는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현재는 다시 독일에 머물며 오랜 소원이었던 집필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고정희 지음 나무도시 2012

## 책 속 한 문장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이 약 백만 년 전부터라니까 식물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백만 년 간 사람을 먹이고, 입혔다는 뜻이 된다. (p. 2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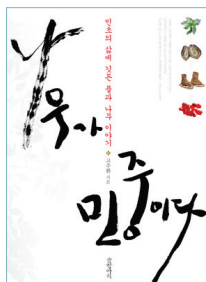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사랑의 길을 꽃에게 묻다  
김재철 | 2012



식물, 역사를 뒤집다  
빌 로스 | 2011



나무가 민중이다  
고주환 | 2011

## 우주 다큐



메리 로치 지음 / 세계사 / 2012

## 사서의 추천글

1961년 4월, 유리 가가린이 지구 주위 궤도를 돈 최초의 우주인이 되었다. 1969년 7월, 아폴로 11호가 최초로 달에 발을 디뎠다. 2008년 4월, 한국인 이소연씨가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이 되어 국제우주정거장에 머물며 18가지 우주과학 실험 후 지구로 귀환하였다.

우주여행은 오랜 지구인의 꿈이다. 공상과학이나 SF영화에서 우주선을 타는 건 비행기를 타는 것처럼 쉬워 보이지만, 지구의 우주탐사 뒤에는 엄청난 연구와 준비과정이 숨어 있다.

이 책은 우리가 방송과 기사로만 접했던 우주여행의 뒤에 숨겨진 도전과 노력, 그리고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 우주 비행사 선발 기준, 우주선에서의 고립과 감금, 우주멀미, 무중력 경험, 우주에서의 유명, 우주에서의 먹거리 등 우주와 관련된 16가지 주제의 이야기들을 저자는 사소한 것까지 꼼꼼히 취재해서 우리에게 흥미진진하게 들려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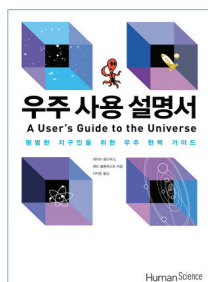
## 저자소개 / 메리 로치

『인체재활용 : 당신이 몰랐던 사체 실험 리포트』, 『스푸크 : 과학으로 풀어보는 영혼』, 『몽크 : 성과 과학의 의미심장한 짝짓기』의 저자. 저널리스트로서 《아웃사이드》, 《와이어드》, 《내셔널 지오그래픽 매거진》 등 수많은 간행물에 기고해왔다.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녀는 자신의 공간에서 멀리 떨어진 세계 곳곳, 미지의 장소를 뒤졌 다. 그녀의 관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틈새에 항상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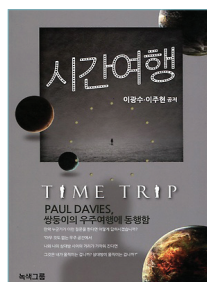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제미니 4호의 우주비행사 에드워드 화이트는 NASA 최초의 우주 유영이 시작된 지 4분쯤 지나자 갑자기 '마치 백만장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떠들었다. (p.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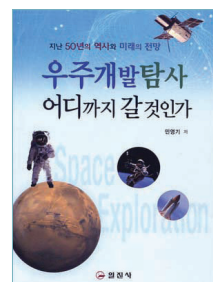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우주 사용 설명서  
데이브 골드버그,  
제프 블롬퀴스트 | 2012



시간여행  
이광수, 이주현 | 2012



우주개발탐사  
어디까지 갈 것인가  
민영기 | 2012



## 진정일 교수, 詩에게 과학을 묻다

040

### 사서의 추천글

시는 감성을 깨우고, 과학은 이성을 자극한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주제, 시와 과학이 만난 이 책은 시 속에 들어 있는 과학술어를 과학적으로 설명해주며, 우리를 시와 과학의 세계로 초대한다.

저자는 오상순 시인의 '일진'에서 원자를 발견하며 우주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고, 김소월 시인의 '초혼'과 박인환 시인의 '이국향구'라는 시에서 사랑이란 시어를 찾아 사랑의 화합물과 같은 과학이야기를 풀어놓는다. 또한 정지용 시인의 '별'과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서는 별의 세계를 이야기하며 자연의 신비를 논하기도 한다.

저자는 시 속에서 과학을 캐려는 시도가 독자들의 상상력과 독창력을 자극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 책을 통해 다양한 시를 접하며 과학적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아도 좋을 것이다.



### 저자소개 / 진정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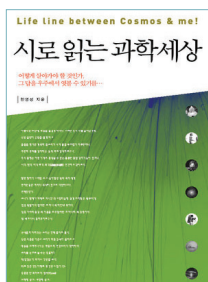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화학과 학사 및 석사 과정을 마치고 미국 뉴욕시립대학교에서 고분자화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40여 년간 고려대학교 화학과에서 후학들을 가르쳐왔으며, 동대학원 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액정 고분자의 세계적 개척자로 전도성 고분자, 전계발광 고분자 및 DNA의 재료과학 등의 연구에서 420여 편의 논문을 세계적 학술지에 발표하였고, 노벨상 추천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학문적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 진정일 지음 ● 공리출판 ● 2012

### 책 속 한 문장

송상욱 시인의 〈사진 속 마그마〉 중 “영혼이 증발한 순간의”라는 표현도 재미난 질문을 던진다. 이 시에는 ‘표백’, ‘감광막’, ‘가역 반응’, ‘형상 재생 액체 금속’ 등 여러 과학 술어를 시어로 사용해 내 관심을 끌었다. (p. 21)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시로 읽는 과학 세상  
한영성 | 2011



뇌를 훔친 소설가  
석영중 | 2011



미술, 과학을 탐하다  
박우찬 | 2011

## (고규홍의) 한국의 나무특강



고규홍 지음 휴머니스트 2012

### 댓글

디브러리 추천으로 읽게 된 책인데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밌었어요! 강의식 어법으로 쓰여져 저자가 독자에게 조곤 조곤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 느낌이에요. 주제도 우리들 바로 곁에 있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라 더더욱 그 내용에 깊이 빠져들어 읽을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책을 읽은 후 도심 속의 가로수마다 생동감 있게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꽤 분량이 있는 책이지만 추천드리고 싶네요!

### 사서의 추천글

나무는 늘 우리의 주변에 있다. 시골 집 앞마당엔 감나무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소나무가, 도시의 거리에는 은행나무가 우리의 곁에서 무심한 현대인에게 자연의 변화를 알려주곤 한다.

흔치 않은 나무 칼럼리스트인 저자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나무이야기를 들려주려 노력한다. 저자를 따라서 나무가 서 있는 마을을 찾아가고, 그 마을 어른들에게 나무 이야기를 듣다보면 나무들은 어느새 처음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빌딩 숲에서 숨 가쁘게 살아가는 나무, 천문학적 비용을 투자해 죽음에서 건져낸 나무, 교수대가 되었던 참혹한 아픔이 있는 나무, 인간의 이기심과 개발의 험난함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나무 등 나무들이 들려주는 저마다의 사연을 들어보자.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온 나무 이야기가 삶에 지친 현대인에게 위안과 희망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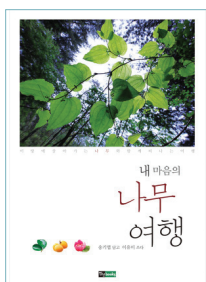
### 저자소개 / 고규홍

나무 앞에만 서면 가슴 설레는 나무 인문학자. 그는 틈만 나면 오래된 자동차를 끌고 팔도를 누비며 나무를 찾아다닌다. 감나무 같은 존재가 되고 싶고 나무처럼 늙고 싶다는 저자는 오랜 기자 생활을 접고 십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나무를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나무 칼럼을 쓰고, 방송과 강연 등을 통해 우리가 미처 몰랐던 나무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전해준다. 현재 한림대와 인하대 겸임교수로 있다.

### 책 속 한 문장

암자의 스님께서는 제게 '나무에 가치가 많은 이유를 아느냐?'고 물으시더군요. 제가 머뭇거리자 스님은 '나뭇가지의 숫자는 나무가 더불어 살아가는 다른 생명체와 소통하기 위한 욕망의 크기'라고 하셨습니다. (p. 33)

###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



내 마음의 나무 여행  
송기엽, 이유미 | 2012



숲에는 갈등이 없다  
이우상 | 2012



사랑하면 보이는 나무  
허예섭, 허두영 | 2012

# 가르친다는 것

042

## 사서의 추천글

교사이자 교육 개혁 운동가인 윌리엄 에어스는 40년간 교육현장에서 몸담으며 느꼈던 가르치는 일에 대한 성찰과 현장의 경험을 담았다.

이 책은 학생 보기에서 시작해서, 교실 만들기, 다리 놓기, 그리고 교육과정과 평가까지 가르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여준다. 저자는 교실 안에서 실제 벌어지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교사가 학생을 깊게 들여다보고 메모하며, 그 기록들을 가지고 동료 교사들과 토론을 통해 학생들을 교육시킨다. 또한 교실에서의 수업이외에도 사회와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기울인다. 일반적 표준 시험을 통한 평가의 단점을 설명하며 다양한 프로젝트로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법을 제안하고 있다. 경쟁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가르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저자의 깊이 있는 고민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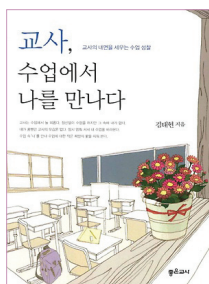
## 저자소개 / 윌리엄 에어스

교사이자 교육 개혁 운동가이다. 1944년 출생으로 1965년 미국의 민권운동에서 비롯한 자유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 1984년 밴크 스트리트 대학에서 유아 교육으로 석사 학위를, 1987년 콜롬비아 대학에서 교육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2년부터 시카고의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교육학 교수로 일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좋은 유치원 교사』, 『다정하고 공정한 부모』, 『자유를 향한 교육』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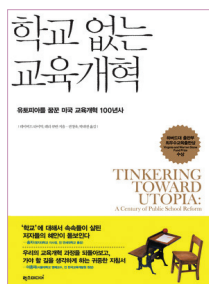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교사가 자신 있고 현명하다면 학생들의 자원을 이끌어내어 잠재된 힘을 실현시킬 수 있다. (p. 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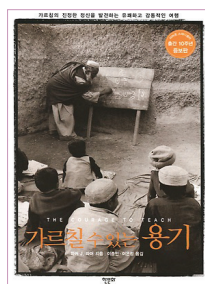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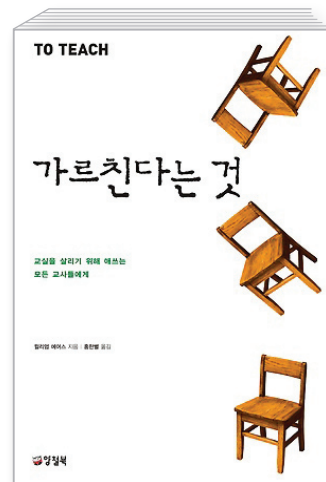
교사, 수업에서 나를 만나다  
김태현 | 2012



학교 없는 교육개혁  
데이비드 타이악, 래리 큐반  
| 2011



가르칠 수 있는 용기  
파커 J. 파머 |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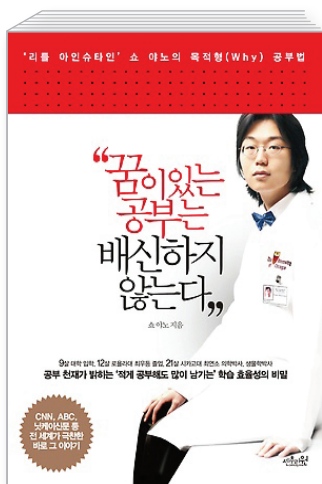
윌리엄 에어스 지음 양철북출판사  
2012

## 꿈이 있는 공부는 배신하지 않는다

### 사서의 추천글

이 책은 9살에 대학 입학, 21살에 시카고대학 의과대학원에서 최연소 의학박사와 생물학 박사(M.D/Ph.D) 학위를 취득하고 의학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고 있는 저자가 효율적인 공부법을 찾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찾아낸 방법들을 정리한 결과물이다. 공부법의 시작은 “나”에서 시작된다고 하며, “왜 공부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내 꿈을 위해서라고 답할 수 있을 정도로 나에 대해 생각하고 공부를 시작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공부는 하는 것보다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저자는 ‘뇌를 깨우는 학습 효율성 3원칙’, ‘최고의 결과를 내는 몸·마음·꿈 관리법’, ‘공부가 쉬워지는 비법노트’를 일화를 통해 전해주고 있다.

누구보다 노력하고 더 오래 공부에 집중한 저자가 찾아낸 공부법도 좋지만 어린 나이부터 자기 삶의 주인으로 적극적으로 살아 온 저자의 이야기도 매력적이다. 목적 없이 엉뚱이로만 공부하며 힘들어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캘러던트”로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공부의 방법을 찾고 있는 모든 이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쇼 아노 지음 ● 센추리원 © 2012

### 저자소개 / 쇼 아노

한국인 어머니와 일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아홉 살 때 미국 역사상 최연소로 로올라대학에 입학하여 전 세계 언론으로부터 ‘캠퍼스의 리틀 아인슈타인’으로 불리며 주목을 받았다. 로올라대학 입학 3년 만에 조기졸업을 하고 열두 살이 되는 해에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시카고대학 의과 대학원 메디컬사이언티스트 프로그램(M.D/Ph.D)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현재 미국 시카고대학 부속병원에서 소아신경과 수련의 과정을 밟고 있다.

### 책 속 한 문장

공부는 내게 의미 있는 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p.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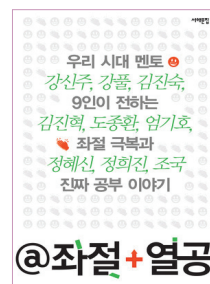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운명을 바꾸는)  
공병호의 공부법  
공병호 | 2012



40대, 다시 한 번  
공부에 미쳐라  
김병완 |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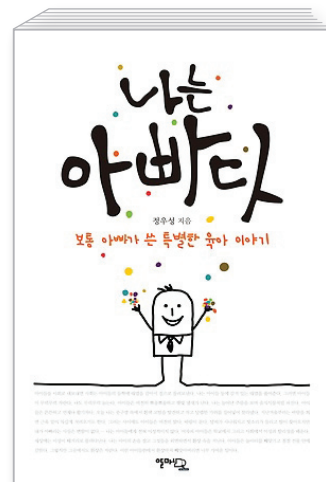
@좌절+열공  
강신주 외 8인 | 2011

# 나는 아빠다

## 사서의 추천글

이 책은 평범한 보통 아빠가 쓴 육아이야기이다. 작가는 육아를 전공한 전문가가 아니지만 육아에 대한 자신만의 특별한 철학이 있다. 극심한 경쟁 속에서 쫓기듯 살아가는 아이들을 다독여줄 위로와 안식을 주는 것, 경쟁이라는 태업을 등에 감고 집으로 돌아오는 아이들의 태업을 풀어주는 것, 아이들이 환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쓴 육아 전문서는 아니지만 이 책을 읽다보면 고개가 끄덕여질 때가 많다. 작가는 조금 더 빨리 남보다 앞서가야만 하는 우리 사회 시스템 속에서 상처받는 아이들을 두 팔로 안아주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있으며, 육아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닌 앞선 모든 인류가 해 온 자연스런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우성 지음 알마 2013

## 저자소개 / 정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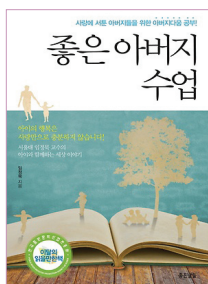
2002년부터 변리사로 일하고 있고 지금은 광화문 근처에서 특허사무소를 경영한다. 인터넷신문 《판지일보》에 “나는 아빠다”를 연재했으며, 특허에 관한 칼럼도 쓰곤 한다.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로 2012년 KAIST 과학저널리즘상(인터넷 부문)을 받았다. 지은 책으로는 『특허전쟁』, 『세상을 뒤흔든 특허전쟁 승자는 누구인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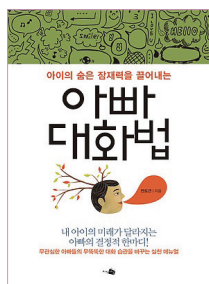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독서가 지닌 진정한 의미는 환상을 옹호하고 쓰다듬는데 있다. (p.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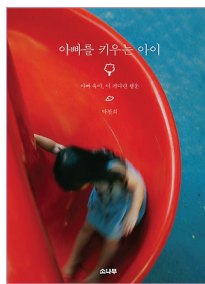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좋은 아버지 수업  
임정목 | 2012



아빠 대화법  
전도근 | 2012



아빠를 키우는 아이  
박찬희 | 2013



## 나는 원래 행복하다



스티븐 S. 일라디 지음 말글빛남  
2012

### 사서의 추천글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리는 우울증이 늘고 있는 요즘 치유의 방법을 담은 책이 나와 주목을 끈다. 바로 캔자스대학교 임상심리학과 교수인 스티븐 S. 일라디의 『나는 원래 행복하다』. 책은 크게 3부로 나뉜다. 1부는 우울증의 정의, 원인, 치료법을 알아보는 ‘우울증 바로 알기’다. 2부에서는 저자가 제시하는 우울증 치료법인 ‘생활개선요법 Therapeutic Lifestyle Change(TLC)의 여섯 단계’를 각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3부는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알아보는 장이다.

『나는 원래 행복하다』는 약물치료 없이 일상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생활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우울증을 치유하는 법을 안내한다. 또한 우울증에 대한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지 현재의 삶을 되돌아보게도 만든다. 이 책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진정한 힐링을 얻게 되길 바란다.

### 저자소개 / 스티븐 S. 일라디

듀크대학교에서 임상심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현재 캔자스대학교 임상심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와 그의 임상 연구팀은 수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약 없이 이 과격적인 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생활개선요법(TLC)이라는 효과적인 우울증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또한 그는 정신질환에 관한 논설 및 논문을 40편 이상 발표했으며 저서로는 『Handbook of Research Methods in Clinical Psychology(공저)』가 있다.

### 책 속 한 문장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양성한 신체 활동과 사회적 교류, 건강한 수면, 균형 잡힌 영양, 자연 일광, 그리고 몰두할 수 있는 활동으로 가득 찬 생활에 맞게 만들어져 있다. (pp. 281-282)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마음을 망치는 음식  
마음을 살리는 음식  
미조구치 도루 | 2011



우울증 심리학  
가모시타 이치로 | 2011



사회적 우울증  
사이토 다마키 | 2012



## 도시락의 시간

046

### 사서의 추천글

도시락에는 정이 담겨 있다. 급식이 보편화된 세상이지만, 도시락에 대한 추억 하나는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도시락 뚜껑을 열며, 두근두근 '오늘의 도시락 메뉴는 뭐지?' 하고 기대하던 소박한 일상의 행복!

이 책은 일본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도시락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이다. 일본 전국을 돌며 도시락의 주인공들을 찾고, 사진사인 남편은 도시락의 주인공과 도시락을 찍고, 아내는 도시락에 대한 소박한 사연을 글로 옮겼다.

도시락을 앞에 두고 부끄럽다며 멋쩍은 웃음과 함께 뚜껑을 여는 주인공들은 우리의 이웃마냥 정겹다. 도시락 메뉴에서 시작하여 도시락의 사연, 그리고 도시락에 관한 추억을 더듬는 이 책을 읽으며 우리는 일상 속에 숨어 있는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저자소개 / 아베 나옴이

아베 나옴이 - 도쿄대학 외국어학부 졸업 후 정보 서비스 회사에 취직하여 4년 동안의 회사원 생활을 했다. 이후 잡지 편집부를 거쳐 현재는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 중이다. 계간 신문인 《리틀 헤븐》에서 일본 전국을 돌며 사람들의 생활과 지역의 매력을 전하고 있다.

### 책 속 한 문장

그냥 내 마음을 알아줄까 싶어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계란말이를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서 딸 도시락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집에 돌아온 딸아이가 “엄마! 도시락에 행복 모양이 들어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p.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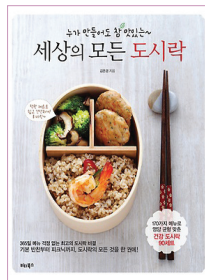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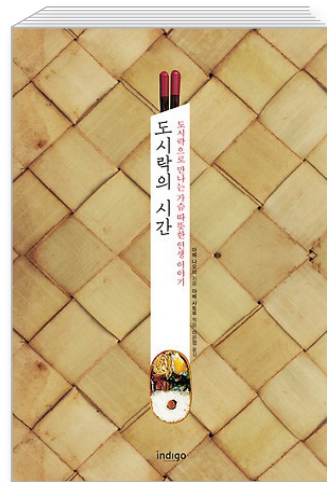
도시락  
조은재 | 2011



도시락이 좋아  
김수연 | 2012



세상의 모든 도시락  
김은경 | 2012



아베 나옴이 지음 인디고 2012

047

## 아파트 테라피



- 맥스웰 길링험 라이언 지음
- 사이 ⓒ 2012

### 댓글

우연한 기회에 이 책을 먼저 접했었는데, 사서추천도서로 추천되어 반가운 마음이 들어요. 아파트 테라피스트가 도대체 뭘까? 읽다보니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좋은 팁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으로부터 생기는 생활습관과 만족감, 행복함들이 있다는 걸 느끼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집도 치유를 좀해보려고 합니다.

### 사서의 추천글

힐링에 관한 열풍이 부는 요즘 아파트 힐링에 관한 책이 나왔다. 저자는 '아파트 테라피스트'라는 생소한 직업의 창시자로 이 책은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그 속에 사는 사람의 삶의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책이다. 1부에서는 아파트를 통해 느끼는 불만족과 스트레스의 원인을 알려주고, 2부에서는 그 해결책을 8단계 치유법을 통해 제시한다. 매 단계 해야 할 지침들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테라피에 관심 있는 이들은 책속 저자의 안내를 따라 8단계를 단계별로 밟아 나가면 된다.

『아파트 테라피』의 특징은 일반적인 홈 인테리어 책들과 달리 각자의 성향을 파악하여 자신에 맞는 홈인테리어 방법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저자는 아파트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여기고 아파트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 삶을 치유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 책을 통해 아파트를 자신이 살고 싶은 건강한 장소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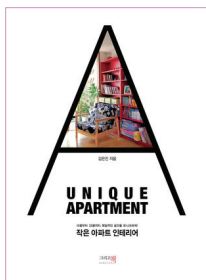
### 저자소개 / 맥스웰 길링험 라이언

뉴욕에서 시작된 아파트 테라피의 창시자로, 현재 아파트 테라피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컬럼비아 대학교 안티오크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뉴욕의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에서, 또 초등학교에서 7년 동안 교사로 일했다. 이후 아파트 치유 과정을 소개하는 [www.apartmenttherapy.com](http://www.apartmenttherapy.com) 사이트를 열었다. 이 사이트는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소개되는 등 전 세계인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다.

### 책 속 한 문장

집을 제대로 정리하면 인생의 다른 부분들도 제대로 풀리기 시작하는 법이다. (p. 11)

###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



작은 아파트 인테리어  
김은진 | 2011



버림의 행복론  
야마시타 히데코 | 2011



내가 생각하는 집  
권은순 | 2012

## 엄마라서 다행이다

### 사서의 추천글

엄마가 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 살던 삶에서, 자식을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에 인생의 큰 변화이고 전환점이다. 이 세상에 없던 존재의 탄생은 신비롭고 설레는 기쁨의 순간이지만 한편으로는 부모가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두려움이 앞서기도 한다.

이 책은 39가지의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엄마들의 임신과 출산, 육아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세상에 단 하나 뿐인 아기의 탄생과 성장과정의 매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행복한 시간인지 깨닫게 해 준다. 또한 따뜻하고 포근하게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그린 고흐, 르누아르, 클림트 등 여러 유명 화가의 작품들과 책 속 한 줄 명언은 마음 속 작은 울림으로 다가와 커다란 위로를 준다.

### 저자소개 / 책 캔필드, 마크 빅터 한센

**책 캔필드** - 미국 전역을 대표하는 카운슬러인 동시에 저술가이며, 인간의 잠재력과 효율성 개발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전문가이다. 저서에는 『영혼을 위한 치킨 수프』 시리즈, 『직장에서의 마음가짐』, 『집중의 힘』 등이 있다.

**마크 빅터 한센** - 박애주의자이자 독실한 크리스천인 그는 나누는 삶과 사회 공헌에 대한 공로로 많은 상을 수상했으며 여러 자선단체들을 돕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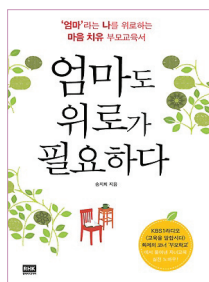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너를 갖기 전에도 너를 원했단다. 네가 태어나기 전에도 너를 사랑했어. 네가 태어나기 한 시간 전에도 너를 위해 죽을 수 있었단다. 이젠 엄마의 사랑, 사랑의 기적이야. - 모린 호킨스 (p.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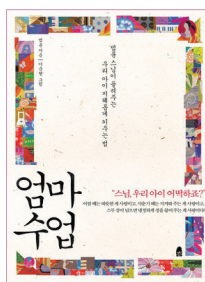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하루 3시간) 엄마 냄새  
이현수 | 2013



엄마도 위로가 필요하다  
송지희 | 2012



엄마 수업  
법륜 | 2011



책 캔필드 외 지음 / 아침나무  
2013

### 덧글

지금 한 아이의 엄마이고 아빠로서 너무나 공감하는 책입니다. 엄마, 아빠가 되면서 부모로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되니 내인생에 있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희생이 따르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 오래된 미래, 전통육아의 비밀

### 사서의 추천글

생활은 더 편리해 지고 이전 시대 엄마들보다 더 많이 배웠음에도 이 시대 엄마들에게 왜 아이 키우기는 더 힘들어진 것일까? 수많은 육아 정보의 홍수 속에서 힘들어하는 부모들에게 전통육아에서 방법을 찾으라고 말하는 이 책은 2012년 1월 초 방영된 EBS 다큐프라임 <오래된 미래, 전통육아의 비밀>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울 때마다 안아주면 폐장이 된다? 많이 업어주면 아이 다리가 된다? 엄마들이 고민하고 있는 육아지식과 우리나라 전통육아법의 장점을 실험과 학자들의 의견을 통해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재조명한다. 서양의 애착육아운동과 미국에서의 '포대기' 인기 현상뿐만 아니라 아이의 뇌 발달을 활성화 시키는 곤지곤지, 도리도리 등 우리의 전래놀이 단동심훈도 소개한다. 이 책을 통해 이성과 지식보다는 내가 가진 육아본능을 믿고 전통육아 DNA를 따라 엄마로서의 자존감을 되찾길 바란다.

### 저자소개 / 김광호, 조미진

**김광호** - 프로듀서. 1995년 EBS에 입사했다. <60분 부모>, EBS 다큐프라임 <아이의 밥상> 등의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2011년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으며, 2012년 <오래된 미래, 전통육아의 비밀>로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수상했다.

**조미진** - 방송작가. EBS 다큐프라임 <오래된 미래, 전통육아의 비밀>, KBS 글로벌대기획 <슈퍼피쉬> 5부작, KBS 스페셜 외 다수 시사·교양 다큐멘터리의 글·구성 작업을 해왔다.

### 책 속 한 문장

서양 아이들은 요람에 누워서 아무것도 없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엄마의 등에 업혀 세상을 보고 듣는다. (p.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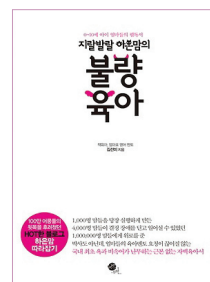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한국의 전통육아  
최혜순, 양은호 | 2010



60분 부모. 행복한 육아 편  
EBS <60분 부모> 제작팀  
| 2012



지랄발랄 하은맘의 불량육아  
김선미 | 2012

● 김광호, 조미진 지음 ● 라이온북스  
● 2012

# 음식 여행 끝에서 자유를 얻다

050

## 사서의 추천글

이 책은 저자의 음식에 대한 추억과 함께 그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탐구하고 알아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간단한 요리 레시피까지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치즈, 올리브, 초콜릿, 소시지 등을 먹을 때 오히려 그녀가 강박적이고 외로운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되며, 이 음식들을 끊기 위해 오히려 그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는 여정을 책에 담았다.

저자는 음식여행을 통해 어린시절 자신에 대한 연민, 식재료가 만들어지는데 드는 노력에 대한 감사와 음식에 대한 변화된 생각을 하게 된다. 또한 다른 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경험을 통해 삶의 풍요로움 뿐만 아니라 음식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 이 책을 통해 저자처럼 음식과 나의 관계를 탐구해 보는 여행에 동참해 보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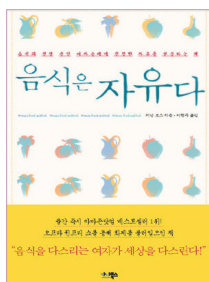
## 저자소개 / 데이나 메이시

드류 대학교를 졸업하고, 브라운 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을 전공했다.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은 글쓰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작가의 길에 닿고자 출판사에서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여러 미디어회사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요가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했다. 결국 2001년 《요가 저널》에까지 몸담게 되어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 또한 여러 출판물과 간행물에 기고가로 활동하며, 저널의 편집자로서 낯을 보내고 작가로서 밤을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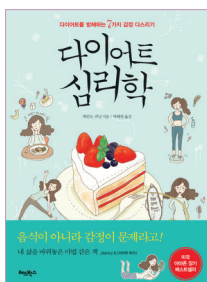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소비를 하겠다는 모든 결정은 내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관심을 투입하겠다는 선택이다. 어쩌면 더 많이 갖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줄이는 것이야말로 더 행복해지는 비결 중 하나일지도 모르겠다. (p. 291)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음식은 자유다  
지닌 로스 | 2010



다이어트 심리학  
캐런 R. 퀴닝 | 2011



식욕 버리기 연습  
마리아 산체스 | 2012



데이나 메이시 지음 북돋움  
2012



## 좋은 아버지 수업

### 사서의 추천글

가정이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역할과 리더십이 과거에 비해 다양해지고 변화되고 있다. 이처럼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는 요즘 신세대 아버지의 이상형을 보여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저자가 바라는 아버지의 모습을 글로 모은 것이다. 저자는 책 속에서 세상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에 맞게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하자고 한다. 또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일을 찾게 해주는 것이 좋은 부모의 역할이며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믿음을 가질 것을 끊임없이 강조한다.

부모들이 읽는 자녀교육 지침서이면서 동시에 아이들에게는 세상살이 법을 알려주는 길잡이 역할도 한다. 자칫 딱딱해 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저자의 경험과 사례를 적절히 소개하여 글의 이해를 돕는다. 『좋은 아버지 수업』을 통해 과거와는 달라진 새로운 모습의 아버지다움을 배워보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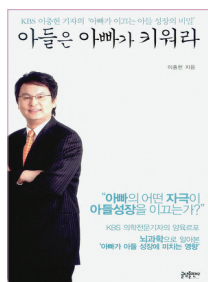
### 저자소개 / 임정목

서울대학교 바이오모듈레이션 전공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발생공학과 줄기세포를 전공했다. BK21 농생명공학 사업단장과 학부장을 거쳐 현재 생명공학공동연구원의 SNU 바이오허브 센터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내 품안의 줄기세포』, 『생명 공학으로의 초대』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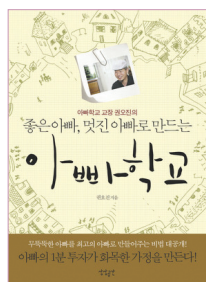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아이를 '가슴으로' 키운다는 말은 아이를 공기처럼 가슴에 넣고 내 보내듯이 자연스럽게 키운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p. 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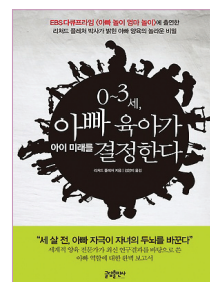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



아들은 아빠가 키워라  
이충현 | 2010



좋은 아빠, 멋진 아빠로  
만드는 아빠학교  
권오진 | 2011



0~3세, 아빠 육아가 아이  
미래를 결정한다  
리처드 플레처 | 2012

📖 임정목 지음 📖 좋은날들 📅 2012



## 그리메 그린다

## 사서의 추천글

인문경영연구소장인 저자 전경일이 김홍도, 장승업, 김명국, 신윤복 등 회화사에 큰 족적을 남긴 화가들의 삶을 볼 수 있는 책, 『그리메 그린다』를 내놓았다.

1부에서는 조선 회화사에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운 3명의 위대한 화가를 이야기한다. 2부는 삶에 드리운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열하게 살다간 천재들을 조명하였다. 3부는 가혹한 운명으로 불운한 인생을 살았던 이들의 삶을 그렸다. 4부는 자기식대로 그림자에 맞서 뚜렷한 삶의 족적을 남긴 이들의 외침을 그렸다.

저자의 시각을 따라 그림을 보면 그림 속 이야기가 친근하게 다가오고, 어느 순간 김홍도가 마지막 그림 〈추성부도〉를 그릴 때의 그 시선과 일치되고 장승업이 〈호취도〉를 그리는 모습을 직접 지켜보는 것과 같은 착각을 하게도 한다. 게다가 다양한 옛 자료를 통해 이야기를 신빙성있게 엮어 놓아 우리의 상상속 화가를 더욱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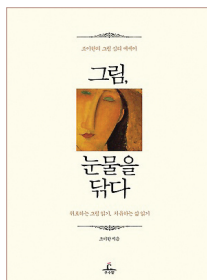
## 저자소개 / 전경일

1964년 강원 출생, 작가, 인문경영연구소 소장으로 있다. 인문과 경영을 통섭하는 저술 활동을 하는 창조 지식인이자 경영인이다. 현대판 징비록인 『남애공정』과 편역서 『경성전도』, 역사경영서 『창조의 CEO 세종』, 『이순신, 경제전쟁에 승리하라』, 『더 씨드』와 에세이 『마흔으로 산다는 것』, 『남자, 마흔 이후』, 『나에게 묻는다』등 역사경영, 자기계발을 비롯해 인문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지적 생산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책 속 한 문장

인생은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곧 사라질 이슬에 불과하오.  
보시오, 내 그림만이 이렇게 남아 있지 않소. (p.227)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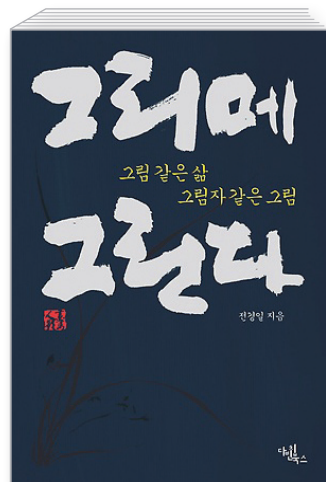
그림, 눈물을 닦다  
조이한 | 2012



옛 그림 속 여백을 걷다  
김정숙 |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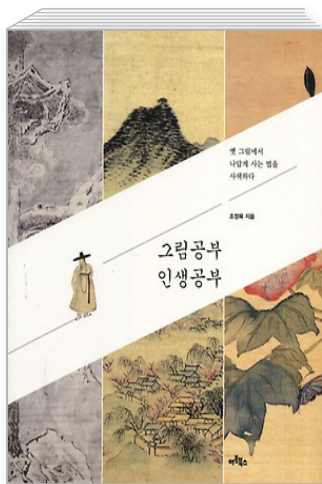
나는 누구인가  
전준엽 | 2011



전경일 지음 다빈치북스 2012

053

## 그림공부 인생공부



조정욱 지음 아트북스 2012

## 사서의 추천글

옛 그림은 여러 화가가 쓴 『사기』다라는 화두로 시작하는 이 책, 『그림공부 인생공부』는 한·중·일 삼국의 옛 그림의 화폭에서 저자의 인생철학을 담은 미술에세이이다. 『사기』가 단순한 중국역사서가 아니듯 저자는 옛 그림의 이야기 속에 담겨진 철학적 의미와 변하지 않는 삶의 교훈을 이야기 한다.

이 책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사계절의 관점에서 30여 편의 그림이야기를 한다. 봄 편을 시작으로 계절을 돌아 다시 봄으로 끝맺음을 하는 5단락으로 나누어 소개한다. 선조들이 사랑한 매화의 향취가 묻어나는 그림 「매화서옥도」, 안평대군의 야망이 숨겨진 안견의 「몽유도원도」, 자신에게 엄격했던 그림 윤두서의 「자화상」 등 계절의 순환 속에 담겨낸 동양화의 향취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 그림이 전해주는 아름다움은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게 하는 것임을 여러편의 동양미술 에세이를 펴낸 조정욱 저자의 깊이 있는 해설이 돋보인다.

## 저자소개 / 조정욱

대학에서 불문학을, 대학원에서 동양미술사를 전공했다. 성신여대,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동양의 마음과 정신을 알릴 수 있는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그림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를 시작으로 『거침없는 그리움』 『깊은 위로』로 이어지는 동양미술 에세이 시리즈를 펴냈다. 블로그 '조정욱의 행복한 그림읽기'를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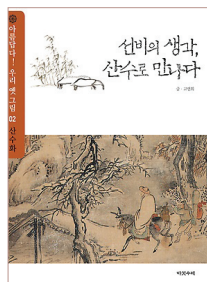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사람도 자연의 일부라서 하늘과 땅의 도를 닮은 사람을 좋아한다. 사람이 벚꽃의 공평 무사함을 닮게 되면 이 세상에 다툼이 없어질 것이다. (p.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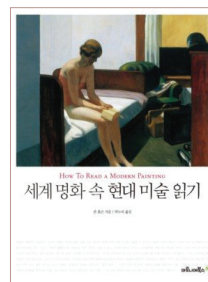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옛 그림 속 여백을 걷다  
김정숙 | 2012



선비의 생각, 산수로 만나다  
고연희 | 2012



세계 명화 속 현대 미술 읽기  
존 톰슨 | 2009

# 그림속에서 나를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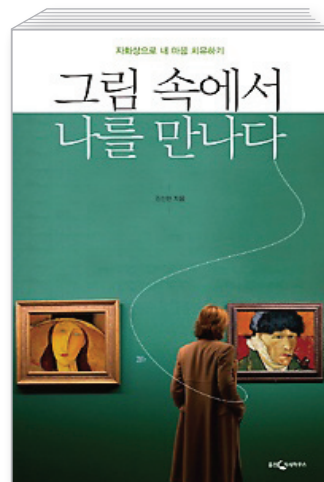
054

## 사서의 추천글

모델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던 고희는 유독 자화상이 많다. 그래서인지 그의 자화상은 그림에 대한 열망, 불안, 체념의 감정이 보는 이에게 고스란히 느껴진다. 그만큼 자화상은 숨길 수 없는 내면을 솔직하게 보여준다. 임상미술전문가인 저자 김선현은 이 책에서 심리치유에 효과적이었던 80점의 유명한 자화상을 소개한다.

방어기제, 트라우마, 우울, 자기에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을 과연 화가들은 자화상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저자는 미술치료의 관점에서 화가들의 정신세계를 풀이한다.

삶의 여정마다 자신을 남긴 렘브란트, 육체적 고통의 경험을 사실적 회화로 그려낸 프리다 칼로 등 화가들이 고백하는 자화상을 통해 미술로 치유되는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자.



김선현 지음 ● 웅진씽크빅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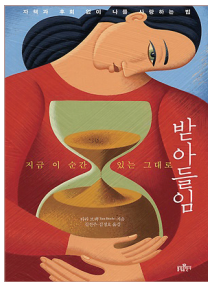
## 저자소개 / 김선현

한양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부속 병원 예술 치료 연수하였으며 CHA의과학대학교 차병원 임상미술치료클리닉 교수, 동·서 미술치료 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 하였다. 저서로는 『임상미술의 이해』, 『흙동기와 찰흙놀이해요』, 『나는 작품을 만지러 미술관에 간다(공저)』 등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 『점토를 통한 미술치료』, 연구논문으로 <보완대체의학에서의 미술치료의 역할> 외 다수가 있다.

## 책 속 한 문장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한 회화적 기록은 역설적으로 그녀가 그 고통을 이겨내게 하는 보상의 의미를 지닌다. (p. 143)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반아들임  
타라 브랙 | 2012



화가의 얼굴, 자화상  
로라 커밍 | 2012



그림에게 나를 맡기다  
함정임 | 2012

## 댓글

저자의 말에 따르면 미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미처 내 자신도 몰랐던 나를 만날 수 있고, 또한 미술감상을 통해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보는 동안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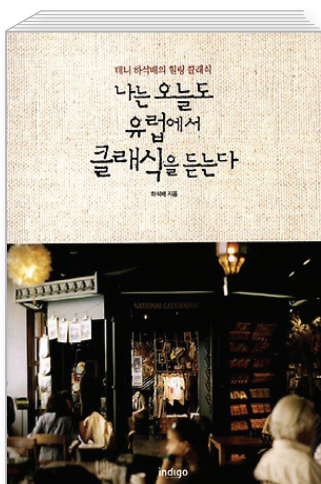
## 나는 오늘도 유럽에서 클래식을 듣는다

### 사서의 추천글

클래식의 낯설음은 유럽의 도시들이 보여주는 웅장함과 고풍스런 모습처럼 친숙하기 어렵다. 테너 가수인 작가 하석배는 클래식을 배우면서 누벼온 유럽의 도시들의 풍경과 그 도시들이 성장시킨 음악가들을 친숙하게 소개한다.

피렌체 베키오 다리 위에서 사랑을 노래한 오페라《잔니 스키키》, 잘츠부르크 작은 도시에서 성장한 모차르트와 카라얀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선율 등 8목차로 나누어 독자로 하여금 여행과 음악을 함께 즐기게 해준다.

각 목차 뒤에 유럽의 도시와 어울리는 명반과 명연주자를 소개하여 음반선택의 어려움을 줄여준다. 다가오는 봄, 여행을 통해 힐링의 시간을 찾아가듯 클래식이 선사하는 풍요로운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 하석배 지음 ● 인디고 ● 2013

### 저자소개 / 하석배

경희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이탈리아 베르디국립음악원에서 공부했다. 졸업 후에 밀라노에 살면서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핀란드 등 유럽 전역에서 열리는 콩쿠르와 공연에 참석했다. 2000년도엔 유럽 연합방송 주최 세계 20인의 음악가에 선정되는 등 능력을 인정받으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MBC 라디오 '오늘 아침 이문세입니다.'에서 매주 일요일 《말랑말랑 클래식》 코너를 진행하였다. 이밖에도 금호문화재단 등에서 클래식 관련 강연을 하고 있다.

### 책 속 한 문장

가을과 겨울 빗소리를 표현하는 데 피아노만한 악기가 또 있을까. 음악을 들으며 밖을 내다보면 카페의 유리창 위로 가로등에 비친 빗방울이 마치 보석처럼 빛났다. (p.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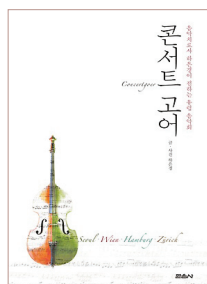
### 덧글

클래식이라는 음악과 힐링을 주제로 음악가인 저자가 클래식과 함께 유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에 관한 책이라 생각하고 읽지만 제게 돌아온 것은 유럽이라는 여행지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도시 여행 이야기, 도시에 담긴 음악을 찾아 떠난 이야기들 신선했던 책입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왜 그 이야기는 음악이 되었을까  
이민희 | 2013



콘서트 고어  
하은경 | 2012



나도 바흐를 즐길 수 있을까  
이철재 | 2012



# 식민지 조선의 또 다른 이름, 시네마 천국

056

## 사서의 추천글

『식민지 조선의 또 다른 이름, 시네마 천국』은 1910년대에 경성에 영화관이 들어서면서 대중의 일상문화로 정착하기 시작한 영화가 일제 강점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유통되고 대중에게 수용되었는지를 다룬다. 저자는 이 책의 집필을 위해 5~6년간 근대 한국의 수많은 문학 작품, 일간지, 잡지, 논문에서 영화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모았다고 한다.

소소하지만 재미있는 신문기사, 광고 등의 자료를 수록하고 그를 근거로 재미있는 사실들을 알려준다. 당시 영화관람료는 현재 25,000원에 해당하는 1원이었으며 여러 편의 영화가 상영되고 그 사이에 막간흥행이라는 공연이 끼워져 있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무성영화에 빠질 수 없는 번사의 스타대접이 어느 정도였는지, 영화관 고객들의 불만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지금과 다른 그 당시의 흥행요소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영화, 영화고객, 영화관을 중심으로 식민지 조선을 살던 대중의 일상문화와 삶을 살펴 볼 수 있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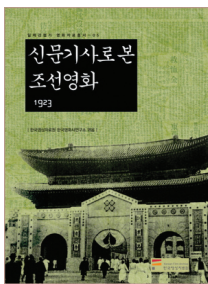
## 저자소개 / 김승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한국현대시 전공으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2012년 현재 세종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일제 강점기 시와 영화에 대한 글을 써왔고, 식민지, 문화라는 키워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저서로 『식민지시대 시의 이념과 풍경』, 논문으로 〈아동 작문의 영화화와 한·일 문화 교섭〉, 〈1960년대 후반 김수영 시의 미디어 수용 양상〉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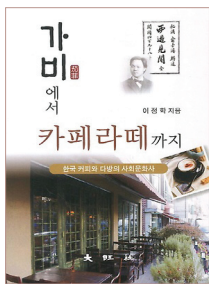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영화관 구경 가기는 근대적 공간의 체험일 뿐만 아니라, 그 내면으로는 오락이라는 형식을 통한 서구 문화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p.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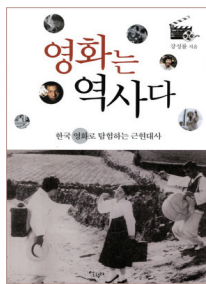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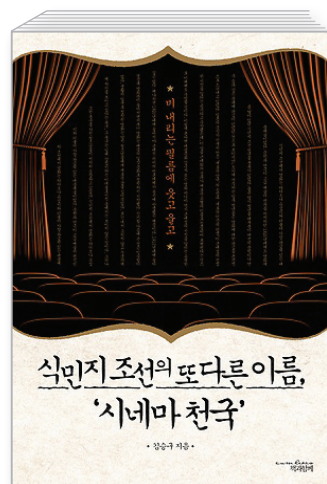
신문기사로 본 조선영화  
한국영화사연구소 | 2011



가비에서 카페라떼까지  
이정학 | 2012



영화는 역사다  
강성률 |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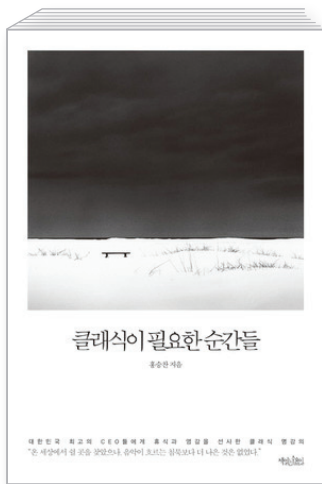


● 김승구 지음 ● 책과함께 ● 2012

## 덧글

제목 그대로 일제 강점기 조선의 민중들과 영화이야기를 다룬 책이었어요. 1940년대 조선의 전 국토가 탄광 불을 맞아 몸살을 앓았던 것처럼, 빼앗긴 나라와 식민지 2등 국민의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탈주하려는 또 다른 몸짓은 활동사진에 열광하는 것이었죠. 영화를 좋아하고, 영화라는 문화를 소비하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좋아할 책입니다.

## 클래식이 필요한 순간들



- 홍승찬 지음
- 책읽는 수요일 : 한국물가정보
- 2012

### 사서의 추천글

MP3, 스마트폰의 출현으로 어디서든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대이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 사이에 클래식은 여전히 낮은 장르일 수 있다.

『클래식이 필요한 순간들』은 홍승찬 교수가 '뮤직 인사이트'의 강의와 공감코리아 등의 매체 등에 발표했던 음악 칼럼을 모아 단행본으로 엮은 책이다. 저자는 혼자만 알고 즐기 가까운 음악을 추천하고 있다.

책 구성은 총 4악장으로 제1악장은 '스타카토처럼 경쾌하고 활기차게' 시작하여 '안단테처럼 느긋하고 여유롭게', '비바체처럼 열정적으로' 구성되다가 마지막 4악장은 '칸타빌레처럼 흘러가듯이'로 음악에서 빠르기말로 쓰이는 용어를 사용하여 구분해 놓았다. 각 악장은 다시 11개에서 12개의 챕터로 나뉘어져 독립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에 관계없이 어느 부분을 읽어도 무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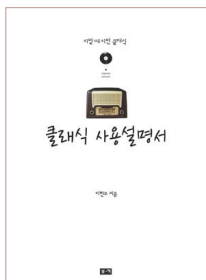
### 저자소개 / 홍승찬

대한민국 예술경영 1세대 교수로서 대중들이 클래식에 쉽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SERI CEO 인문학 '뮤직 인사이트', '커피콘서트' 등 여러 강연을 진행하고 다양한 매체에 음악 칼럼을 기고하였다. 그밖에 국립발레단 운영위원, 세계무용 콩쿠르 집행위원, 예술의전당 공연예술감독, 한국음악협회 부이사장, 문화컨텐츠진흥원 평가위원, KBS 교향악단 운영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예술경영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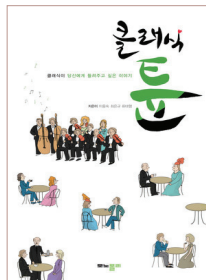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교향곡의 정점이자 시련을 이겨낸 인간 승리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의 1악장을 듣다보면 지금의 시련도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p. 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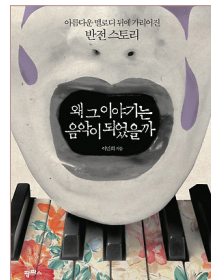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



클래식 사용설명서  
이현모 | 2011



클래식 툰  
이용숙, 최은규, 류태형  
| 2012



왜 그 이야기는 음악이 되었을까  
이민희 | 2013



## 탱고 인 부에노스아이레스

### 사서의 추천글

이 책은 저자가 어느 일본 작가의 탱고에 관한 소설을 읽은 후 탱고의 뿌리를 찾아 탱고와 축구의 나라,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떠나 2주간 머물면서 겪은 이야기를 쓴 글이다.

‘탱고’는 원래 남자와 남자가 추는 춤이었다. 유럽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 고향을 향한 그리움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추었던 것이다. ‘남녀가 서로를 유혹하는 춤이 아니라, 저 멀리 남미에 자리 잡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사람들의 삶이자, 애환이며, 시(詩)이고 음악이며, 춤이지만 춤이 아니며, 춤 이상의 그 무엇이다.’ 라고 저자는 말한다.

이 책은 탱고의 탄생, 성장, 변화, 피아졸라의 혁명, 부에노스아이레스 명소 등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간 중간에 유명한 탱고의 가사 번역문 12곡을 수록하고 있으며, 마지막 장에는 독자들이 즐길 수 있는 음반과 영화들도 소개하고 있다. 휴가철, 탱고를 찾아 여행을 떠난 저자처럼 예술을 찾아 여행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 저자소개 / 박종호

풍월당 대표, 오페라 평론가, 문화 예술 칼럼니스트, 정신과 전문의로 활동 중이며, 저서로는 『내가 사랑하는 클래식』 1-3, 『불멸의 오페라』 I-II, 『오페라 에센스 55』, 『박종호에게 오페라를 묻다』, 『유럽음악축제 순례기』, 『박종호의 이탈리아 여행기-황홀한 여행』, 『빈에서는 인생이 아름다워진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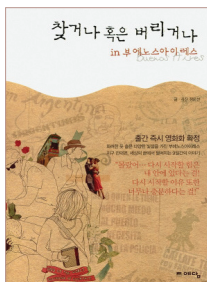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탱고는 두 사람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완성되는 춤이다. 탱고는 인생이지만 소통의 인생이다. 혼자 추는 탱고는 없다. (p. 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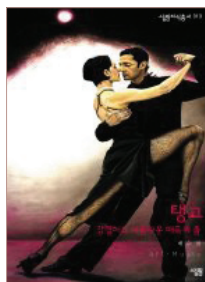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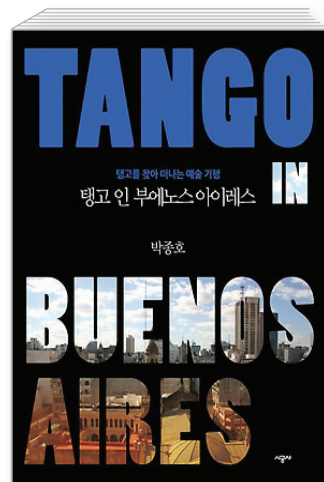
탱고 레슨  
화이 | 2010



찾거나 혹은 버리거나  
정은선 | 2009



탱고  
배수경 | 2007



● 박종호 지음 ● 시공사 ● 2012

## 하루

## 사서의 추천글

하루는 대개 일상적인 일들로 이뤄지지만 어느 날은 조금 더 바쁠 수 있고 어느 날은 더 고단했을 수도, 더 보람찬 하루였을 수도 있다. 반복된 일상이지만 똑같은 하루는 없다.

박영택의 마음으로 읽는 그림 에세이 <하루>는 어둠이 지고 이제 막 동이 뜨기 직전의 농촌의 새벽으로부터 하루를 시작한다. 하루 24시를 보여주는 이 책은 한국현대미술 작품 중 우리의 일상을 다룬 50편의 그림과 사진을 새벽, 아침, 정오, 오후, 저녁, 밤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소개하고 그림 하나하나의 이미지가 담고 있는 일상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화가들이 바라본 일상의 그림은 무심히 흘려보냈을 하루의 한 장면을 비로소 응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들이 그림을 그릴 때와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삶을 반성하게 한다. 그림을 통해 자신의 일상을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나면 가장 행복하고 귀중한 그리하여 삶의 절정인 하루가 오늘임을 깨닫게 된다.

## 저자소개 / 박영택

미술평론가이자 경기대학교 예술학과 교수이다. 인터넷방송 '넷향기'에서 《박영택의 미술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제2회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큐레이터, 대한민국청년비엔날레 2002 커미셔너, 제2회 아시아프 전시 총감독, 대구예술발전소 문화행사 총감독 등을 역임했다. 저서으로는 『예술가로 산다는 것』, 『식물성의 사유』, 『미술전시장 가는 날』, 『민병현』, 『나는 붓을 던져도 그림이 된다』, 『가족을 그리다』, 『얼굴이 말하다』, 『예술가의 작업실』 등이 있다.

## 책 속 한 문장

우리는 늘 기억에 기생해 그 기억을 갉아먹으며 앞으로 조금씩 밀고 나가며 산다. (p. 95)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그림에게 나를 맡기다  
함정임 | 2012



그림공부 인생공부  
조정육 | 2012



명작스캔들  
민승식 | 2012

● 박영택 지음 ● 지식채널 ● 2013

# 내가 알고 있는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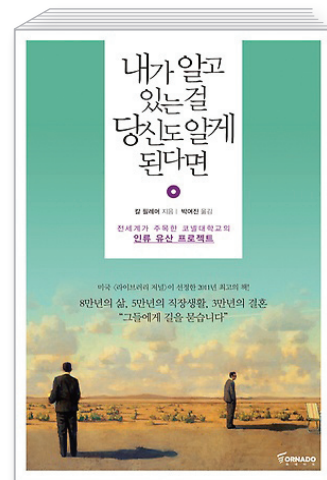
060

## 사서의 추천글

사회학자인 칼 필레머 교수는 '인류 유산 프로젝트'라는 연구를 하며 5년에 걸쳐 70세 이상 인생을 산 각계각층의 1000여 명의 사람들을 만나 '지금껏 살면서 얻은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인터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인생의 지혜를 담아 책으로 냈다.

이 책은 '8만 년의 인생에게 묻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행복하게 맞는 아침' 등 그들이 지나온 삶과 '직장생활에서의 자세', '행복한 결혼생활의 조건',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과정' 등을 8장의 목차로 담았으며 인생의 시작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의 경험을 생생한 인터뷰내용으로 소개하며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삶의 자세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인생을 살면서 매순간 찾아오는 위기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이 들려주는 소중한 경험이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로 다가올 것이다.



## 저자소개 / 칼 필레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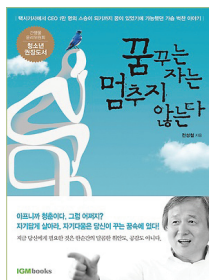
세계적인 사회학자이자 인간생태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다. 2006년 칼 필레머 교수는 '인생의 성공과 행복에 관한 수많은 책들과 강연의 홍수 속에 살아가면서도, 왜 우리는 여전히 불행한가?'라는 의문에 관한 답을 얻기 위해 '코넬대학교 인류 유산 프로젝트 (Cornell Legacy Project)'라 이름 붙은 연구를 시작했다. 5년에 걸쳐 그는 각계각층 사람들을 대상으로 통찰력 있는 질문과 인터뷰 등을 이 책에 담았다.

- 칼 필레머 지음
- 토네이도미디어그룹 2012

## 책 속 한 문장

내 삶에는 '아니오'라는 대답은 없었다네. 나는 내게 주어진 일들을 흔쾌히 받아들였지. 재미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하다 보면 흥미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어. "네"라고 말할 때 기회가 온다네. (p. 232)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꿈꾸는 자는 멈추지 않는다  
진성철 | 2012



꿈꾸는 다락방  
이지성 |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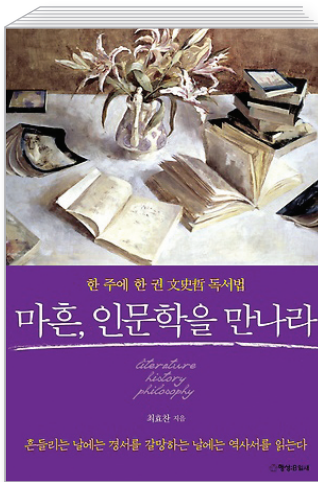
생각 버리기 연습  
코이케 류노스케 | 2011

## 마흔, 인문학을 만나라

### 사서의 추천글

인문학은 인간의 가치와 의미를 탐구하는 근본적인 학문으로서, 문학적 감수성(文), 역사적 문제의식(史), 철학적 통찰력(哲)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이 책은 인문 고전을 철학, 문학, 역사, 근현대 교양의 네 종류로 나누어 각각 겨울, 봄, 여름, 가을에 읽어야 할 순서를 안내함으로써 인문고전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독서법을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인문고전 작품에 대한 설명보다 그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소개가 주 내용이다. 더불어 그 고전과 관련된 중요한 역사적 사실, 영향을 받은 위대한 인물,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부록으로 엮은 '문사철(文史哲)100선'은 더욱 확장된 인문학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최효찬 지음 ● 행성비 2012

### 저자소개 / 최효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비교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향신문> 기자로 17년간 근무했고, 현재 연세대 미디어아트연구소 연구원이자 자녀경영연구소를 운영하며 작가이자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잡자기 전 30분 독서』, 『5백 년 명문가, 지속경영의 비밀』, 『한국의 메모 달인들』, 『한국의 1인 주식회사』, 『아빠가 들려주는 경제 이야기』, 『5백 년 명문가의 자녀교육』, 『세계 명문가의 자녀교육』, 『세계 명문가의 독서교육』 등이 있다.

### 책 속 한 문장

남이 한 번해서 가능하게 만든다면 나는 백 번을 해서 능하게 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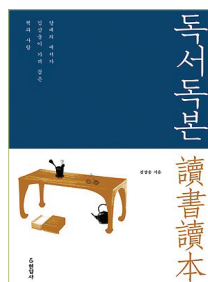
남이 열 번해서 가능하게 만든다면 나는 천 번을 노력해서 가능하게 만들면 된다.

- <중용> 중에서 (p. 49)

### 맺글

이 책은 인문 고전에 대해 부담감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나, 어떤 책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던 분들에게 좋은 가이드가 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주에 한 권씩 일년치라면 무려 52권이나 소개받는 셈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궁금하던 것에 대한 답변으로서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독서독본  
김상웅 | 2012



일상의 인문학  
장석주 | 2012



고전탐닉 1, 2  
하연 | 2012

# 왜 부자들은 모두 신문배달을 했을까

062

## 사서의 추천글

워렌 버핏, 잭 웰치, 톰 크루즈 등 미국의 유명인사의 공통점은 그들의 첫 직업이 신문배달부였던 사실이다. 이 책의 작가 제프리 J. 폭스는 이러한 흥미로운 공통점을 가지고 인생의 성공 원칙에 대해 이야기한다.

레이라는 소년이 신문배달을 시작하며 겪게 되는 사건들을 통해 근면성과 그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레인메이커가 되고 또한 후에 어떻게 MBA박사학위를 받는 사업가로 성장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며 사소하게 여겨지는 신문배달이 우리사회의 성공하는 기업가 정신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1부가 소년 레인의 이야기라면 2부에서는 30가지 성공의 레시피로 성공의 법칙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30가지 레슨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준다.

인생의 성공을 거둔 그들이 어린시절 새벽녘 졸음을 이겨내며 인생의 출발점에서 시작한 신문배달이 성실한 자세, 약속의 소중함, 인내심 등을 배우게 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 저자소개 / 제프리 J. 폭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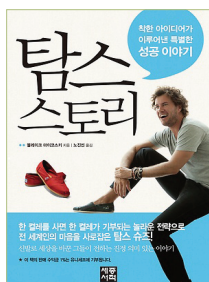
록타이트사의 마케팅 담당 부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마케팅 컨설팅업체인 폭스사를 설립해 최고의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HOW TO BECOME A CEO』, 『그레이트 보스』, 『CEO의 저녁식탁』 등이 있으며, 이를 포함한 그의 베스트셀러들은 현재 35개 국어로 출간되었다. 《세일즈&마케팅 매니지먼트》지와 전국산업유통협회로부터 '최고의 마케터 상'을 수상한 바 있고, 코네티컷 아메리칸 마케팅협회로부터 '올해의 마케터'로 선정되었다.

📖 제프리 J. 폭스 지음 📖 흐름출판  
📅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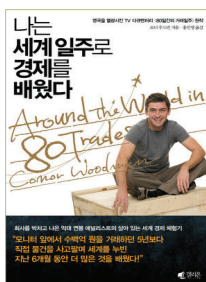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너 자신과의 게임만이 진정한 게임이다. 또 오직 네가 믿는 사람들과 게임을 해야 한다. 너의 아이디어와도 승부해라. 그러면 늘 행운이 따르게 될 거다” (p.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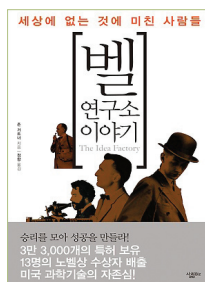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탐스 스토리  
블레이크 마이코스키 | 2012



나는 세계일주로 경제를 배웠다  
코너우드먼 | 2011



벨 연구소 이야기  
존 거트너 | 2012



## (통찰력을 길러주는) 인문학 공부법



● 안상헌 지음 ● 북포스 ● 2012

### 사서의 추천글

수 년간 경영·경제서와 자기계발서가 주를 이루던 서점가에 인문학 열풍이 거세다. 왜 우리는 갑자기 인문학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일까? 어려운 사회여건 속에서 사람들은 인문학을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고 있다. 불과 몇 해 전만해도 대학들이 취업부진 등을 이유로 인문학 관련학과 강좌를 폐지했던 것을 감안하면 인문학의 귀환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회·경제적 문제 때문에 돌파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 인문학의 인기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할 시간이 필요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최근에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을 찾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저자는 이런 우리에게 인문학의 근간인 철학, 문학, 역사에 대한 설명과 어떻게 접근하고 공부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 저자소개 / 안상헌

책 읽기를 통해 세상을 살피고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연구하는 독서와 자기 계발 전문가이다. 대학 때부터 시작한 4천여 권의 넓고 깊은 독서와 일의 현장에서 깨달은 일들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변화를 돕는 책을 쓰고 강의하는 것을 숙명으로 여기며 활동하고 있다. '인간은 자신을 뛰어넘어야 할 무엇이다'라는 니체의 말을 가슴에 품고 항상 책을 옆에 끼고 공부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그는 지금의 자신을 뛰어넘어 새로운 자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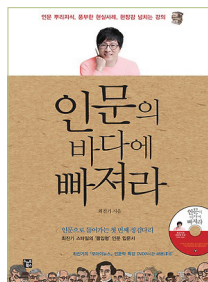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인문학은 기존의 생각과 방식을 다르게 바라보도록 하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부추긴다. (p. 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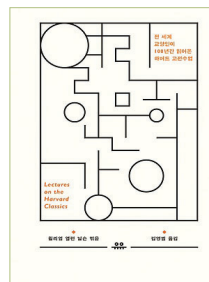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지금 시작하는 인문학  
주현성 | 2012



인문의 바다에 빠져라  
최진기 | 2012



열린 인문학 강의  
윌리엄 앨런 닐슨 |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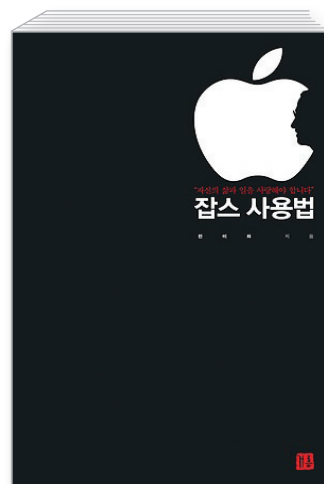
## 잡스 사용법

064

### 사서의 추천글

애플이라는 회사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 거대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준, 조금은 독특한 이 컴퓨터 회사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스티브 잡스다. 스티브 잡스의 삶은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바대로 순탄치 않았다. 차고에서 컴퓨터 회사를 만들어 성공가도를 달리다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고 다시 돌아와 정상으로 끌어올린 후 최고의 날들을 살다가 암으로 드라마와도 같은 인생을 마감했다.

이 책은 그의 삶을 비추며 그가 보여준 나뭇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다. 삶, 혁신, 리더십, 디자인이라는 4가지의 키워드를 토대로 42개의 이야기를 통해 삶과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하며 그가 남긴 말들을 여러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삶과 비즈니스에서 그가 보여 준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더 나아가 그의 유산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잡스를 다시 읽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한미화 지음 거름 2012

### 저자소개 / 한미화

홍익대학교에서 독일문학을 공부했고, 웅진출판과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에서 일했다. 출판칼럼니스트로 일하며 책과 출판에 관해 글을 쓰고 방송을 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 활동했고 지금은 <황정민의FM대행진>에서 '한미화의 서점가는 길'을 진행하고 있으며, KBS ITV <즐거운 책읽기>에 북클럽 패널로 출연 중이다. 그동안 『우리 시대 스테디셀러의 계보』, 『베스트셀러 이렇게 만들어졌다 12』, 『책 읽기는 게임이야』 등의 책을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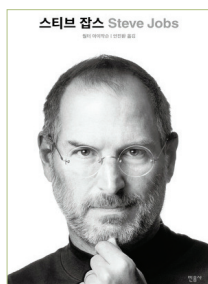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어도 이 일을 할 것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p.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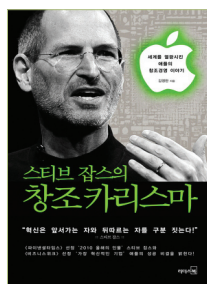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스티브잡스 VS 빌게이츠  
다케우치 가즈마사 | 2010



스티브잡스  
월터 아이작스 | 2011



스티브잡스의 창조카리스마  
김영한 | 2011

## 질문이 답을 바꾼다

### 사서의 추천글

『질문이 답을 바꾼다』는 미국 CEO들이 가장 신뢰하는 코치 중 한 명인 앤드루 소벨과 '모금분야의 워렌 버핏'인 제럴드 파나스가 명 질문들을 34개의 장으로 나누어 대화와 상황을 함께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

그럼, 상대방의 잠긴 마음을 열수 있는 열쇠인 훌륭한 질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게 자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인가?" 사람을 키우는 자극적인 질문, "오늘, 다른 날 보다 멋진 일이 뭐가 있었니?" 자녀에게 삶의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는 질문 등이 이에 속한다. 더불어 좋은 질문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관심 없이 아무렇게나 나오지 않는다. 겸손한 자세로 내가 똑똑한지를 보여주려 들지 말고 상대방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 책은 우리가 깨닫지 못한 질문의 힘을 발견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책을 통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 탁월한 질문, 그 물음표의 주인공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

### 저자소개 / 앤드루 소벨, 제럴드 파나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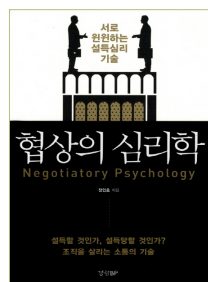
앤드루 소벨(Andrew Sobel) - 미들버리 대학을 졸업하고 다트머스 터크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했으며, 『메이킹 레인』, 『올포원(All for One)』등을 썼다.

제럴드 파나스(Jerold Panas) - 자선활동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자선기부협회(Institute for Charitable Giving)의 창립자 겸 회장을 맡고 있다. 『에스킹(Asking)』과 『메가 기프트(Mega Gifts)』를 비롯해 13권의 책을 집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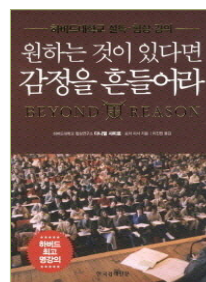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좋은 질문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발견하도록 우리를 자극한다. (p. 15)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협상의 심리학  
정인호 | 2012



원하는 것이 있다면  
감정을 흔들어야  
다니엘 사피로, 로저 피셔  
| 2013



협상은 영화처럼  
영화는 협상처럼  
박상기 | 2013

- 앤드루 소벨, 제럴드 파나스 지음
- 어크로스 ⓒ 2012

# 책읽기 좋은날

066

## 사서의 추천글

『책읽기 좋은날』은 저자가 십여 년간 잡지에 연재했던 칼럼 중에서 현대인이 살아가는 세상을 잘 보여주는 책들의 기록을 묶은 독서에세이다. 『당신, 살아있나요?』로 시작해 『오늘밤도 분홍분홍해』까지 총 6부로 구성된 책은 시, 에세이 등 문학서를 비롯하여, 인문서, 철학서, 만화, 동화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 123권의 책을 소개한다. 저자는 책 자체의 내용만큼이나 그 책을 읽던 시기의 세상살이에 대한 생각과 추억을 통해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기분이 울적할 때 스스로 내리는 가장 오래된 우울에의 처방전으로 『오만과 편견』을 펼치고, 『비행운』을 읽으며 친구들과 함께 한 배고프고 고단한 서울살이를 떠올린다. 이 책은 이렇게 느낌에 따라 책의 소리를 듣는 법을 알려준다.



## 저자소개 / 이다혜

영화잡지 <씨네21>과 장르문화 전문지 <판타스틱> 기자로 일했다. <씨네21>에서 시사칼럼 '이주의 한국인 무엇을 이야기할까'와 문화칼럼 '작업의 순간'을 연재했다. 현재는 책칼럼 '다혜리의 요즘 뭐 읽어'를 연재하고 있으며, 그밖에 다수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책과 영화 이야기를 한다.

📍 이다혜 지음 📍 한국물가정보  
📅 2012

## 책 속 한 문장

그래도 여전히 책을 읽는다.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을 재발견하고 싶어서 읽을 때도 있고, 모르는 세상으로 한 발 더 다가가고 싶어서일 때도 있다. …… ‘해야 하는 것’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책 하나쯤은 온전히 도락(道樂)으로 남아도 좋다고 믿기 때문이다. (p. 393)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책으로 노는 집  
김청연, 최화진 | 2012



잠자기 전 30분 독서  
최효찬 | 2011



서른의 독서  
박자숙 | 2011

## 댓글

다양한 사람들의 책에 대한 리뷰를 볼 수 있는 책이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책에 대한 리뷰를 남겨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가끔은 생각나는 책들이 있어서 써 두었던 리뷰를 읽어 보면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구나', 또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지' 하는 생각을 떠올릴 수 있 으니까요.

## 청춘, 그 이름만으로도 된다

### 사서의 추천글

이 책은 검색엔진시장에서 최고의 브랜드가 된 '바이두'의 CEO, 리엔홍의 성공스토리이다. 리엔홍은 바이두를 창립해서 성공적으로 상장하기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구글, 시나닷컴, 소후닷컴 등 경쟁한 포털사이트들과의 경쟁, 음원 저작권 파동의 시련 등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집념, 그를 지지하는 열정적인 팀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유의 부드러운 인재관리법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청춘, 그 이름만으로도 된다』는 총 10장으로 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구성은 리엔홍의 성장과정과 바이두가 세계 최대의 중국어 검색사이트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형식으로 풀어가고 있다.

“편안한 길을 가지 말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할 필요도 주저할 필요도 없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느냐이다. 절대로 꿈을 손에서 놓지 말라.....” 책의 첫 장을 넘기면서부터 시작되는 이 글귀는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청춘들에게 작은 희망을 갖게 해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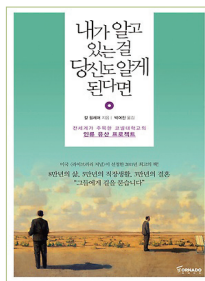
### 저자소개 / 완즈프

중국 후난성 시양탄에서 태어나 중국 인민대학교 철학과 박사과정을 마쳤다. 국내·외 학술서에 1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며, 활발한 저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중국 내에서 인물전기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한 저자는 리엔홍을 인터뷰하며 가장 진솔하고도 생생한 바이두의 성장스토리를 집필할 수 있었다. 주요 저서로는 『장자의 재부 : 영혼의 계책』, 『노자의 재부 : 경영의 높은 경지』, 『공자의 재부 : 출세의 경전』, 『맹니우 우유의 황소고집』 등이 있다.

### 책 속 한 문장

즐거움 속에서 일하고 일하는 가운데 즐거움을 만끽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일은 생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요, 자아실현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p. 294)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칼필레어 | 2012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은지성 | 2012



희망은 잠들지 않는  
당신의 꿈입니다  
한페이 | 2011

완즈프 지음 ● 생각수레 ● 2012

## 하워드의 선물

068

### 사서의 추천글

『하워드의 선물』은 세계적인 멘토로 알려진 하워드 교수의 가르침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지혜'를 담은 책이다.

어떻게 후회 없는 삶을 살아 갈 것인가? 책에 따르면 인생이란 "누구에게나 처음이기 때문에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인생의 전환점에서 미래에 대한 밑그림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남기고 싶은 자기만의 유산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인생의 마지막 장면에서 시작하기'를 권유한다. 또한 개인적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인생의 비전을 세우고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한다. 이와 관련 덧붙이는 경고에는 때가 되기 전에 미리부터 걱정하지 말고, 꾸준한 능력 개발을 통해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됨을 강조한다.

이 책은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나 도전에 직면했을 때, 삶의 전환점에서 최선의 길로 이끌기 위한 지혜와 경험을 알려주고, 이로써 인생의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다.



### 저자소개 / 에릭 시노웨이, 메릴 미도우

**에릭 시노웨이** - 코넬대에서 호텔경영학을 전공하고, 하버드 대학교 존 F. 케네디 행정대 학원(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을 졸업하였다. 그는 기업가이자 대학 및 영 리, 비영리 조직에서 경험을 쌓은 노련한 관리자로 훌륭한 브랜드와 기업인들에게 영감을 주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서로 연결시켜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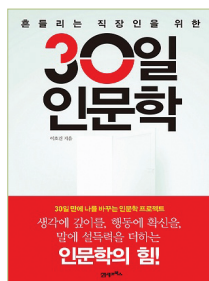
**메릴 미도우** - 하버드 대학교의 학교발전계획 책임자이며, 극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 에릭 시노웨이, 메릴 미도우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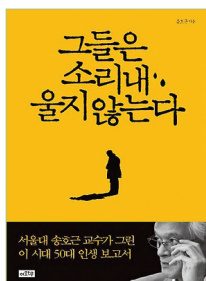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인생의) 전환점은 '기회의 덩어리'이긴 하지만 오래 기다려주진 않아. 폭주 기관차처럼 돌진해 왔다가 번개처럼 멀어지지. (p.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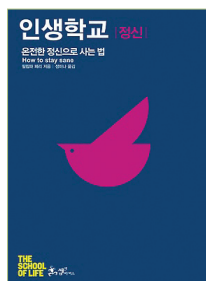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



30일 인문학  
이호건 |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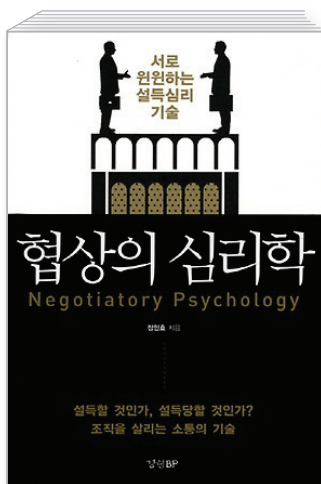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  
송호근 | 2013



인생학교 : 정신  
필립파 페리 | 2013



## 협상의 심리학



정인호 지음 ● 경향비피 ● 2012

### 댓글

기업에서 구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고찰해보는데 큰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같은 일을 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필독을 권하고 싶습니다. 구매협상 뿐 아니라 행복한 직장생활을 하는데 많은 TIP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사서의 추천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경영 관리 문제의 60% 이상을 줄일 수 있다”라고 했다. 매일 하는 커뮤니케이션이지만 의사소통은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의 최고 대인관계 전문가인 레슬리 기블린도 “말하는 습관이 운명을 바꾼다”라고 했다.

그럼, 어떤 커뮤니케이션 습관이 우리에게 유용할까?

『협상의 심리학』의 저자는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은 나도 이기도 상대방도 이기는 창조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 창조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품격 있는 커뮤니케이터가 되어야 하며 상대방의 요구(position) 보다는 욕구(interest)에 집중하고 긍정적 사고로 서로의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자신과 주변 사람 모두가 만족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은 사람, 협상의 기초를 익히고 싶은 사람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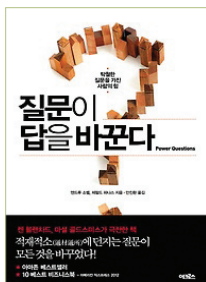
### 저자소개 / 정인호

영남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필자의 연구 관심분야는 협상 및 커뮤니케이션, 코칭, 고객경험관리, 디자인경영, 가치관경영, HRD 이다. 한국표준협회건설팀 책임건설턴트, IGM세계경영연구원 실장을 거쳐 현재 VC경영연구소 대표, (주)인기움 수석연구원, 한국표준협회 수석전문위원과 열린사이버대학교, 중소기업연수원의 외래교수로 활동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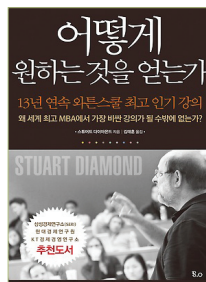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나와 상대방 둘 다 요구보다는 욕구에 초점을 맞추면 열에 아홉은 양쪽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 (p. 183)

###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



질문이 답을 바꾼다  
앤드루 소벨, 제럴드 파나스  
| 2012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 2011



협상 심리학  
나이토 요시히토 | 2011



## (학력 파괴로 세상의 경계를 허무는) 한국의 아웃라이어들

070

### 사서의 추천글

최근 국내 20~30대 남녀 직장인 314명에게 ‘대한민국에서 성공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더니 가장 많이 꼽힌 것(26.1%)이 ‘학벌과 출신학교’였고, ‘인맥과 대인관계 능력’(24.2%)이 그 뒤를 잇는다. 통상 인맥은 학교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대학이란 간판을 따기 위해 버려지는 막대한 비용문제는 국가적으로도 심각하다.

『한국의 아웃라이어들』에서는 이러한 학벌지상주의란 사회적 장벽을 뚫고 오직 전문성과 능력만을 무기로 자신의 삶을 개척한 17인의 고졸신화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독일과 스위스 등과 같이 편견 없는 실력사회를 이룬 외국의 사례와 배경을 예로 들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더이상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이룰 수 없는 경제규모를 가졌다. 더구나 전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경제불황으로 인해 저성장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이 책은 현재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력이 아닌 실력’이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 저자소개 / 김영상

1985년 서울수도전기공고 졸업, 한국전력공사에 입사. 이후 퇴사와 함께 기자로 전직하였다. 현재 헤럴드경제 산업부에서 삼성, LG 등 대기업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4단체 출입기자이자 재계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 책 속 한 문장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불은 금을 시험하고, 역경은 강한 인간을 시험한다고 했다. 영국의 자랑인 위스턴 처칠은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에서 역경을 보고, 낙관주의자는 모든 역경에서 기회를 본다’고 했다. (p. 60)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행운 사용법  
김민기, 조우석 | 2013



액트 빅, 씽크 스몰  
칼 뉴포트 | 2013



두 가지 유산  
정해운 | 2010



● 김영상 지음 ● 북오션 ● 2013

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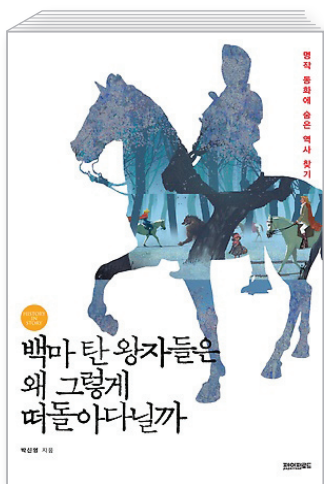
## 백마 탄 왕자들은 왜 그렇게 떠돌아 다닐까

### 사서의 추천글

“마음씨 곱고 예쁜 ○○은 계모의 구박을 받으며...”, “왕자와 공주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우리들이 어릴 때 처음 접했던, 그리고 가장 자주 읽었던 명작동화의 장면들이다. 아니, 어쩌면 아름답게만 가공되어 포장된 이야기의 전형적인 얼굴일지 모른다.

이 책의 저자는 명작동화들 속에 묘사된 사회적 배경과 인물들에 대해 우리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고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명작동화의 배경 속에 숨겨진 역사의 슬프고 불편한 진실을 낱알이 밝힌다.

이 책을 읽으면서 세 번을 감탄했다. 처음 목차를 읽으며 각 장과 절의 제목으로 제시된 저자의 날카로운 시각에 감탄했고, 본문을 읽어가면서 저자의 관찰력과 분석력에 감탄했으며, 마지막으로 이 책 한 권을 쓰기 위해 그녀가 읽었던 엄청난 수의 참고문헌에 감탄했다. 자, 이제 여러분도 저와 같이 최소 세 번은 감탄할 준비를 하자. 앗,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 정말 재미있다.



● 박신영 지음 ● 페이퍼로드 ● 2013

### 저자소개 / 박신영

숙명여대에서 국문학과 사학을 전공했다. 블로그(<http://blog.yes24.com/mkkorean>)에 ‘점점드레스라는 닉네임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문학, 역사, 인간이라는 세 개의 열쇠로 세상을 여는 역사에세이를 쓰는 데 주력해 왔다. 앞으로도 익숙한 이야기들에 낯선 질문을 던지는 즐거운 탐험을 계속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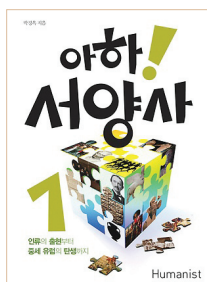
### 덧글

제목부터 끌리는 책이라, 추천 글을 읽고 동네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게 되었습니다. 역사도 좋아하고, 동화도 좋아하는데 접목시켜서 읽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왕자가 왜 떠돌아 다닐 수 밖에 없었는지 수녀원에서 사는 공주는 어떤 존재였는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도서를 추천해 주시는데 앞으로도 책을 고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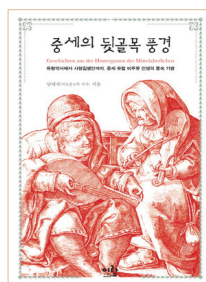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셰익스피어는 고리대금업에 종사하는 고약한 유대인을 실제로 만나 본 적도 없이 상상만으로 이 작품을 썼던 것이다. 이 시점에서 한 번 묻고 싶다. 셰익스피어 아저씨, 대체 왜 그러셨어요? (p. 68)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아하, 서양사(1권, 2권)  
박경욱 | 2013



중세의 뒷골목 풍경  
양태자 | 2011



식인양의 탄생  
임승희 | 2009

# 섬문화 답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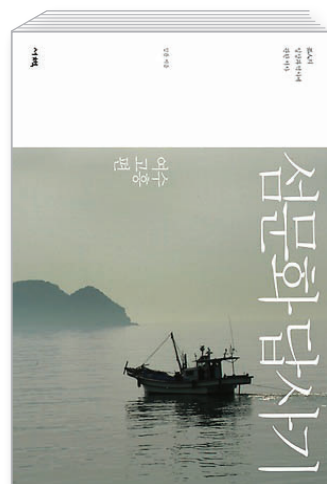
072

## 사서의 추천글

한반도의 삼면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 그 위의 섬은 그 수가 3,300여개에 이른다. 이 섬들 가운데 사람이 살고 있는 섬 460여개를 20년에 걸쳐 기록한 책이 『섬문화 답사기』이다.

이 책은 아무리 척박한 섬이라도 물과 나무가 있으며 들어가 살았던 섬사람들의 치열한 생존의 역사와 일상을 '도서별곡(島嶼別曲)'이라는 별칭에 어울리도록 정감 넘치게 풀어 내고 있다.

총8권으로 기획중인 시리즈 중 첫 선을 보이는 책이 '여수·고흥편'이다. 본편에서는 남해 안의 80여개 섬을 여수, 광양·고흥, 장흥·강진, 해남 등 세 지역으로 나누어 소개한다. 수향도의 비렁길, 추도의 공룡 발자국, 동양의 인어 '신지께' 전설까지 섬사람들이 지켜온 섬과 바다이야기를 전한다. 수차례 해양사진전을 연 저자가 직접 찍은 사진은 섬과 섬사람이 서로를 기대어 살아온 모습을 장엄하고도 따뜻하게 보여준다.



## 저자소개 / 김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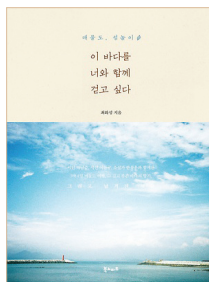
전남대학교에서 <어촌사회의 구조와 변동>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해양문화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현재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다. 저서로는 『섬과 바다』, 『다도해 사람들』, 『해양생태와 해양문화』, 『갯벌을 가다』, 『새만금은 갯벌이다』, 『김준의 갯벌이야기』, 『대한민국 갯벌문화사전』, 등이 있다. 또한 <섬과 여성>, <바닷물 백 바가지 소금 한 줍>, <갯살림을 하다>, <소금밭에 머물다> 등의 해양문화 사진전을 열기도 했다.

🕒 김준 지음 🕒 보너스 🕒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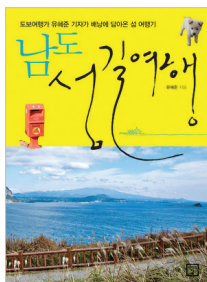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인류가 바다와 더불어 문명의 터를 닦고 진화의 역사를 써왔듯이, 전라도 사람들은 갯벌과 바다에 삶을 세겨왔다. (p. 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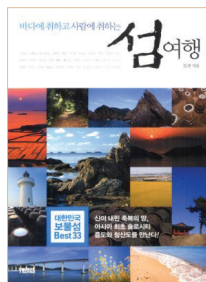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최화성 | 2012



남도 섬길여행  
유혜준 | 2010



섬 여행  
김준 | 2009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 사서의 추천글

저자는 세계적으로 오랜 역사를 지니며 훌륭한 건축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도서관을 선정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수도원 도서관 아드몬트 베네딕트회 대수도원 도서관, 책을 ‘감추는 곳’ 바티칸 도서관, 가족의 취미를 위해 구상되었으나 유럽문화의 귀중한 보고가 된 리카르도 도서관,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비싸고 가장 믿을 수 있는 도서관이라는 미국 국회도서관 등 23곳의 도서관이 등장한다.

이 책에 등장하는 도서관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융합예술의 공간’이다. 도서관이며 미술관이고 동시에 박물관이기도 하다. 이들 도서관의 설립과 장서 수집, 보존과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건축적 특징을 뛰어난 사진과 함께 책에 실었다. 워낙 멋진 사진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즐거울 것이다.



자크 보세 지음 다빈치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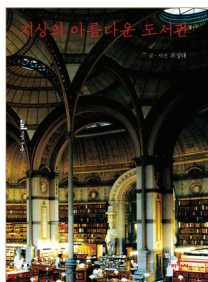
### 저자소개 / 자크 보세

건축, 디자인, 정원 예술에 특별한 흥미를 지니고 있으며, <Architectural Digest>, <Maison Française> 등의 잡지에 글을 기고했다. 번역가로서 현대 건축에 관한 책을 60여 권 번역했다. 그의 저서 『정원 2천 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은 세 권 모두 네 개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그밖에 『ProDesign : 유용한 디자인에 보내는 찬사』와 현대 건축에 비평서 『현대 건축과 건축가들』 등의 저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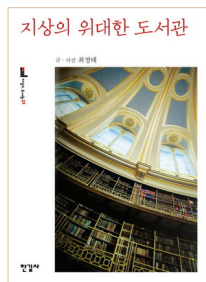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훌륭한 사서 없는 훌륭한 도서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p. 84)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지상의 아름다운 도서관  
최정태 | 2011



지상의 위대한 도서관  
최정태 | 2011



세계 도서관 기행  
유종필 | 2012

#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가 없다

074

## 사서의 추천글

배고픔과 끝없는 전쟁으로 울부짖는 아프리카를 보며 '왜'라는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이 책은 아프리카에서 숨쉬며 기록한 아프리카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담고 있다.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가 없다』는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흑 아프리카, 내전과 에이즈 그리고 굶주림으로 타 들어가는 핏빛 아프리카,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으로 떠오르는 컬러풀 아프리카로 아프리카의 실체를 들여다본다. 서구에 의해 만들어진 역사와 아프리카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동정, 여기에 허황된 희망으로 병들어 가는 아프리카의 모습과 해결책을 찾는 과정을 만날 수 있다.

이 한 권의 책을 통해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를 넘어 애정을 갖게 되는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왜곡된 아프리카의 역사와 연결된 노예제도의 정당화, 내전에 동원되는 무기 뒤에 감추어진 다이아몬드 거래 등 기존에 출간된 아프리카에 관한 책들에 비해 아프리카를 솔직하게 전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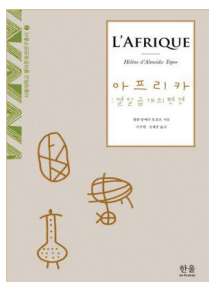
## 저자소개 / 윤상욱

서울대학교에서 서양사를,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공공정책학을 공부했다. 2008년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도하라운드협상과 개도국개발 문제를 담당하였으며, 그곳에서 UNCTAD·WHO·WTO 등 개도국과 선진국의 이해가 교차되는 국제회의를 통해 아프리카 경제사회 개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현재 주세네갈 한국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서아프리카 6개국과의 정부, 통상, 경제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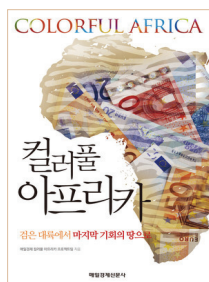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아프리카인들도 이제는 누군가의 간섭 없이 스스로를 자유롭게 정의해야 할 것이다.  
(p.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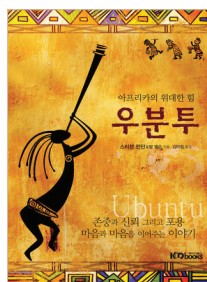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아프리카  
엘렌 달메다 토포르 | 2010



컬러풀아프리카  
매경 컬러풀아프리카  
프로젝트팀 | 2011



우분투  
스티브 런딘, 밥 넬슨 |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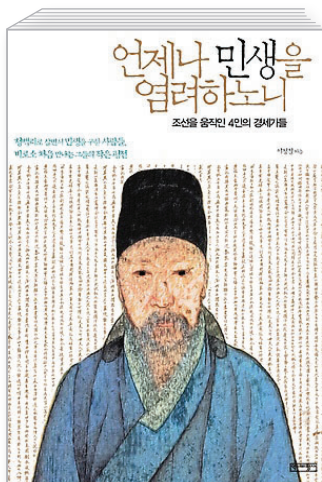


윤상욱 지음 | 시공사 | 2012



075

## 언제나 민생을 염려하노니



이정철 지음 역사비평사 2013

### 사서의 추천글

조선시대 실각한 왕 중 한명인 광해군은 연산군과 달리 폭군과 개혁군주로 그 평가가 나뉘고 있다. 그 이유는 실리외교와 함께 그가 실시한 대동법이라는 민생안정정책 때문이다. 이 책은 조선시대 최고의 개혁정책인 대동법 성립에 기여한 4명의 관료들을 소개하고 있다. 누구보다 탁월했지만 이해되지 못한 경세가 욕곡 이이, 백성을 위해 헌신한 관리 오리 원익, 이론과 현실을 조화한 학자 포저 조익, 안민을 실현자 정치가 잠곡 김육이 그들이다.

책의 서문에 저자는 “해 아래는 새것이 없나니...”라는 구절로 지금과 다르지 않는 400년 전의 관료들의 민생고민을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이 책 이전에 대동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대동법 조선 최고의 개혁”을 펴낸바 있다. 민생정책의 틀이 된 대동법과 그 시행에 힘써왔던 경세가들의 이념을 함께 읽어도 좋을 듯 하다.

### 저자소개 / 이정철

고려대학교를 졸업, 같은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고전국역실의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조선후기 경제 변동의 새로운 성격 규정을 위하여』(『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조선시대 공물분정 방식의 변화와 대동의 語義』(《한국사학보》, Vol.34, 2009) 등의 글을 썼고, 『대동법, 조선 최고의 개혁』을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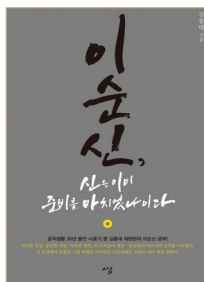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이런 생각이 그로 하여금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면서도, 스스로에게는 엄격히 절제했던 바탕이었다. (p. 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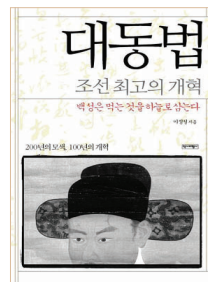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퇴계처럼  
김병일 | 2012



이순신, 신은 이미 준비를  
마치었나이다  
김종대 | 2012



대동법  
이정철 | 2010



# 오래된 서울

076

## 사서의 추천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서울에서 옛 흔적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여기 900년이나 된 오래된 서울을 역사와 지리학을 바탕으로 추적한 책이 있다.

서울학 창설의 주역인 최종현은 이 책 '오래된 서울'에서 서울의 원점을 고려 숙종이 지금의 서울인 남경에 행궁을 완공한 1104년이라고 밝힌다. 이어 현재 경복궁의 서북부 지역으로 남경행궁의 위치를 추정해 낸다. 또한 산과 물길을 기준 삼아 유적, 유물이 있던 자리를 찾아내고 그 의미를 살핀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것들이 바뀌고 도시의 모습이 달라졌어도 산봉우리와 물길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저자들은 이 책을 발로 쓴 책이라고 말한다. 그러니 함께 나서보자. 시야를 가리는 빌딩과 북개천을 지우고 하늘과 산과 길, 그리고 물길을 따라 옛 흔적을 찾아보자. 수백 년 전 조상들이 걸었던 길을 걸으면 자연스레 과거와 현재가 함께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 저자소개 / 최종현, 김창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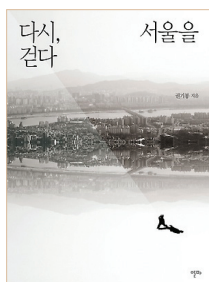
**최종현** - 2011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직에서 정년퇴직한 뒤 사단법인 통의도시연구소를 설립하여 '한국 전통건축에서의 정면성', '한국 도시의 입지와 구조', '옛길에서 만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등의 연구주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김창희** - 동아일보와 프레시안에서 20여 년 언론인 생활을 했다. "서울 정도 600년"과 관련된 기사를 준비하던 1992년 최종현 교수와 처음 만났으며 오래된 서울이 공동작업의 첫 결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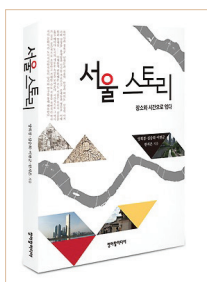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길은 그렇게 우리의 인식 수준을 훌쩍 뛰어넘어 세월을 가로지른 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있는 것이다. (p.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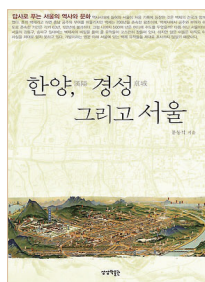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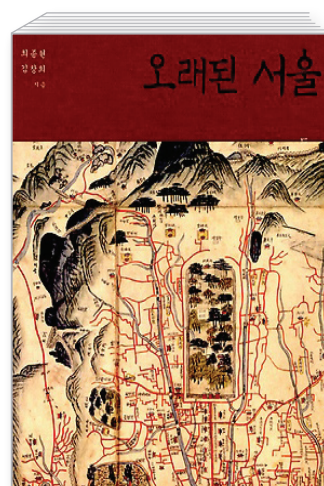
다시 서울을 걷다  
권기봉 | 2012



서울 스토리  
양희경, 심승희, 이현군,  
한지은 | 2013



한양 경성 그리고 서울  
문동석 | 2013



최종현, 김창희 지음 디자인 커서  
2013

## 왕의 서재

### 사서의 추천글

우리는 남겨진 기록을 통해 옛 사람들의 모습을 들여다본다. 그러면, 옛 사람들 중 한 나라를 다스리는 리더였던 '왕'들은 어떤 책들을 읽었을까.

『왕의 서재』는 그 제책답게 이러한 호기심을 해소해준다. 하지만 이 책은 단지 왕이 읽은 책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왕들이 그 책들을 통해 통치에 필요한 지식을 쌓고 신하들과 토론하는 장면들을 사료를 통해 생생하게 담아낸다. 또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학문을 사랑하고 훌륭한 임금으로 꼽히는 조선의 세종과 정조의 학습과 토론장면을 통하여 닮았으면서도 달랐던 두 임금을 비교해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

책의 말미에는 제왕학의 교재로 사용되었던 수많은 책들에 대한 소개를 곁들이고 있어 간략한 '고전 해제목록'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다.

### 저자소개 / 소준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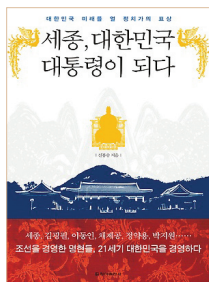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를 졸업하고 중국 상하이 푸단 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는 국회도서관 조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중국을 말한다』, 『사마천 경제학』, 『직접민주주의를 허하라』, 『제국의 부활 : 중국의 슈퍼파워와 21세기 패권』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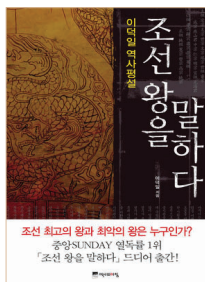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세종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냥 대충 얼버무리는 법이 결코 없었다. 반드시 고금의 각종 서적을 통하여 연구, 조사하고 현실에 맞춰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렇게까지 해도 끝내 마땅한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심지어 중국에 자문을 구하여 결정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다. (p. 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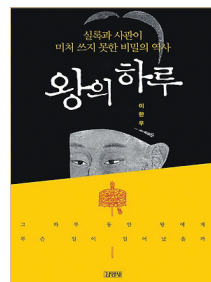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



세종,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다  
신봉승 | 2012



조선 왕을 말한다(1권, 2권)  
이덕일 | 2010



왕의 하루  
이한우 | 2012

소준섭 지음 어젠다 2012

# 제국의 탄생과 몰락

## 사서의 추천글

『제국의 탄생과 몰락』은 중국의 다큐전문채널 CCTV9에서 2011년 방영되었던 다큐 《제국의 흥망성쇠》를 재구성한 책으로 중국최초의 통일제국인 진한제국의 탄생과 멸망의 역사를 담고 있다. 제1장 제국의 탄생, 개혁의 원동력이 된 토지제도, 제국의 몰락 등 5장의 목차로 나누어 진한사의 변천과정을 경제정책의 중점으로 설명한다.

난세를 지배하며 진제국을 탄생시킨 진시황제의 강력한 군현제의 실현과 황제의 죽음으로 급격히 쇠락하는 진제국의 멸망과 그 뒤를 잇는 항우와 유방의 왕좌의 전쟁 등 우리에게도 친숙한 중국의 부흥시대를 들여다 볼 수 있다.

이 책은 고대 중국으로의 여행을 흥미롭게 안내해주며 지금의 중국의 기반이 되는 한족에 대해 알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저자소개 / 김원동

1995년 중앙대학교 중국어과를 졸업, 그해 12월 중국한화멀티미디어 베이징대표처의 주재원으로 활동함. 한국이브릿지컴 중국대표처 수석대표, 한국미지원엔터테인먼트 중국대표처 수석대표를 거쳐, 현재 아시아홈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로서 재직중이다. 18년째 중화권 미디어콘텐츠 관련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는 2011년 2월 다큐 '제국의 흥망성쇠'의 다큐를 원작으로 수십 권의 역사서와 역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완결성을 갖춘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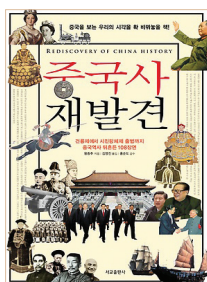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제국의 흥성에는 언제나 절묘한 타이밍에서 인물과 사건이 정말 우연처럼 만나 드라마 같은 결과를 낸다는 공통점과 항상 거기에는 그를 뒷받침하는 설득력 있는 조연과 다양한 환경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p.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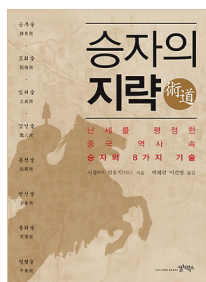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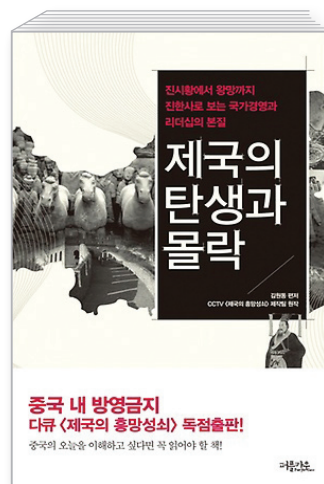
중국의 역사  
이유진 지음 | 2013



중국사 재발견  
왕충주 | 2012



승자의 지략  
임호지 | 2012



김원동 편저 피플카우 2013

## 조선 사람의 조선여행

### 사서의 추천글

조선시대 사람들도 수학여행을 갔을까? 왕세자의 여행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조선 사람의 조선여행』은 '여행'이라는 창을 통해 조선시대를 들여다본다. 책에서 다뤄지는 이야기는 즐거운 마음으로 다른 고장을 돌아보는 일상적 여행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사회적 관습, 경제상황 등 다양한 시대상도 함께 보여준다. 열세 가지의 각기 다른 여행을 통해 풍성한 읽을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저마다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축적해온 연구자들이 집필을 맡아 역사적 사실성을 높였다.

책을 읽으며 과거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 여행이 벌어진 시대의 역사를 돌아보며 지금껏 익숙한 때나 장소와는 전혀 다른 공간을 경험 할 수 있다. 여행에서 얻는 즐거움과 지혜의 양은 언제나 여행자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한다. 조선으로의 시간여행을 통해 색다른 여행의 맛을 느끼고 인생의 여유와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엮음
- 글항아리 2012

### 저자소개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6년 2월 1일 서울대학교 규장각과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가 통합되어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으로 재설립 되었다. 기존 규장각과 한국문화연구소가 가지고 있던 조직과 기능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규장각 소장 자료의 보존·관리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출판·교육·보급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책 속 한 문장

天下江山(천하 강산)은 크고,古今(고금) 세월은 길구나. (p. 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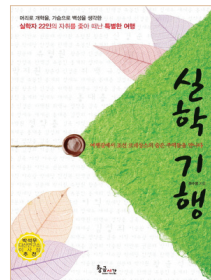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세상 사람의 조선여행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2012



조선 사람의 세계여행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2011



실학기행  
권수영 | 2011



## 조선의 왕비로 살아가기

### 사서의 추천글

조선왕조 500년 동안 27명의 왕과 42명의 왕비 중 태조 이성계부터 순종까지 왕들 대부분은 우리의 기억 속에 존재한다. 반면 조선의 왕비에 대해서는 드라마 사극이나 소설 속에서 보았던 문정왕후, 인현왕후, 정순왕후, 명성왕후 정도일 것이다.

『조선의 왕비로 살아가기』는 왕비의 간택과 책봉에서부터 출산, 수렴청정, 독서와 글쓰기, 왕실 외척과의 관계, 궁중 여성들과의 관계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평범한 여자로서의 삶이 아닌 철저히 정치적인 삶을 살았던 조선왕비의 이야기를 다룬다.

왕의 여자인 왕비가 되고, 왕의 어머니가 되며, 때로는 왕을 대신하는 정치인까지도 되었던 조선의 왕비들.. 국모로서 그녀들의 삶은 왕과 후계자의 흥망성쇠에 따라 크게 좌우되었다. 여성의 일생으로 보자면 그리 평온하거나 행복한 삶은 아니었지만, 그러한 삶이기에 더 알고 싶어지고 더 궁금하다.

### 저자소개 / 심재우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고, 서울대학교 규장각 조교와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를 거쳐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논저로 『내 죄를 고하여라』,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공저), 『조선의 왕으로 살아가기』(공저) 등이 있다.

### 책 속 한 문장

왕조 국가인 조선에서 왕은 최고의 지존이자 최고 권력자였으며, 왕의 부인인 왕비는 조선의 여성 가운데 절대권력의 중심부에 위치한 여성이었다. 때문에 조선의 왕비를 이 시대의 다른 여성들처럼 단순하게 이해해선 곤란하다. (p. 16)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조선의 숨겨진 왕가이야기  
이순자 | 2013



조선의 세자로 살아가기  
심재우 외 | 2013



왕들의 부부싸움  
이성주 | 2013



심재우 등 지음 ● 돌베개 ● 2012





081

## 1945, 철원

이현 지음 창비 2012

### 사서의 추천글

1945년 8월15일,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조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당시의 청소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꿈을 꾸었을까. <1945, 철원>은 해방을 소재로 역사의 격랑에 휩쓸렸던 청소년들을 그린 장편소설이다. 친일 세력이 집에서 종살이하던 경애, 신분주의를 버린 공산주의자 도련님 기수, 콧대 높은 양반집 딸 은혜, 경성 출신 모던보이 제영 등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요즘 청소년들의 이야기에 사회 문제를 절묘하게 녹여냈던 저자 이현은 이 책을 통해 광복 전후의 철원으로 시선을 돌려, 같은 민족이라도 나이, 신념, 계급에 따라 광복의 의미가 달랐던 그들의 삶을 섬세하고 묘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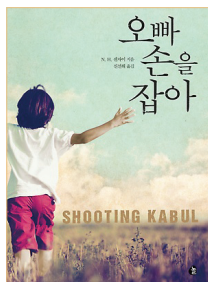
### 저자소개 / 이현

동화는 『짜장면 불어요!』, 『장수 만세!』, 『로봇의 별』, 『오늘의 날씨는』, 『마음대로봇』, 청소년 소설에 『우리들의 스캔들』, 『영두의 우연한 현실』, 『오, 나의 남자들!』, 『1945, 철원』이 있다. 제13회 전태일문학상, 제10회 창비 좋은 어린이책 대상, 제2회 창원문학상을 수상했다.

### 책 속 한 문장

인민서점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다. 새 삶이었다. 배롱나무 집 계집종도, 만가대 소작인 강씨네 딸도 아닌, 강경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 (p.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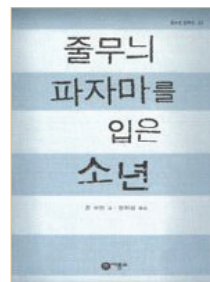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



오빠 손을 잡아  
N. H. 센자이 | 2013



별을 헤아리며  
로이스 로리 | 2008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  
존 보인 | 2007

## 사서의 추천글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남학생 '해일',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비밀이 많아 보인다. 그리고 좀처럼 가까워지기 힘든 타입이다. 사실 주인공 '해일'은 어릴 적 울보 소년이었다. 어쩌나 울었던지 선생님은 수업시간에도 울고 있는 '해일'을 교실 밖으로 내쫓고 혼을 냈다. 그 뒤로 '해일'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마음속에 높다란 벽을 쌓았고 그 안에 갇혀 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해일'에게 그 벽을 허물고 들어오는 친구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단 한 번도 꺼내놓지 않았던 마음속의 가시를 이야기한다. 사실 그 고백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지만, 그 고백을 통해 자신을 더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다. 누구나 마음속에 가시 하나쯤은 가지고 산다. 그리고 그 가시는 나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못나 보이게 만든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가시가 있다고 해서 정말 내가 못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마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가시가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만일, 그 가시 때문에 괴롭다면, 혼자 품고 숨기기보다는 가까운 누군가에게 고백해 보길 바란다. 그러면 그 가시가 오히려 생과 마주할 힘을 키워주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 저자소개 / 김려령

서울예술대학에서 문예창작을 공부했다.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 마해송문학상, 창비 청소년문학상을 수상했다. 첫 소설 『완득이』가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독자까지 아우르며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영화로도 만들어져 다시 한 번 주목받았다. 대표 작품으로 『우아한 거짓말』, 『내 가슴에 해마가 산다』, 『기억을 가져온 아이』, 『요란요란 푸른아파트』, 『그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가 있다.

## 책 속 한 문장

'지원'과 별 차이도 없는데 이놈의 '쿨'은 뭔가를 강요하는 면이 있었다. 쿨하지 않으면 웬지 촌스럽고 질척한 인간처럼 만드는 요상한 말이었다. (p. 143)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시간을 파는 상점  
김선영 | 2012



우리들의 짹조름한 여름 날  
오채 | 2011



우아한 거짓말  
김려령 | 2010



083

## 과학, 10월의 하늘을 날다

정재승 등 지음 ● 청어람미디어 ● 2012

### 사서의 추천글

‘10월의 하늘’은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중소도시 도서관에서 청소년을 위한 과학 강연을 하는 것이다.

강연에 참여한 사람들은 과학이 주는 즐거움과 경이로움을 청소년들에게 전달하고, 그 만남 속에서 청소년들이 과학에 대해 꿈 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 책은 두 번째 ‘10월의 하늘’에서 열린 주요 강연들을 엮은 책이다. 이 책에는 과학자들의 상상연구소 두근두근 상상하기, 과학자들의 서재 와글와글 읽고 쓰기, 과학자들의 카페 콩닥콩닥 만나기, 과학 해부실험실 살금살금 다가가 만져보기, 과학 야외실습실 폴짝폴짝 뛰어오르기라는 흥미로운 제목으로 재미있는 강연들을 그대로 실고 있다.

행사의 명칭이자 이 책의 제목인 ‘10월의 하늘’은 탄광촌 소년 호머 허컴이 로켓 과학자의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 <October Sky>에서 가져왔다. 이 책을 읽고 올해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10월의 하늘’을 계획해 보고, 미래의 꿈도 설계해 보기를 바란다.

### 저자소개 / 정재승 등

‘10월의 하늘’은 2010년부터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리는 강연으로 이 책은 두 번째 ‘10월의 하늘’에서 열린 주요 강연을 엮은 책이다.

MBC 드라마 PD 김민식, 카이스트 교수 정재승, 서울이태원초등학교 교사 박연준, ‘하리하라’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칼럼니스트이자 생물학자 이은희, 소설가 김탁환, 엔씨소프트 대표 김택진 등 16명의 저자가 참여하고 있다.

### 책 속 한 문장

무심히 떨어지는 사과를 ‘들여다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처럼, 달팽이집의 나선형 모양을 ‘들여다보고’ 건축물로 승화해낸 스페인의 건축가 가우디처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들여다봄’으로써 우리는 창의력을 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p. 52)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심해, 별과 우주를  
사색해야 하는 이유  
이광식 | 2013



과학 24시  
이은희 글, 김명호 그림  
| 2012



과학콘서트  
정재승 | 2011

084

## (중학생 토론학교) 교육과 청소년

한국철학교육연구원 지음 ● 우리학교 2012

### 사서의 추천글

현재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에서 중학생으로 산다는 일에 대해 많이들 생각해봤을 것이다. 이 책은 '학교는 왜 다녀야 할까?', '왜 시키는 대로 공부해야 할까?', '학교에서 폭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등 교육과 청소년의 일상을 둘러싼 일곱 가지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토론을 통해 진정한 학교의 의미를 찾도록 이끌어주는 책이다. 찬성과 반대 입장을 동일한 무게로 각각 제시하여, 두 입장에서 과연 어떤 입장이 옳은지 내 입장은 또한 무엇인지 고민해 볼 수 있다. 이 책은 학교가 얼마나 무너지고 어떻게 망가졌는지 고발하는 대신, 아이들 스스로 학교에 대해 물음을 던지게 함으로써 즐겁게 공부하고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내도록 안내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친구들이나 부모님과 함께 직접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되어 글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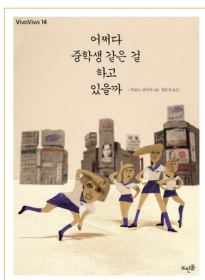
### 저자소개 / 한국철학교육연구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철학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는 모임이다. 국내외 관련 자료들을 연구하면서 우리 토양에 어울리는 철학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초·중등 철학캠프 '철학마당'을 열어 학생들을 만나는 한편 철학 교사를 위한 다양한 연수도 펼치고 있다. 『생각의 높이를 키우는 초·중등철학교과서 1~4』를 함께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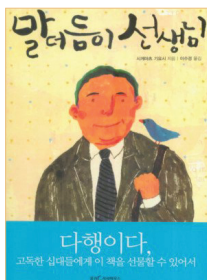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만약 시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공부를 하지 않아 실력 향상도, 발전도 없고, 밝은 미래도 사라져 버릴까요? 남과 경쟁하지 않고 시험없이 즐겁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걸까요? 시험을 꼭 봐야 할까요? (p.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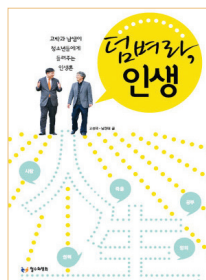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



어쩌다 중학생 같은 걸 하고 있을까  
쿠로노 신이치 | 2012



말더듬이 선생님  
시게마츠 기요시 | 2009



덤벼라, 인생  
고성국, 남경태 | 2012





085

## 그치지 않는 비

오문세 지음 ● 문학동네 ● 2013

## 사서의 추천글

19살의 한 남학생이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선다. 애 띠 얼굴에는 뭔가의 사연이 있어 보이는데 섬세한 사람이 아니고선 그것을 알아채진 못할 것이다. 그의 곁에는 누군가가 있다. 19살의 남학생은 그를 ‘형’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형’의 정체가 이상하다. ‘형’은 19살의 남학생이 오롯이 혼자 있을 때만 나타난다. 그렇다, 그는 이 세상에서 숨 쉬며 사는 산 사람은 아닌 것이다. 이 책은 19살의 남학생이 죽은 ‘형’과 함께 여행을 하는 이야기이다. 계획 없이 세상을 떠도는 것을 ‘여행’이라고 불러도 되는 지 의문이지만, 19살의 남학생은 ‘가출이 아닌 ‘여행’임을 힘을 주어 이야기한다. 그리고 여행길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추억을 쌓는다. 그리고 깨닫는다. 그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비도 언젠가는 그치고, 삶을 살아가며 앞으로 나아간다는 건 과거에 휘둘리지 않는 것임을. 19살이라는 나이는 끊임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상당수의 것들이 기억되었다가 잊히고 또 그것이 반복됨을 깨닫기 시작하는 나이인 것 같다.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도 별반 다를 것 같지 않다면 19살의 한 남학생을 만나볼 것을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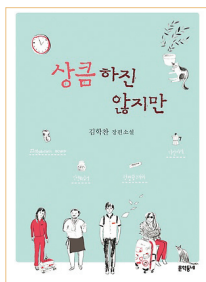
## 저자소개 / 오문세

한신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다양한 장르의 소설과 음악, 영화와 게임을 좋아한다. 음악을 만들고 녹음하는 게 취미이다. 2007년부터 영화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올리면서 ‘밤상 엮고 영화에게 이단열차기’라는 블로그를 운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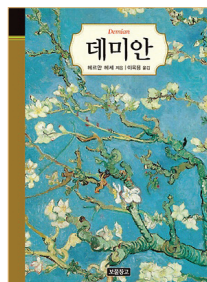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기회는 무의미한 사후 평가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것을 미리 알아차리고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거기에 목을 맨다. 반드시 잡아야 하는 기회이면에는 언제나 끈적거리는 속임수의 높이 도사리고 있다. (p. 62)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상큼하진 않지만  
김학찬 | 2012



데미안  
헤르만 헤세 | 2013



조용한 식탁  
이병승 외 | 2013



086

# 나는 랄라랜드로 간다

김영리 지음 푸른책들 2012

## 사서의 추천글

이 책은 시도 때도 없이 잠이 찾아오는 '기면증'을 소재로 하고 있는 소설로 느낌이 참 신하다.

주인공인 열일곱 살 남학생 용하는 기면증 환자인데다 빛보증 때문에 풍비박산 난 집안, 그 바람에 뿔뿔이 흩어져 살다 이모할머니의 유산으로 겨우 가족이 함께 살게 된 환경에 처해 있다. 게다가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만만찮다. 그런 용하에게 현실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다름 아닌 '바-트(비밀노트)'라고 이름 붙인 일기장이다. 하루 하루의 기록을 담은 일기장을 통해 전개되는 용하의 이야기는 눈물겨우면서도 한편으로 유쾌하다. 작가는 청소년기에 오직 공부에만 매진하다가 어른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하늘과 땅이 바뀌지 않는다고, 공부도 중요하지만 여러 소중한 체험들을 통해 자신만의 랄라랜드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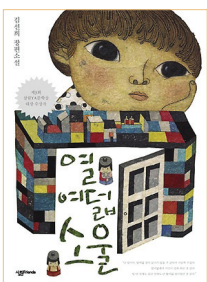
## 저자소개 / 김영리

1983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2012년 첫 소설 『나는 랄라랜드로 간다』로 제10회 푸른문학상 '미래의 작가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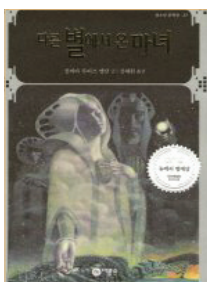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다. 아무래도 내 잘못된 것 같다. 애당초 이런 쪽팔리는 병에 걸린 내 잘못이다. 하루하루가 짜증 난다. 인생을 통째로 빨리감기 해서 그냥 결말만 보고 싶다. (p. 31)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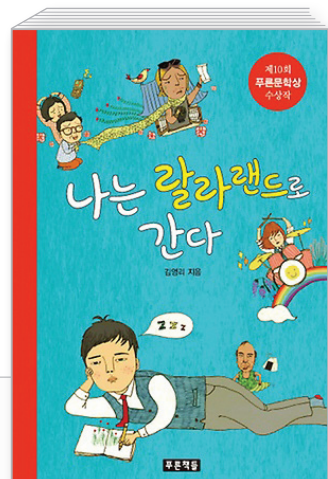
열여덟 소울  
김선희 | 2013



다른 별에서 온 마녀  
실비아 루이즈 엔달 | 2008



괴물 선이  
박정애 | 2013



이 책은 시도 때도 없이 잠이 찾아오는 '기면증'을 소재로 하고 있는 소설로 느낌이 참 신하다.

주인공인 열일곱 살 남학생 용하는 기면증 환자인데다 빛보증 때문에 풍비박산 난 집안, 그 바람에 뿔뿔이 흩어져 살다 이모할머니의 유산으로 겨우 가족이 함께 살게 된 환경에 처해 있다. 게다가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만만찮다. 그런 용하에게 현실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다름 아닌 '바-트(비밀노트)'라고 이름 붙인 일기장이다. 하루 하루의 기록을 담은 일기장을 통해 전개되는 용하의 이야기는 눈물겨우면서도 한편으로 유쾌하다. 작가는 청소년기에 오직 공부에만 매진하다가 어른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하늘과 땅이 바뀌지 않는다고, 공부도 중요하지만 여러 소중한 체험들을 통해 자신만의 랄라랜드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제10회 푸른문학상 수상작

김영리 지음

푸른책들

2012년 7월 27일 출간

100쪽

11,000원

087

## 나는 어떤 집에 살아야 행복할까?

● 고제순, 서윤영, 노은주, 이재성, 조광제, 손낙구 지음  
● 철수와영희 2012

### 사서의 추천글

이 책은 '나는 어떤 집에 살아야 행복할까?'라는 질문을 통해 집의 의미를 사람과 삶의 문제와 연관하여 찾아보려는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이 집을 경제적인 재산의 가치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이 책은 청소년들과 함께 역사적, 건축학적, 철학적, 사회적 측면에서 집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며 '나와 우리의 이야기를 만드는 공간인 집'을 만들기 위한 창의적이고 새로운 방법들을 찾고 또 제시한다.

이 책은 길담서원 청소년인문학교실에서 '집'을 주제로 강의한 내용을 묶은 것이다. 저자들은 우리를 둘러싼 가족이나 동네, 세계 등 모두가 집이 될 수 있기에 각자의 집 개념을 가능한 한 크게 넓혀 주변에 대한 공감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청소년들이 '나는 어떤 집에 살아야 행복할까?'라는 집에 대한 중요한 질문과 문제의식을 청소년기에 가지게 된다면 한국의 부동산 전망이 좀 더 밝아질 수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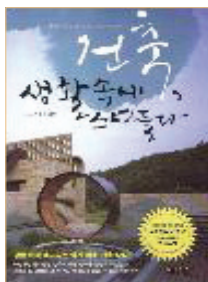
### 저자소개 / 고제순, 서윤영, 노은주, 이재성, 조광제, 손낙구

길담서원 청소년인문학교실은 2009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강의한 내용을 묶어 일, 몸, 돈, 밥을 주제로 한 책들을 발간했다. 집을 주제로 한 이 책의 저자는 '흙처럼 아쉬람' 흙집학교 교장 고제순, 건축 칼럼니스트 서윤영, 가온건축 소장 노은주, 길담서원 학예실장 이재성, 철학아카데미 운영위원 조광제, '10대와 통하는 부동산'저자 손낙구이다.

### 책 속 한 문장

사람이 사는 집은 '지구'라는 큰 집을 구성하는 세포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지구라는 생명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집이 건강하면 지구도 건강하지만 좋지 않은 에너지를 뿜어내면 지구는 아플 수밖에 없어요. (p. 40)

###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



건축, 생활 속에 스며들다  
조원용 | 2010



건축 콘서트  
이영수 외 12명 | 2010



세상을 담은 밥 한 그릇  
주영하, 송기호, 문성희, 이명연,  
박성준, 정대영, 김은진 | 2013

088

## 두려움에게 인사하는 법

김이윤 지음 창비 2012

### 사서의 추천글

머리에 꽃을 꽂은 소녀의 발그레한 얼굴, 결의에 찬 듯 굳게 다문 입술. 책표지에 실린 주인공 '여여'의 모습 속에는 소녀의 어린 모습과 단단한 자아가 함께 섞여 있는 듯하다. '여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주인공 '여여'는 평범한 여고생이다. 다만, 아빠가 없고 엄마가 아플 뿐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덤덤하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내 책을 읽다 보면, '여여'의 깊은 곳에 숨어있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슬며시 전해진다. 우연히 알게 된 아빠의 존재, 암 투병으로 무너지는 엄마의 뒷모습, 좋아하던 선배와 헤어진 후 견뎌내야 할 이별의 시간 등 '여여'에게겐 극복해야 할 것들이 많다.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이겨내는 모습이 안쓰럽지만, 상처를 딛고 여물어가는 '여여'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도 강해지는 기분이 든다. 결국 '여여'는 두려움 속에서 불빛을 찾아내고 그 불빛을 따라 인생의 길을 걷는다. 그 불빛을 발견한 '여여'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 낼 희망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두려움이란 것은 희망을 찾는 단서일지도 모르겠다. 여러분도 '여여'처럼 두려움에 직면한 시간이 왔을 때, 두려움 속에 숨겨진 희망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

### 저자소개 / 김이윤

1964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이화여대 교육학과와 같은 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쳤다. 2012년 현재 MBC 라디오 「여성시대」 방송 작가로 활동 중이다. 『두려움에게 인사하는 법』으로 제5회 창비청소년문학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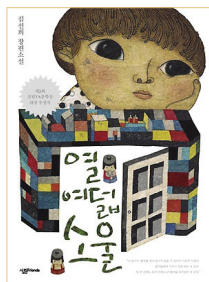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아무리 세계 넘어져도 나를, 나의 삶을 놓지 않을 것이다. (p. 174)

###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



특별한 배달  
김선영 | 2013



열여덟 소울  
김선희 | 2013



불량가족 레시피  
김중미 | 2011





089

## 생각해 봤어?

홍세화, 배병삼, 박경미, 김동춘, 고병권, 강양구, 강신주, 강명관 지음  
교육 공동체 벗 2012

### 사서의 추천글

이 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렸던 인문학 강연을 엮은 책이다. 심상치 않은 책 제목에서 예상을 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책을 읽고 나면 머리 속이 복잡해질 수 있다.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일들이 의심스러워지고,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스스로 생각하기'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이다. 책 속의 한 강연자는 '감수성이 확장되는 청소년기에, 다양한 질문을 통해 자기 생각을 만들어가기도 바쁜 시기에, 왜 우리나라 학생들은 끊임없이 암기만 하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지식을 습득한다. 그런데, 그 중 스스로 질문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면 절망스럽게도 거의 없는 것 같다. 사실 교과서의 지식을 왜 배워야 하는지조차 의심하지 않고 머리 속에 집어넣는다. 생각 없이 사는 게 속 편할 수 있지만, 한번쯤은 스스로 '왜', '나는',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지', 의심해 봐야 하지 않을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시작할 용기가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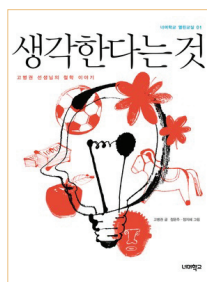
### 저자소개 / 홍세화 등

이 책은 8명의 강연을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것으로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고병권, 박경미, 강신주, 배병삼 저자가 '동서양 고전에서 배워야 할 삶의 철학과 공부의 논리'와 '질병과 죽음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이야기한다. 2부에서는 홍세화, 강명관, 김동춘, 강양구 저자가 '비주체성을 통해 본 사회적 정체성의 문제'와 '기업사회의 병리 현상과 핵에너지의 진실'을 이야기한다.

### 책 속 한 문장

'왜?'라는 질문이 죽은 사회, 이제 바로 열린 토론이 불가능한 사회입니다. 논리의 추구가 죽은 사회, 합리성의 추구가 죽은 사회, 토론 문화가 죽은 사회입니다. (p. 155)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생각한다는 것  
고병권 | 2010



나(청소년, 철학과  
사랑에 빠지다)  
고규홍 외 | 2012



소통을 꿈꾸는 토론학교  
김범목, 윤용아 | 2011

090

## 수상한 화가들

● 박석근 지음 ● 사계절 출판사 ● 2012

### 사서의 추천글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에 폭 빠져 화가의 꿈을 키우게 된 주인공 철우. 하지만 언젠가부터 철우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그림을 그리게 되고 점점 미술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게 된다. 철우도 '대학입시'라는 압박감에 고달픈 어쩔 수 없는 대한민국의 청소년이다. 그러던 어느 날 철우는 수상한 화가들을 만나고 그 화가들에 이끌려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게 된다. 그리고 고대, 중세,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간 여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양미술사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배우고 느끼게 된다. '라오콘 군상'의 발굴을 지휘하는 '미켈란젤로'부터 '아비뇰의 여인들'을 그린 '피카소'까지 다양한 화가들을 만나며 미술작품 속에 담긴 더 큰 세계를 보는 안목을 키우게 된다. 여름방학, 많은 청소년이 철우와 시간 여행에 동행하며 작품에 숨겨진 의미를 찾고 즐거웠다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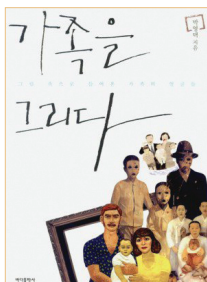
### 저자소개 / 박석근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에서 미학 관련 지식을 공부했고, 예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삼십대 초반에 『문학사상』 신인상에 '전망 좋은 집'이 당선되어 작가 생활을 시작했다. 작품으로 『외로운 사람들은 바다로 간다』, 『숨비소리』, 『남자를 빌려 드립니다』 등이 있다.

### 책 속 한 문장

중세 예술가들은 사실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느낌대로 색깔을 입혔어. 때문에 자연의 색채와는 다르게 칠할 수 있었지. 현대 미술이 자랑하는 색채의 해방은 중세 미술이 먼저 이룬 것일 수도 있어. (p. 58)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가족을 그리다  
박영택 | 2009



그림 속에 노닐다  
오주석 | 2008



우리미술 블로그  
고미숙 | 2010





091

## 식탁 위의 세계사

이영숙 지음 창비 2012

### 사서의 추천글

감자, 빵, 옥수수, 바나나, 포도... 평범해 보이는 이 음식들에 인류의 흥망성쇠를 가르는 어마어마한 세계사가 숨겨져 있다. 그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이 책을 읽어 보길 권한다. 이 책은 교과서처럼 고대사부터 시작되는 암기 투성이 역사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음식들을 소재로 펼쳐지는 달콤쌉쌀한 역사책이다.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햄버거와 환상의 콤비를 이루는 프렌치프라이. 그런데 이 프렌치프라이가 이름이랑 어울리지 않게 아일랜드의 역사를 뒤흔든 서민들의 음식이었다고 한다. 프렌치프라이의 재료인 감자는 부자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가난했던 아일랜드 사람들은 일년 내내 감자로 주린 배를 채웠다고 한다. 하지만 이 감자로 인해 아일랜드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감자 뿐 아니라 이 책에 담긴 음식에는 각각의 사연이 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별생각 없이 먹었던 음식들이 새롭게 보일 것이다. 한가한 휴일, 방바닥에 누워 읽어도 술술 읽힐 맛있는 책이기에 모든 청소년에게 일독을 권한다.

### 저자소개 / 이영숙

1967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연세대학교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 명덕외국어고등학교와 필리핀 사우스빌 국제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다. 『식탁 위의 세계사』는 제2회 창비청소년도서상을 수상한 원고로, 작가의 첫 책이다.

### 책 속 한 문장

저는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의 음식과 재료들에도 온 세계가 들어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식탁에 오르는 재료들과 관련된 역사, 그 음식들이 환기하는 사건과 인물들만 짚어 보아도 정말 다채롭고 풍성하다는 것을 느껴요. (p.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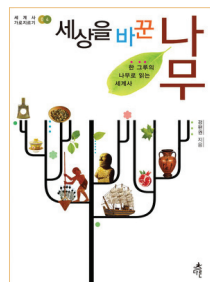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라이벌 세계사  
고병권 | 2006



그들의 무덤은 구름 속에  
아네트 비비오르카 | 2009



세상을 바꾼 나무  
강판권 |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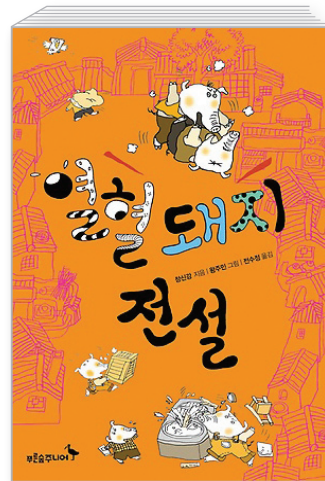
092

## 열혈 돼지 전설

창신강 지음, 왕주민 그림 푸른숲 2012

## 사서의 추천글

돼지 마을 '다탕'에 사는 돼지 가족 10명의 이야기이다. 책 제목에서 언뜻 떠오르는 생각으로는 조금은 우스꽝스럽고 재미있는 이야기일거라 생각했지만 자살, 폭력, 가출 등 무거운 소재들로 읽을수록 우리 사회의 면면을 보여주고 있다. 말이로써 책임감이 강하고 스스로 꿈을 꾸는 첫째, 침울한 성격에 자폐 성향이 있어 바깥세상과 거의 접촉을 하지 않고 지내는 둘째, 너무 뚱뚱해서 몸을 움직이는 일 자체가 고역인 셋째, 돼지 가족을 통해 우리 주변의 인물들을 만날 수 있다. 어느날 마을에 들어온 인간들이 비싼 값으로 진귀한 물건을 싸쓸이하고, 순진한 돼지들을 살살 꼬드겨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등 여태 경험하지 못했던 낯선 사건들로 돼지 가족에게 연이은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 돼지가족은 연이은 불행한 사건들을 헤치고 위기를 극복하여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된다.



## 저자소개 / 창신강

1957년 중국 톈진에서 태어났다. 중국 작가 협회 전국 우수 아동 문학상을 세 차례나 수상하고, 황중원 문학상과 쑹칭링 아동 문학상을 휩쓰는 등 탁월한 문학성을 두루 인정받았다. 대표작으로 『열혈 수탉 분투기』, 『타구왕 룡산』, 『나는 개입니까』, 『파란 수염 생쥐 미라이』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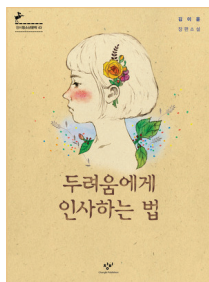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너, 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누가 돼지 주둥이를 갖고 싶겠어? 몸집이 뭐 어떻다고? 그리고 달리기를 못 해? 우리 아빠가 너희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친 모양이구나? 잊지 마, 넌 돼지야! 네가 아무리 많이 배운다 해도 넌 결국 돼지란 말이야! (p. 150)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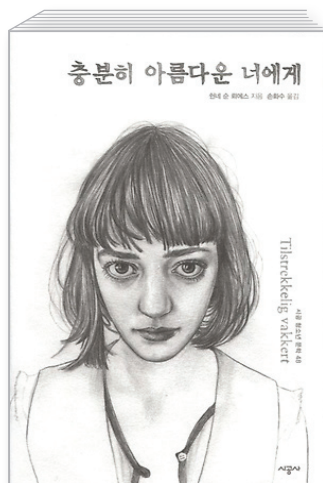
시간을 파는 상점  
김선영 | 2012



두려움에게 인사하는 법  
김이윤 | 2012



개 같은 날은 없다  
이옥수 | 2012



093

## 충분히 아름다운 너에게

☎ 선네 순 뢰에스 지음 🎨 시공사 📅 2012

### 사서의 추천글

이 책은 17살 두 소녀가 서로에게 꼭꼭 눌러 담았던 상처를 들춰 보이며 치유하는 과정이 담긴 편지형식의 소설이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살고 싶은 미혼모 요한네와 우울증에 걸려 생을 등지려는 제니, 극과 극에 선 그들은 한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70여 통의 편지를 주고받으며 친구가 되는 이야기이다. 17살 미혼모 요한네는 불치병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우울증 환자인 제니는 몇 차례 자살을 시도했을 만큼 간절하게 죽기를 원한다. 살고 싶은 요한네와 살기 싫은 제니는 편지를 주고받으며 차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저자는 한국 독자들을 위해 쓴 서문에서 “아름다운 삶이란 불완전하고 덧없을지 몰라도 순수하고 진실한 삶에서 각자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라며 “내겐 요한네와 제니의 삶 모두 아름답다”고 이야기한다. 이 책을 통해 청소년들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이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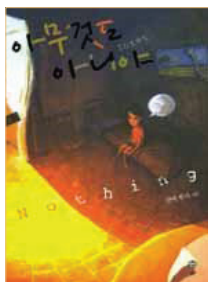
### 저자소개 / 선네 순 뢰에스

1975년 서울에서 태어나 생후 7개월에 쌍둥이 오빠와 함께 노르웨이로 입양되었다. 1999년 『요코는 홀로』를 발표하며 작가로 등단했다. 4년간 정신과 병동 간호사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장편소설 『아침으로 꽃다발 먹기』로 2002년 노르웨이 도서상 재단이 수여하는 브라게 문학상을 수상했다. 지금은 베르겐에서 의료 경영과 의학 경제를 전공하며 작품을 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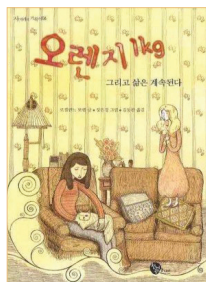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아마 난 계속 살거야. 적어도 살기 위해 노력해 볼 거야. 삶을 모두 경험하지도 못하고 지금 죽어 버리면 너무 허무할 것 같지 않니? 그래, 계속 살거야. 살아보기로 결심했어. 자전거를 타 봐야 겠어. 네가 그리워. (p. 219)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아무것도 아니야  
안네 텔러 | 2008



오렌지 1KG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  
로젤린느 모렐 | 2008



나는 죽지 않겠다  
공선옥 | 2009

094

## 프리캣

● 존 블레이크 지음 ● 사계절출판사 ● 2012

### 사서의 추천글

어느 한 도시에 사는 평범한 소녀 제이드, 하지만 제이드가 사는 도시는 평범하지 않다. 대기업과 국가의 통제로 국민들은 마치 언론의 노예처럼 살고 있다. 게다가 이 국가에선 알 수 없는 고양이 독감 바이러스가 퍼져 길고양이들은 모두 사살되었다. 고양이를 기를 수 있는 건 막대한 부를 가진 상류층뿐이다. 어느 날, 주인공 소녀 '제이드'는 자신의 집 정원에서 우연히 길고양이 한 마리를 만난다. 그리고 어떤 위험에 부딪히더라도 이 고양이를 지켜주기로 결심한다. 그때부터 국가와 대기업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고양이를 지키기 위한 험난한 사투가 시작된다. 그 과정에서 이 평범한 소녀는 비범한 소녀로 탈바꿈한다. 비록 어머니의 죽음, 사회에 대한 배신감, 여론몰이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들로부터 큰 상처를 받지만, 자신의 상처에 아파하기보다는 상처를 딛고 부조리한 사회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시련을 이겨낸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전율 넘치는 영화 한 편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든다. 박진감 있는 빠른 전개가 긴장감을 주어 읽는 도중에 책장을 덮기가 어렵다. 여름날, 무더위로 삼사리 잠이 들지 않는다면 이 책을 읽어보면 좋겠다. 무더위에 지친 마음이 해소되는 기분이 들 것이다.

### 저자소개 / 존 블레이크

1954년 영국 버크셔 주에서 태어났다. 아동·청소년 작가로 활동하며 지금까지 50여 권이 넘는 작품을 발표했다. 문학뿐만이 아니라 텔레비전과 라디오 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활발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 독창적인 소재와 날카로운 유머, 감칠맛 나는 문장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2008년 사회 시스템에 관한 도발적인 문제의식을 담은 청소년소설 『프리 캣』을 출간해 영국 문단과 독자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 책 속 한 문장

필라 없이 산다는 건, 나에겐, 아예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크리스를 만나고 함께 필사적인 모험을 해내기 전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무관심한 채로 살아가는 일은 바이아파라 회사에 의해 조종되는 애완용 인간으로 사는 것이 틀림없으니까. (p. 322)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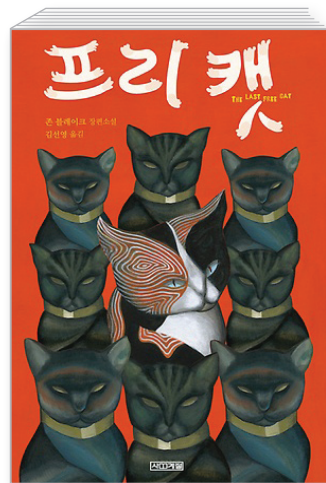
피그말리온 아이들  
구병모 | 2012



손톱이 자라날 때  
방미진 | 2010



위저드 베이커리  
구병모 | 2009





095

## 피그보이

비키 그랜트 지음 미래M&B 2013

### 사서의 추천글

돼지얼굴이 그려진 봉지가면을 쓴 아이가 서있다. 짙 마른 몸매에 하얀색 삼각팬티를 입고 서있는 아이. 그 위로 몽둥이를 들고 있는 커다란 그림자가 보인다. 위협적이지만 아이는 더이상은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꿈쩍도 하지 않을 기색이다. 피그보이는 책표지만으로도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지만 굴하지 않을거라는 느낌을 준다. 이 소설은 학교에서 왕따인 열네 살 소년이 무시무시한 사건에 휘말렸다가 재치와 용기로 반 친구들을 구하고 학교 영웅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담은 청소년소설이다. 짧은 이야기의 책이지만 신기하게도 왕따인 소년의 마음이 잘 이해가 가고 통쾌하게 느껴진다. 또한 흔한 소재의 이야기이지만 뒷이야기가 궁금해진다. 마지막부분에서는 처음 자신의 이름을 싫어하고 괴로워하던 모습에서 자신감을 찾고 행복함을 느끼는 것에 웃음을 짓게 된다. 캐나다 자작나무상과 ALA 올해의 청소년소설상을 받은 이 작품은 천진난만한 성격과 재치로 위기를 돌파해나가는 주인공 댄의 모습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 저자소개 / 비키 그랜트

캐나다의 작은 항구도시인 웰리팩스에서 태어나 NSCAD 대학과 달하우지 대학, 라발 대학에서 공부했다. 광고 카피라이터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 오랫동안 TV 방송작가와 프로듀서로 일했고, 캐나다의 에미 상으로 불리는 제미니 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녀가 2005년 출간한 명랑 법 스릴러 '불량엄마 납치사건'은 그해 영미권에서 손꼽히는 메이저 추리문학상 중 하나인 아서 엘리스 상(청소년소설 부문)과 자작나무상을 수상했다.

### 책 속 한 문장

난 세인이 정말 싫었다. 난 이 멍청한 체험학습이 정말 싫었다. 하지만, 가장 싫은 건, 바로 내가 댄 호그라는 사실이었다. (pp.1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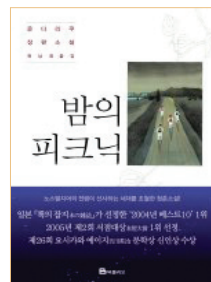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못된 장난  
브리기테 블로벨 | 2009



지독한 장난  
이경화 | 2008



밤의 피크닉  
온다 리쿠 | 2005



096

## 5학년 5반 아이들

윤숙희 지음 푸른책들 2013

### 사서의 추천글

『5학년 5반 아이들』은 제10회 푸른문학상 '미래의 작가상'을 수상한 아동도서이다. 책에는 서로 다른 고민을 가진 일곱 아이들이 나온다. 이름은 천재지만 아이들에게 천치라고 놀림 당하는 천재,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는 수정, 아빠의 사업 실패로 자신의 처지가 부끄러운 준석, 이름과 달리 뚱뚱한 외모를 가진 장미, 우연히 오토바이를 훔치게 된 태경,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미래, 산만하다는 이유로 약을 먹는 한영. 주인공들의 고민은 얹히고 설켜 있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들은 헤매고 부딪히고 노력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고민과 마주하면서 성장해 나간다. 주인공들의 이야기는 마치 우리들의 이야기 같기도 하다.

### 저자소개 / 윤숙희

1965년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났으며, 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했다. 2010년 '샘터동화상'과 2011년 '통일창작동화상'을 수상했고, 2012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동화 '조나단은 악플러'가 당선되었다. 장편동화 『5학년 5반 아이들』로 제10회 푸른문학상 '미래의 작가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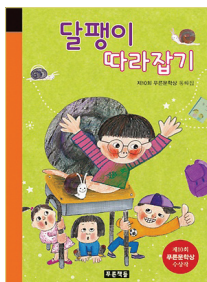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천재가 야채를 송송, 착착, 총총 썰었다. 그 박자에 맞추며 고개를 끄덕끄덕, 어깨를 들썩들썩, 엉덩이를 실룩실룩. "한영아, 그거 무슨 춤이야?" "이거? 요리춤. 내가 개발해 낸 거야." (p.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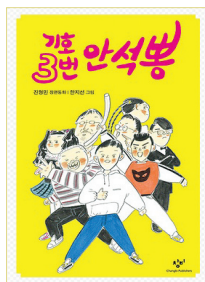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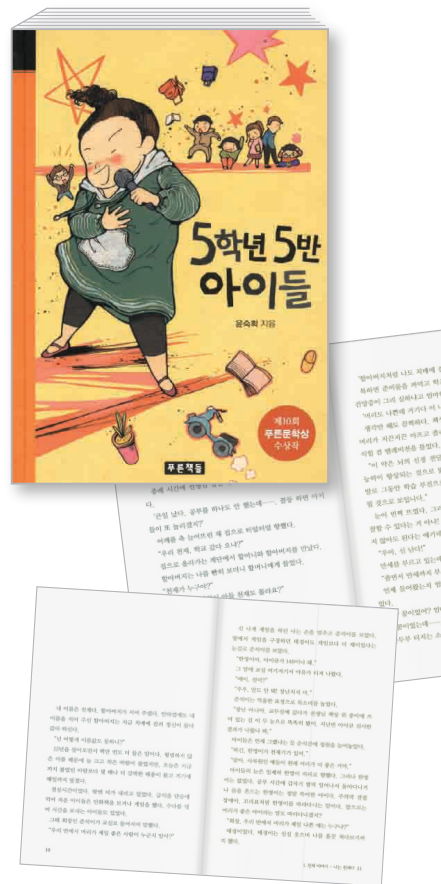
열 살에 꿈꾸면 좋을 것들  
김태광 | 2011



달팽이 따라 잡기  
강은영, 홍기은, 장한애,  
오민영 | 2013



기호3번 안석봉  
진형민 | 2013





097

## 거북이가 2000원

이와사키 쿄코 지음, 스기우라 한모 그림 천개의바람 2012

### 사서의 추천글

『거북이가 2000원』은 자신과 다른 상대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동생 에이코의 돈 2,000원으로 거북이를 산 아키라와 친구 사토시는 거북이를 뒤집고 쿡쿡 찌르며 괴롭힌다. 아키라와 사토시를 피해 연못에서 도망친 거북이들을 에이코는 마루 밑에서 발견하지만, 이를 비밀로 한 채 틈만 나면 마루 밑으로 들어가 사람 말을 하는 거북이들과 소꿉놀이를 한다. 우연히 에이코가 마루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된 아키라는 낚시를 채고 마루 밑으로 기어 들어간다. 작은 돌부리에 발이 걸려 안쪽의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진 아키라는 거북이를 찾게 되지만, 쿵 하고 머리를 얻어맞아 정신을 잃게 된다. 한참 뒤 깨어난 아키라는 수많은 거북이들에 에워싸여 채판을 받게 되고, 거북이들을 괴롭힌 아키라를 거북이로 만들자는 판결이 내려진다. 앞으로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아키라는 거북이의 마음을 알게 될까?

### 저자소개 / 이와사키 쿄코

1922년에 도쿄에서 태어났다. 1959년에 단편 '해오라기'로 아동문예자협회 아동문학상을 받으며 글을 쓰기 시작하여, 90살이 넘는 지금까지 어린이와 자연의 따뜻한 교감을 담은 글쓰기를 하고 있다. 1970년에 『잉어가 있는 마을』로 노마아동문예상과 예술선장문 부대신상을, 『꽃피우기』로 일본아동문학자협회상을 수상했다. 작품으로는 『노란 나비』, 『가난한 신과 바보의 연극』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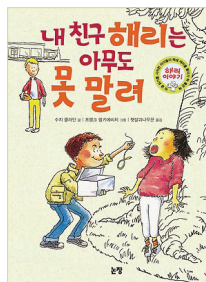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거북이가 되어서야 거북이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 (p. 70)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제비야 날아라  
송재찬 | 2013



내 친구 해리는 아무도  
못 말려  
수지 클라인 | 2012



호랑이 눈썹  
이반디 | 2013

098

## 게임왕

● 선자는 지음, 나오미양 그림 ● 문학과 지성사 ● 2013

### 사서의 추천글

『게임왕』은 현실과 사이버 공간 사이를 오가며 역할을 바꿀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현실을 주인공 민오의 모습을 통해 세밀하고도 입체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자신을 둘러싼 학교, 가정, 사회의 빠른 변화에 발맞추어 살아가는 아이들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개성 넘치는 이야기로 담아내고 있다.

자아를 충분히 발현해서 하루에도 순간순간 몇 번씩 바뀌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 가며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아이들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현실에서 자아를 찾지 못한 아이들은 가상 세계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 꾸미지 않아도 되는 솔직한 나, 성적이 아닌 다른 능력으로도 인정받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며 스스로 위안을 삼는다. 그리고 그 세계가 있어야만 자신의 존재가 증명되는 것 같아서 점점 더 그 안으로 몰입해 가는데...

### 저자소개 / 선자는

중학생 때 갑자기 동화를 쓰고는 '나는 평생 글을 쓰며 살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지금은 이야기 사냥꾼이 되어서 어딘가에 꿈꿨던 숨어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이야기들을 찾아 열심히 상상의 숲을 누비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영원한 황금 지킴이 그리핀』, 『잘하면 살판』, 『세상을 구한 활』이 있고, 동화집 『달려라 바퀴』에 단편 『고물성을 지켜라』를 실었다. 어린이동산 공모전에서 중편동화 『안녕, 방상시』로 상을 받았다.

### 책 속 한 문장

피웅. 팡. 불꽃놀이가 터지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나를 위한 찬란한 불꽃이다. 이 순간만큼은 내가 왕이라고 된 기분이다. (p. 8)

###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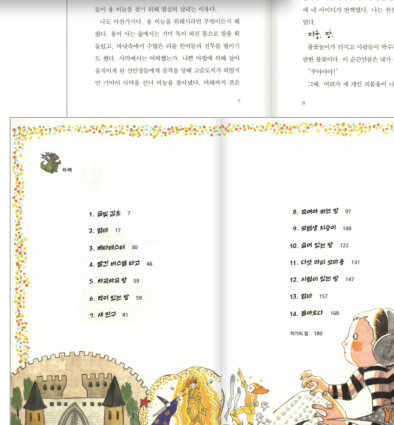
게임파티  
최은영 | 2013



게임중독탈출학교  
김진섭 | 2009



게임회사이야기  
이수인 | 2005





099

## 그 고래, 번개

류은 글, 박철민 그림 샘터사 2012

## 사서의 추천글

정채봉 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생전에 정채봉 선생님이 추구했던 동심의 세계를 담은 순수함과 서정적인 느낌이 전해지는 책이다. 류은 작가의 짙막한 동화 4편이 함께 수록되어 있는 이 동화집은 맨 처음 이야기 『그 고래, 번개』를 시작으로 『꼬마 산신령, 호랑이 눈썹, 달봉이』까지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세상과 어른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대표작인 『그 고래, 번개』는 남해의 섬을 배경으로 고래와 소년의 우정을 그린 성장 동화이다. 소년의 순수함과 섬에서의 외로움이 평범한 글 속에 잘 녹아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소년의 마음과 푸른 바다가 머리 속에 그려지며 정화되는 느낌을 갖게 해 준다. 단지 맑고 깨끗함만으로 다가오는 동화가 아닌, 이해하기 힘든 어른들과 사회의 모습을 아이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어린이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도와줄 수 있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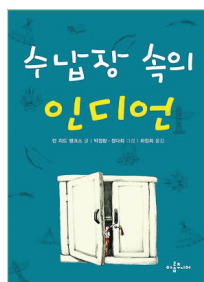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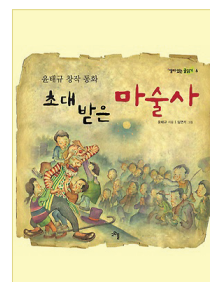
## 저자소개 / 류은

어릴 적부터 나무나 풀, 새를 보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동화 쓰는 사람이 될 것이라 꿈꿨다. 그동안 지은 장편 동화로는 『바람드리의 라무』가 있고, 여럿이 함께 쓴 책으로 『날 좀 내버려 둬!』, 『우주 최강 문제아』가 있다.

## 책 속 한 문장

내 앞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놓여 있다. 그중에는 남이 한번도 가지 않은 길도 있을 것이다.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된 내가, 더 없이 자랑스럽다 (p. 96)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항반장 똥반장 연애반장  
송언 | 2012수납장 속의 인디언  
린 리드 뱅크스 | 2012초대받은 마술사  
윤태규 | 2012







101

# 나는 어린이입니다

콜라스 귀트망 글, 델핀 페레 그림 ● 베틀북 2012

## 사서의 추천글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존감이 낮은 어린이들에게 자신이 왜,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려 주는 책이다.

주인공 레오나르는 길을 잃어 들어간 숲속에서 양이랑 암소랑 암탉을 만나 저마다 자신의 쓸모를 자랑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쓸모없는 어린이라는 사실에 몹시 슬퍼한다.

가까스로 숲 속을 빠져나온 레오나르는 엄마 아빠를 보자 어린이는 어디에 쓰냐고 묻게 된다. 그러자 엄마 아빠는 사랑을 듬뿍 담아 레오나르의 존재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말씀을 해 주신다. 레오나르의 엄마 아빠가 했던 현명한 대답처럼 어린이는 존재만으로도 반짝반짝 빛이 난다. 어린이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다. 책을 읽는 어린이들에게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쓸모 있는 인간이 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믿음과 희망을 전해 주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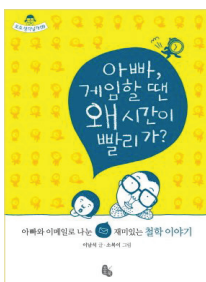
## 저자소개 / 콜라스 귀트망

1972년 파리에서 태어났다. 연극을 공부하다 우연한 기회로 방송국에서 작가로 일하게 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이 작품으로 2012년에 매해 창의성과 독창성이 돋보이는 작품들에 주어지는 소시에르 상을 수상했다. 또 다른 작품으로 『슈퍼 영웅은 아무리 높이 날아도 절대 어지럽지 않아!』, 『내 앞의 인생』, 『난 그림 그릴 줄 몰라요』 등이 있다.

## 책 속 한 문장

어린이는 뭔가에 쓰이는 게 아니야. 어린이는 우리가 콜라 병을 팔 때 쓰는 병따개나 추울 때 덮는 이불이 아니잖니. 하지만 생각해 봐. 그런 물건들은 딱 한 가지 쓰임새밖에 없단다. 하지만 어린이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될 수 있거든.” (p. 44)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아빠 게임할 땐  
왜 시간이 빨리가?  
이남석 | 2009



엄마사용법  
김성진 | 2012



생각이 중요해  
김민화 | 2009

## 사서의 추천글

뭐든 잘 먹고, 아무데서나 잘 자고, 언제나 행복하고 건강한 정이에게 고민이 생겼다. 엄마, 아빠가 예민해서 잠을 잘 못자는 오빠를 위해서 침대를 사주기로 하셨다. 엄마, 아빠는 정이는 아무데서나 잘 자기 때문에 침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고, 침대에서 자고 싶은 정이는 오빠처럼 예민해 지기로 결심하는데..... 과연 정이는 예민해 질수 있을까?

책은 『예민은 힘들어』와 함께 농부가 된 아빠를 만나러 가서 벌어지는 소동을 그린 『유전자는 고마워』, 『꼬봉이는 맛있어』 3가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익살스러운 그림과 함께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 어린이 친구들은 책 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어른들은 천진난만한 동심의 세계에 흠뻑 빠져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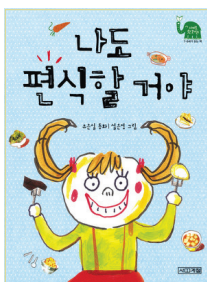
## 저자소개 / 유은실

1974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2004년 계간 『창비어린이』 겨울호에 『내 이름은 백식』을 발표하며 동화작가가 되었다. 그동안 『나도 편식할 거야』, 『내 머리에 햇살 냄새』, 『나의 린드그렌 선생님』, 『우리 집에 온 마고할미』, 『만국기 소년』, 『멀쩡한 이유정』, 『마지막 이벤트』, 『우리 동네 미자 씨』 등을 펴냈고, 『만국기 소년』으로 제28회 한국어린이도서상, 『멀쩡한 이유정』으로 2010 IBBY 어너리스트를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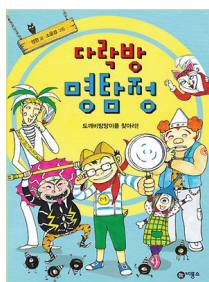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나는 바보같이 살았다. 맛있는 거면 다 풀었다. 신경질을 안 냈다. 아무 데서나 잤다. 눈물이 났다. 엄마 아빠는 내가 우는 줄도 몰랐다. 침대 얘기만 했다. (pp. 2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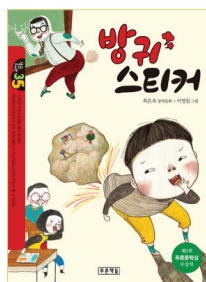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나도 편식할 거야  
유은실, 설은영 | 2011



다락방 명탐정  
성완, 소윤경 | 2013



방귀? 스티커  
최은옥, 이영림 | 2012



103

## 나의 사춘 세라

김민령 지음, 홍기환 그림 창비 2012

### 사서의 추천글

“웃기고 재미있는 어린이 책이야말로 진짜배기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된 일인지 제가 쓴 글들은 전부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입니다”라는 작가의 말처럼 이 책에 수록된 여덟 가지 이야기는 모두 힘든 현실을 살아내는 어린이들의 이야기이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어른들이 애써 외면하려는 험잡고 어려운 삶의 이야기들을 어린이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독자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이 남게 한다.

이 책에 등장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결손가정의 또는 마음의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다. 그럼에도 각각의 이야기들은 누구의 선행이나 도움으로 행복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전개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상황만을 이야기하고 끝을 맺는다. 이 이야기를 통해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어린이들이 주변의 어려운 친구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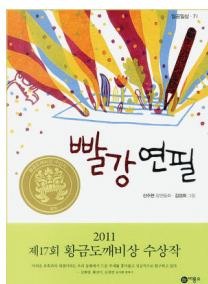
### 저자소개 / 김민령

1975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한양대 국문학과를 졸업했고, 인하대에서 아동문학을 공부하고 있다. 2006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동화『작은 집 이야기』가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제2회 창비어린이 신인문학상 평론부문을 수상했다.

### 책 속 한 문장

다만, 그 애 외삼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으면 하고 바랐다. 그리고 어린이날이나 성탄절 생일에는 선물을 사주고, 가끔씩 놀이공원에도 데려가 주고, 누군가 ‘엄마 아빠 없는 애들은 잘 키우기 힘들어.’하고 말하면 불같이 화를 내 주기를. (p. 83)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빨강 연필  
신수현 | 2011



도와 달라고 소리쳐  
박현숙 | 2012



살롯의 거미줄  
엘런 브룩스 화이트 | 2006

## 내 목소리가 들리나요

다시마 세이조 글·그림 ● 사계절 출판사 ● 2012

### 사서의 추천글

전쟁은 나라를 위해 명령에 따라 적의 병사들을 죽이고, 자신 또한 적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비극이다. 어느 병사는 울고 계시는 엄마를 뒤로하고 나라를 위해 전쟁터로 나가서 명령에 따라 나와 똑같은 사람을 향해 총을 쏘다가 포탄을 맞아 죽게 된다. 죽은 후 눈도 귀도 모두 없어진 병사의 영혼은 엄마의 눈물과 동생의 분노를 보고 느끼고, 내 편도 네 편도 없이 뒤섞인 또 다른 낯들은 누구를 위한 죽음인지, 무엇을 위한 죽음인지를 묻는다. 거친 터치와 핏빛 색깔을 통해 분노와 증오의 감정을 전달하고 있는 이 책의 그림은 반전, 평화, 생명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공동으로 기획하여 펴낸 평화그림책 중의 한 권으로 지난 역사에서 전쟁으로 입었던 상처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하고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켜야만 한다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 저자소개 / 다시마 세이조

1940년 오사카에서 태어났다. 1969년부터 도쿄에서 그림책 작업을 시작했고, 2009년부터 '그림책과 나무열매 미술관'을 열고 전시활동을 해 오고 있다. 볼로냐국제아동도서전 그래픽상 등을 받았고, 펴낸 책으로는 『채소밭 잔치』, 『쿨쿨쿨』 등이 있다.

### 책 속 한 문장

우리들의 모습은 아무도 볼 수 없겠지만,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전쟁 이야기를, 여러분과 똑같이 살았던 우리들의 이야기를. 내 목소리가 들리나요? (pp. 32-34)

###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



꽃할머니  
권윤덕 | 2010



비무장지대에 봄이 오면  
이억배 | 2010



평화를 꿈꾸는 도토리 나무  
오카도 다카코 | 2012



105

## 다락방 명탐정

● 성완 지음, 소윤경 그림 ● 비룡소 ● 2013

### 사서의 추천글

이 책은 다락방에 '명탐정 사무소'를 차린 건이가 사무소 이름대로 명탐정의 실력을 발휘하여 도깨비들이 의뢰한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동화 속에 등장하는 도깨비는 주먹코, 외눈, 꺾다리, 빈개머리로 각기 다른 능력의 도깨비방망이를 갖고 있다. 주먹코의 사라진 방망이를 찾아 달라는 도깨비들의 부탁을 받은 건이는 용의자 도깨비 넷과 함께 사건의 현장인 구미호골에 가게 된다. 방망이를 잃어버린 계곡 주변을 살피던 건이는 며칠 전 내린 비 덕분에 선명하게 남아 있는 발자국을 발견함과 동시에 도깨비들의 발이 똑같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게다가 사건의 목격자인 구미호를 만나 도깨비들이 한 말들이 거짓이 아닌 사실이라는 것도 확인한다. 하지만 건이는 하나하나 추리를 통해 방망이 도둑이 누구인지 알아내고, 도깨비들 앞에서 범인을 밝혀낸다. 건이가 어떻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는지 따라가다 보면 책임감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저자소개 / 성완

1969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 “글을 제법 쓰네.”라는 칭찬 한 마디에 작가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어른이 되어서 회사원, 학원 강사, 기자 등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작가를 꿈꿨다. 『다락방 명탐정』으로 2013년 제2회 비룡소 문학상을 수상했다.

### 책 속 한 문장

건이는 외눈이의 방망이가 얼마나 멋진지 말해 주고 싶었던 거야. (p. 75)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우리 가족을 도운 도둑  
박향희 | 2013



거꾸로 가는 고양이 시계  
고재현 | 2012



최기봉을 찾아라!  
김선정 | 2011



## 명태를 찾습니다!

주강현 글, 김형근 그림 미래M&B 2012

### 사서의 추천글

우리 곁을 떠난 '명태'를 찾습니다! '명태'는 한때 전 국민의 식탁에 늘 올라왔던, 우리의 동해바다에서 많이 잡히던 대표적인 생선이다. 하도 많이 잡혀 쌓여있는 모습이 산과 같다고 해서 '산태'라고도 불렀다. 하지만 지금은 안타깝게도 저 멀리 러시아나 일본으로 나가 '명태'를 잡아온다고 한다.

무분별한 남획과 지구 온난화로 '명태'가 우리의 바다에서 자취를 감추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동해안 명태를 살리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한번 사라진 '명태'는 좀체 나타나질 않고 있다.

사람은 아니지만, 아마 '명태'를 우리의 동해 바다에서 보게 된다면 오래 못 본 가족이나 친구를 본 것처럼 무척 반갑고 기쁠 것이다. 다시 '명태'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의 바다와 환경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잘 지키고 보존해야겠다.



### 저자소개 / 주강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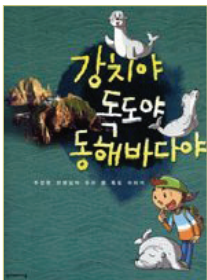
경희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제주대 석좌교수, 해양문화연구원장, 우리 민속문화 연구소장, 이에도 해양연구센터장, 국립등대박물관 운영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아시아 태평양은 물론이고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며 해양문명사를 탐구하고 있다.

어린이를 위한 책으로 『제주도 이야기』, 『주강현의 우리문화』, 『100가지 민속문화 상징사전』, 『강치야 독도야 동해바다야』 등을 펴냈다.

### 책 속 한 문장

이렇게 알려진 명태는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없어서는 안 될 생선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부르는 명칭도 다양해졌지요. (p.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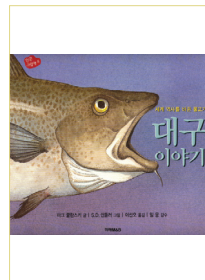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강치야 독도야 동해바다야  
주강현 | 2006



관해기 1-3  
주강현 | 2006



대구 이야기  
마크 쿨란스키 | 2006

## 사서의 추천글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이별을 경험하게 된다. 한 집에 살던 동물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사를 하게 되어 동네 친구와 헤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속에는 그들과 함께 하고 있을 수 있으니, 이별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죽음'이란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현상으로 이별과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생명이 죽게 되면 우리는 그들을 못 보게 된다. 하지만, 볼 수 없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 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싹을 틔워 다른 모습으로 살아나기도 하고, 마음속에서 함께 살아가기도 한다. 생명에 대한 물음과 설명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는 이 책은 모든 생명은 태어나고 죽는 것이 자연의 섭리임을 말하고,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오늘을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로 안내하고 있다.

## 저자소개 / 실비 보시에

10년 동안 사서교사로 재직하였고, 1997년부터 어린이 책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작품으로 『죽음, 왜 쉬쉬하지?』, 『호기심 많은 꼬마들에게 들려주는 꿈 이야기』, 『바다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책』, 『어린이를 위한 세계사 이야기 - 그리스 사람들』, 『전쟁과 평화, 두 얼굴의 역사』 등이 있다.

## 책 속 한 문장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찾으며 평생을 살아가겠지요. 그 길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한 발 한 발, 걸어나가세요. 슬픔이 마음에 침입하는게 느껴지면, 여러분이 오늘 경험한 아름답고 기쁜 일을 모두 떠올려 보세요. (p.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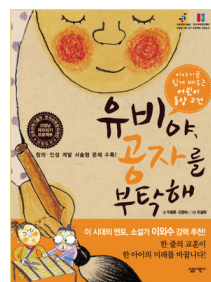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꿈을 꼭 가져야 하나요?  
어린이철학교육연구소  
| 2012



장애란 뭘까?  
엘렌 드 레스니데르,  
소피 보르데-프티용 | 2012



유비야, 공자를 부탁해  
우광훈, 김영숙 |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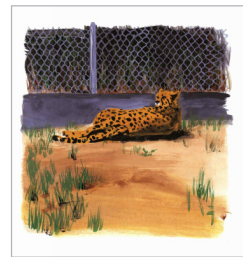
## 사서의 추천글

이 책은 동물과 인간이 동물원우리를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이다.

자연속의 치타는 바람처럼 초원을 달리지만 동물원에 있는 치타는 초원을 달리지 못하고, 구름처럼 하늘을 나는 것을 좋아하는 쇠황학은 먹이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동물원에 살고 있다. 책은 동물들이 자연과 동물원에서 살고 있는 상반된 모습을 제시한다.

마지막에 보여주는 동물과 인간이 서로 응시하는 장면에서는 서로가 다른 존재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바라보고 있으며, 자신과 또 다른 세계를 이해하고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이끌어 내고 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읽고 서로 마주보며 풍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그림책이다.



## 저자소개 / 윤여림

어린이책 작가이자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작품으로 『물놀이 할래?』, 『나, 화가가 되고 싶어!』, 『지구 엄마의 노래』를 냈고, 『우리 가족이야』, 『셋!』등을 우리말로 옮겼으며, 『우리 집에 사는 신들』, 『눈물이 방울방울 아름다운 꽃 이야기』에 그림을 그렸다.

## 책 속 한 문장

동물들이 서로를 본다.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p. 28)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열두 마리 새  
김희경, 지연준 | 2012



어느 날 아침  
이진희 | 2012



흰곰  
이미정 | 2012

109

## 시간 가게

이나영 지음, 윤정주 그림 문학동네 2013

### 사서의 추천글

제13회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 수상작으로 판타지적인 재미를 우선으로 하면서도 현실을 바탕으로 탄생한 작품이다. 『시간 가게』는 입시 광풍으로 온전한 자기를 잃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려 내고 있다. 주인공은 오로지 1등이 되기 위해 매일 십 분의 시간을 사고, 자신의 기억을 잃어버린다. '지금 쓸 수 있는 십 분'을 사기 위해서라면 과거의 행복한 기억쯤은 팔 수 있다는 윤아의 생각은, 단 십 분만이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 심리이며 동시에 장밋빛 미래를 위해서라면 현재 삶의 기쁨은 희생시켜도 된다는 어른들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해 보일 것 같던 판타지 같은 동화는 아이들의 모습을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에서 바로 우리의 현실에 문제 제기 그리고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전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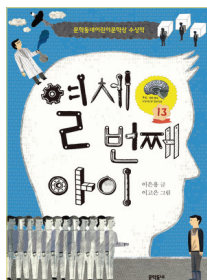
### 저자소개 / 이나영

오랫동안 어린이와 함께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일을 했다. 『시간 가게』로 제13회 문학동네 어린이문학상을 수상했다.

### 책 속 한 문장

그때 어디선가 바람과 함께 전단지 한 장이 날아와 얼굴을 때렸다. 나는 얼굴에 붙은 전단지를 떼었다. 가로등 불치에 의지해 전단지를 보았다.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시간이 부족한 분께 시간을 드립니다. (p. 197)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열세 번째 아이  
이은용 |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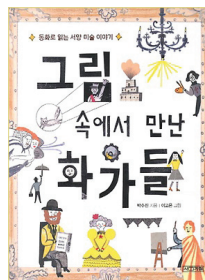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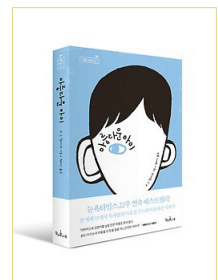


그림 속에서 만난 화가들  
박수진 | 2013



아름다운 아이  
R. J. 팔라시오 | 2012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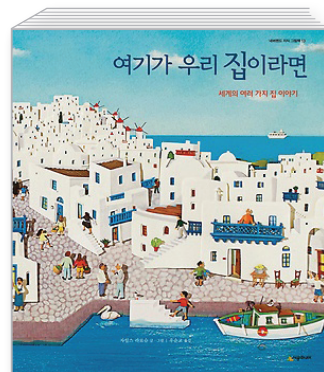
## 여기가 우리 집이라면

자일스 라로슈 글·그림 시공사 2012

## 사서의 추천글

이 책은 섬세한 그림과 구체적인 설명으로 아이들에게 세계 곳곳의 다양하고 독특한 집들에 대해 알려주는 그림책이다. 동굴 집, 물 위에 지은 집,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들어갈 수 있는 집 등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다양한 형태의 집들을 책 속에서 만나볼 수 있다.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집의 형태를 그림으로 상세히 표현하고, 각각의 집들이 위치한 지역과 건축재료, 그러한 형태의 집이 지어지게 된 자연적·문화적 배경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아직 다른 나라에 대한 직접 경험이 부족한 아이들이 이 책에 담긴 다양한 집 이야기를 통해 집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 뿐 아니라, 우리와는 다른 생활 방식과 문화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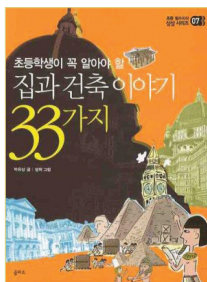
## 저자소개 / 자일스 라로슈

그림을 그리고, 오리고, 색칠하고, 풀칠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독특하고 정교한 종이 콜라주로 어린이책과 순수 미술 작업을 하고 있다. 그림을 그린 책으로 『민음이 태어나는 성지』, 『세상을 잇는 다리』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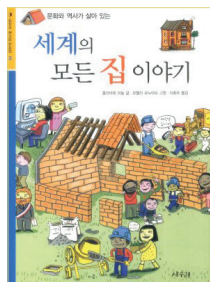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이 시원한 나무 위에 우리 집이 있다면, 우리는 부모님과 형제자매한테서 벗어나 친구들과 함께 땅에서 높이 떨어진 곳에서 지낼 수 있을 거예요. (p. 29)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집과 건축 이야기  
박유상 | 2009



세계의 모든 집 이야기  
올리비에 미농 | 2008



유쾌한 세계 건축 여행  
배윤경 | 2012



## 사서의 추천글

어린이 동화 작가인 황선미는 『마당을 나온 암탉』을 펴낸 우리 시대의 최고의 작가이다. 이 책은 황선미작가의 재능기부로 탄생한 책이다. 주인공인 민음이가 친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위탁가정에서 성장하는 이야기이며, 친부모가 남겨 준 담요 한 장과 팔 떨어진 곰 인형이 세상 전부인 양 집착하는 민음이가 위탁가정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알아가고 사랑의 따뜻함을 배워가는 과정이 담겨있다. 아이들이 힘든 현실을 딛고 있을 때 손을 내밀어 주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 저자소개 / 황선미

1963년 충청남도 홍성에서 태어나 서울예술대학에서 문예창작을 공부했으며, 1997년에 제1회 탐라문학상 동화 부문을 수상했고, '내 푸른 자전지', '여름 나무', '앵초의 노란 집', '뽕마를 몽당깨비', '나쁜 어린이표', '마당을 나온 암탉' '목걸이 열쇠' '까치우는 아침' 등의 작품이 있다. 깊은 주제 의식과 치밀한 심리 묘사, 간결하면서도 풍부한 상징성을 내포한 문장으로 개성 있는 작품을 꾸준히 발표해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에게도 사랑을 듬뿍 받는 작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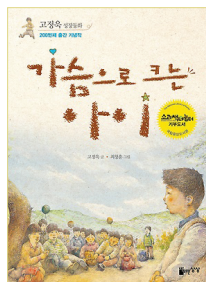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그분은 널 다시 데려가고 싶어 하셔. 그때는 미처 준비가 안됐다고, 그래서 널 힘들게 했다고 생각하시더라. “어른들도 완벽하지 않아. 아이처럼 실수하면서 배우지.” (p.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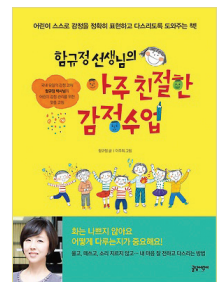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폭풍소녀 가출기  
최미경 | 2013



가슴으로 크는 아이  
고정욱 | 2013



함규정 선생님의 아주  
친절한 감정수업  
함규정 | 2013

## 우리 동네 전설은

한윤섭 지음, 홍정선 그림 ● 창비 ● 2012

## 사서의 추천글

준영이 가족이 무릉도원 같은 득산리 마을로 이사를 가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득산리의 모든 환경이 낯설기만 한 준영은 전학간 학교에서 득산리 마을에 사는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친구를 사귀고 싶지 않은 준영은 혼자 가려고 하지만 아이들은 마을길에 서려 있는 전설을 들려준다. 아이들의 간을 빼앗는다는 망아간 할머니와 할아버지, 아기를 잃은 여자의 영혼이 떠돈다는 뱀 산, 지나가는 아이들을 마구 잡아 가둔다는 돼지 할아버지 이야기 등... 그래서 이 동네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반드시 함께 집에 간다고 한다. 과연 준영이는 집으로 혼자서 갈 수 있을까? 득산리 마을 전설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 학교와 마을로 가는 길을 오고 가면서 준영과 아이들에게 스릴과 모험, 몽클한 감동이 펼쳐진다.

## 저자소개 / 한윤섭

서울예술대학에서 극작을, 프랑스 렌대학에서 연극을 공부했다. 전국창작희곡공모전에서 대상,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 대상을 수상했다. 장편동화 『봉주르, 푸르』, 『해리엇』, 『서찰을 전하는 아이』 등을 썼으며, 희곡 작품으로 『굿모닝 파파』, 『조용한 식탁』, 『수상한 궁녀』 등을 발표했다.

## 책 속 한 문장

“잠깐만. 너한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 주고 싶어. 사실 우리 득산리 마을에는 아주 중요한 규칙이 있어. 중학생이 되기전에는 절대 혼자서 득산리까지 갈 수 없다는 거야” 이렇게 다시 득산리의 전설의 이야기는 다시 시작되고 있다. (p. 140)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자전거  
박상률 | 2013



나의 사춘 세라  
김민영 | 2012



소년소녀 무중력 비행중  
장주식 | 2013





113

## 울 애기 예쁘지

장영복 지음 푸른사상사 2012

### 사서의 추천글

나비, 송아지, 애벌레, 봄비, 눈 덮인 산 등 자연을 소재로 한 부분과 내 동생, 아빠, 텔레비전, 시현, 소풍, 친구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소소한 감상을 표현한 부분으로 크게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 동시집이다.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동시에는 자연의 소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작가의 세심함과 함께 어린이들이 느끼는 삶의 고단함 등이 잘 어우러져 있어 읽는 이에게 편안함을 주고 있다. 때문에 이 동시집을 읽고나면 어린이들도 동시 쓰는 일이 어렵지 않게 느껴질 만큼 소소한 즐거움이 편안하게 섞여져 있다.

한편 시와 어우러져 있는 그림들은 소사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그린 것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시를 바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저자소개 / 장영복

2004년 『아동문학평론』에 동시가 추천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2010년 『부산일보』 신춘문예에 동시가 당선되었으며, 동화집 『한 판 붙을래?』, 그림책 『아깨비의 노래』, 『여름휴가』, 생태 이야기 『숲을 읽어요』 등을 펴냈다. 장편동화 『대장장이를 꿈꾸다』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차세대예술인집중육성지원금(2011)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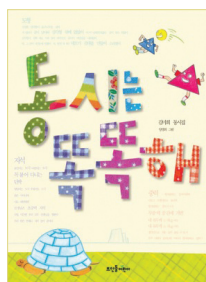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눈빛이 해맑은 갓난송아지 / 소똥을 밟으며 뛰어다닌다 / 경중경중, 똥 밟아도 좋은가 보다 / 코를 막고 외양간에 다가섰다 / 송아지도 나를 보고 다가온다 / 송아지를 만지려 했더니 / 어미소도 슬렁슬렁 따라나온다 / 음매에 만지지 마, 이럴 줄 알았다 / 어미소는 커다란 눈으로 / 나를 보다 송아지를 보다 그린다 / 울 애기 예쁘지? / 하는 얼굴이다 / 소똥 냄새가 싫지 않았다. (p.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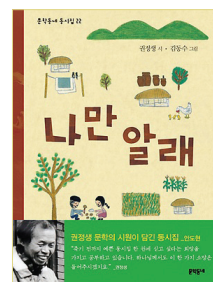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공룡이 두벅두벅  
오순택 | 2011



동시는 똑똑해  
김미희 |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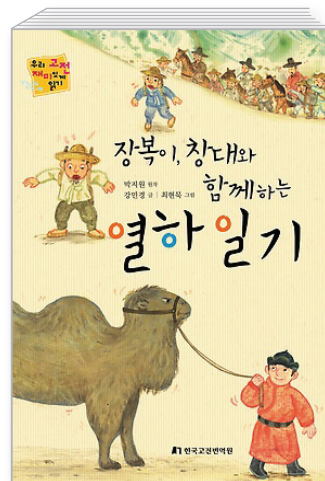
나만 알래  
권정생 | 2012

## 장복이, 창대와 함께하는 열하일기

박지원 원작, 강민경 글, 최현묵 그림 한국고전번역원 2013

## 사서의 추천글

열하일기는 조선 후기 실학자인 박지원이 중국을 직접 여행하고 다녀와서 쓴 여행기이다. 청나라 수도 연경에서 시작하여 열하까지의 긴 여정 속에서 조선사회가 관심을 가질 청의 문물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마두 창대의 눈을 통해 중국의 풍습, 역사, 지리, 문학, 예술 등 두루 알려 준다. 백성과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비록 오랑캐에서 나왔다고 해도 배워야한다는 실학적 자세를 볼 수 있으며, 박지원의 철학과 세계관도 엿볼 수 있다. 지금껏 글도 깨치지 못하고, 꿈을 가져본 적도 없던 창대는 연암 박지원 나리와 함께 여행하면서 자신의 꿈도 찾게 된다. 고전하면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한문이 쉽게 번역이 되어 나온 책이다. 장복이와 창대, 박지원 나리와 함께 우리 어린이들도 열하를 향해 책으로의 여행을 떠나보자. 새로운 세계에 대한 왕성한 호기심으로 세상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길 바란다.



## 저자소개 / 강민경

대학에서 고전 문학을 공부하고 MBC 창작동화 대상을 수상하면서 동화를 쓰기 시작했다. 아이세상 창작동화 우수상, 한국안테나상 대상을 수상하고, 한양대학교에서 글 쓰기와 문학을 가르치고 있다. 지은 책으로 『100원이 작다고?』, 『부남자가 떴다』, 『2학년 6반 고길희 선생님』, 『까만 달걀』, 『아드님, 진지 드세요』 등이 있다

## 책 속 한 문장

대개 백성을 위해 일하는 자는 백성과 나라에 도움이 될 일이라면 그 법이 비록 오랑캐에서 나온 것이라 해도, 마땅히 이를 배우고 본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야 오랑캐를 물리칠 수 있는 법이다. 저들의 것을 다 익히고, 저들보다 낫게 되어야 비로소 '중국에는 볼 만한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게다. (p.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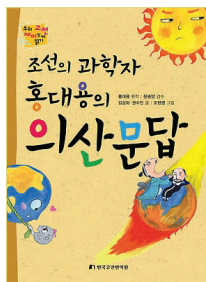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



정약용  
김은미 | 2010



(새로운 세상을 꿈꾼)  
조선의 실학자들  
고진숙 | 2010



(조선의 과학자 홍대용의)  
의산문답  
김성화, 권순진 | 2013



115

## 책 좀 빌려 줘유

이승호 글, 김고은 그림 ● 책읽는곰 2012

### 사서의 추천글

이 책은 작가의 어린시절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이다.

첫 번째 방학을 맞은 민재의 방학숙제는 '좋아하는 동화책 한 권 읽고 독후감 쓰기, 다 읽은 책은 학급 문고에 기증하기'이다. 하지만 민재네 집에는 민재가 읽을 만한 책이 한 권도 없었다. 요즘 어린이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우리 엄마 아빠의 어린시절에는 책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멀리 사는 친구 집에도 가보고, 엄마에게 졸라 보기도 하지만 민재에게 책을 구하는 일은 너무 어렵다. '1학년 민재의 좌충우돌 동화책 구하기 대작전!' 우리 친구 민재는 어떻게 책을 구했을까?

이 책은 재미있는 그림과 함께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로 어린이 여러분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책이다. 어린이 여러분은 엄마 아빠의 어린시절을 엿볼 수 있고, 엄마 아빠는 어린시절 추억을 느낄 수 있는 책이다.

### 저자소개 / 이승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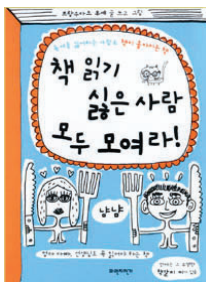
1960년 충청남도 예산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3학년까지 그곳에서 자랐다. 『책 좀 빌려 줘유』는 예산에 살던 시절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첫 동화로 아들 민재와 딸 해당이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아빠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이다. 지은 책으로 신문을 통해 지난 시대를 돌아보는 에세이 『옛날 신문을 읽었다』가 있다.

### 책 속 한 문장

꿈속에서 민재는 동화 나라를 찾아가입니다.

동화 나라에는 동화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천 권인지 만 권인지 셀 수도 없습니다. 민재는 동화책도 실컷 보고 이름 모를 주인공들도 모두 만났습니다. (p. 32)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책읽기 싫은 사람 모두 모여라  
프랑수아즈 부셰 | 2011



아홉살 독서왕  
서지원, 박연옥 | 2012



나는 책읽기가 정말 싫어  
김찬정, 이해정 | 2013



# 천사를 미워해도 되나요?

최나미 지음, 홍정선 그림 한겨레출판 2012

## 사서의 추천글

이 책에 나오는 아이들은 착하지 않다. 하지만 이 책에서 저자는 그 아이들이 '결국에는 착한 아이가 되었습니다.'라고 억지로 마무리 하지 않고 현실 그대로의 모습만을 보여 준다. 때문에 책을 읽는 독자들은 착한 아이에게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다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고민과 상처를 보고 당황하게 된다. 이 책은 다른 사람의 상처와 솔직한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그 상처를 스스로 이겨내는 방법을 생각하게 해준다.

아빠의 일방적 강요로 부자간 전혀 소통을 할 수 없는 아픔을 지닌 오빠의 반항, 절친했던 친구와의 관계에서 자기가 중심이라 착각했던 아이들 아이들은 하나같이 모순을 안고 있는 아이들이다. 그런 아이들이지만 스스로 자신의 모순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성장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의 내 모습을 돌아 볼 수 있게 하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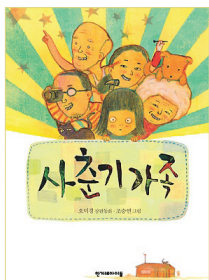
## 저자소개 / 최나미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사회 현실에서 비롯된 아이들 사이의 관계와 내면의 풍경을 섬세하게 탐색해서 그려 보이고 있다. 『바람이 울다 잠든 숲』, 『진취 바이러너스』, 『엄마의 마흔 번째 생일』, 『걱정쟁이 열세 살』, 『셋 둘 하나』, 『단어장』, 『움직이는 섬』, 『학교 영웅 전설』, 『옹주의 결혼식』등을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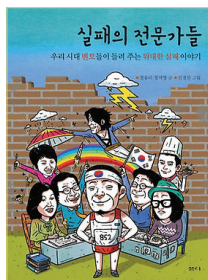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보라색 중에 빨강이 더 많으면 퍼플, 파랑이 더 많으면 바이올렛이라고 영어 시간에 배웠다. 내 생각에 바이올렛이 퍼플보다 더 썩직한 색깔인 거 같다. 내가 바이올렛이 아니라 퍼플이라서 아빠는 자주 화를 내는 걸까? (p. 40)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사춘기 가족  
오미경 | 2012



실패의 전문가들  
정유리, 정지영 | 2012



황금 깃털  
정설아 | 2012





117

## 하나뿐인 친구

● 실뱅 뢰니에 지음, 엘리자베스 E. 파스칼 그림  
● 별천지 (C) 2012

### 사서의 추천글

『하나뿐인 친구』는 감수성 예민한 주인공 소년 제르맹과 반신불수 장애인 미셀과의 가슴 아련한 우정 이야기이다. 이 책은 2002년 캐나다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인 캐나다 총독상 최종 후보에 오르고 2003년 몽테레지 도서 대상 최종 후보였다. 양심과 죄책감의 문제에 민감한 제르맹의 도덕적인 가치관을 통해 마음을 예리하게 버릴 수 있고, 또한 진정한 우정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작가는 제르맹이 본의 아니게 동네 어른들의 소개를 받아 반신불수인 미셀의 하나뿐인 친구가 되는 과정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유일한 친구에게 의존하는 미셀과, 미셀과의 만남으로 인해 남모르는 성장의 아픔과 양심의 고통을 치러 내야만 했던 제르맹의 우정 이야기는 책의 주인공 제르맹의 진솔하면서도 섬세한 독백으로 그려져 있다.

### 저자소개 / 실뱅 뢰니에

몬트리올 외곽 지역인 라신에서 태어나 몬트리올 대학교에서 문학과 교육학을 공부했다. 1955년 이래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소설을 여러 권 출간했다. 지금은 몬트리올 지역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여가를 위해서 저자는 기타를 치거나, 개를 데리고 산보하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배드민턴 치는 것을 좋아한다.

### 책 속 한 문장

누군가에게 하나뿐인 친구가 된다는 것은 마음 따뜻하고 뿌듯한 일이에요. 아무에게도 없는 보물을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 같지요. 하지만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친구에게 부끄럽지 않고 후회스럽지 않아야 겠지요? (pp. 95-96)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굿바이 마이프렌드  
오리하라 미토 | 2004



우정의규칙  
정복현 | 2011



우정  
김경희 | 2008

# 할머니, 왜 하필 열두 동물이에요?

배유안 지음, 허구 그림 책과함께 2012

## 사서의 추천글

이 책은 미르라는 아이가 증조할머니로부터 십이지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으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여러분들의 띠는 십이지 동물인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중 어디에 해당 되는지 알고 있나요? 많은 동물 중에서 왜 하필 열두 동물만 띠를 나타내고 있을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돼지꿈을 꾸면 재물을 가져올거란 생각을 하고, 왜 위인들은 태몽으로 용꿈을 많이 꾸었을까? 십이지 동물에 대한 이야기에 관련된 그림과 문화재 사진자료가 많이 수록되어 있어서 시각적으로도 볼거리가 많다.

우리 어린이들 자신의 동물띠 뿐만아니라 부모님의 십이지동물도 함께 찾아보고 해당 동물에 담긴 숨겨진 의미를 생각해보자. 각각의 동물들이 지니고 있는 좋은 덕목들은 다시 한 번 깊이 새기며 읽는 것은 어떨까?

## 저자소개 / 배유안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국어선생님을 하다가 지금은 동화와 청소년소설을 쓰고 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를 감동적으로 담은 『초정리 편지』로 창비 '좋은 어린이책'대상을 수상했으며 우리 역사나 고전에서 재미난 이야기를 끌어 올려 어린이들에게 들려주고 있다. 『화룡소의 비구름』, 『스프링백』, 『영국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 그림에서 우리 문화 찾기』, 『창경궁 동무』, 『콩하면 안되겠니?』의 작품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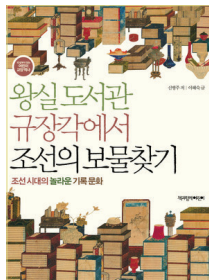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십이지의 세 번째 동물 호랑이는 '인(寅)'이라고 하는데 겨울이 가고 봄이 시작되려는 음력 1월이 호랑이달이고 오전3시에서 오전 5시까지가 호랑이의 시간이지. 밖은 춥고 땅은 아직 덜 녹았지만 땅속에서는 새싹들이 밖으로 나오려고 꿈지락꿈지락 안간힘을 쏟는 때라 이말이지. (p. 53)

##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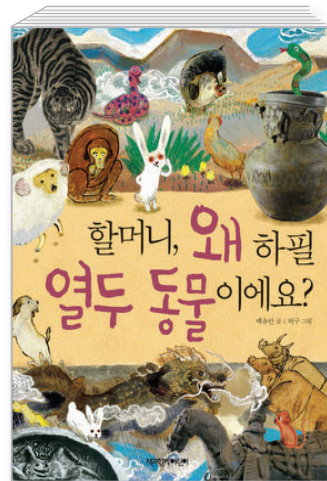
초정리편지  
배유안 | 2006



왕실 도서관 규장각에서  
조선의 보물찾기  
신병주 | 2010



이리오나라!  
옛날옛적 관혼상제  
김경희 | 2011





119

## 호랑이 눈썹

이반디 글, 서현 그림 한겨레출판 2013

### 사서의 추천글

귀엽고 감쪽한 동심의 세계를 소재로 한 네가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동화이다. 새로 이사 온 낯선 동네에서 겪는 희동이의 모험이야기, 호랑이 눈썹을 통해 보는 신기한 세상의 모습, 어린 재하에게만 보이는 말썰쟁이 꼬마 용 이야기, 여우가 신딘 신발을 신고 신기한 체험을 하는 소미 등 호기심 많은 말썰꾸러기 아이들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아이들은 어른들이 보기엔 때론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들 저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상에서 보게 되는 아이들이 저지르는 이런 이유 있는 행동들을 작가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대변해 주고 있다. 이 책을 읽고나면 어른들도 아이들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한 가지 특징을 더 꼽는다면 책을 읽는다는 느낌보다는 마치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보는 듯한 재미를 주는 책이라는 점이다.

### 저자소개 / 이반디

1974년에 태어나 대학에서 옷에 관한 공부를 하고, 옷에 관한 일을 했다. 동화를 처음으로 읽은 것은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이었고, 동화책 속 이야기들이 멋지고 재미있어 어린아이들보다 더 동화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러다 직접 이야기를 써서 아이들에게 들려주면 얼마나 멋진지 싶어 동화작가가 되었다. 그동안 쓴 책으로는 『엄마는 정말 모르는 걸까?』, 『꼬마 너구리 삼총사』등이 있다.

### 책 속 한 문장

나도 꼬마 용처럼 책상 위로 올라가 크아아 소리를 지르며 참대로 뛰어 내렸어요. 우리는 크아아 크아아 소리를 지르며 날기 놀이를 했어요. “뭐 하느라고 이 난리니, 시끄러워서 재인이 잤잖아!” “꼬마 용이 그런 거라니까, 애는 원래 소리가 천둥소리 같아.” 엄마는 정말 내말을 안 믿어요. (p. 85)

###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거꾸로 세계  
안성훈 | 2013



내 머리에 햇살 냄새  
유은실 | 2012



거꾸로 뽀뽀  
권타오 | 2012

120

## 희망이 내리는 학교

제임스 럼포드 글·그림 시공사 2012

### 사서의 추천글

아프리카 차드에 살고 있는 토마가 입학하게 될 학교의 개학날이다. 형과 누나와 함께 가는 등굣길은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될 거라는 기대로 가득하다. 그러나 선생님은 학교를 짓는 일이 첫 수업이라고 말씀하시고, 토마는 친구들과 함께 진흙으로 벽돌을 쌓고 짚과 나뭇가지로 지붕을 엮어 올리며 학교를 만든다. 씨뿌리기 직전의 들판 냄새 같은 흙냄새가 나는 교실에서 수업 마지막 날 선생님과의 작별인사를 나누고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지만, 큰 비가 내려 교실은 사라져 버렸고, 새 학기가 되면 또 다시 교실을 지어야 하는 처지가 된다. 하지만 토마는 배울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는다.

아프리카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밝고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이 책은 배움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배경색을 황토색으로 하고 인물들의 옷은 화려한 색으로 표현한 화풍은 척박한 환경이지만 배움의 열기와 희망으로 가득 찬 토마의 교실을 보여주는 듯 하다.

### 저자소개 / 제임스 럼포드

평화봉사단으로 일하며 아프리카,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12개국 이상의 언어를 공부했다. 예술과 역사에 대한 사랑을 그림책으로 담아 내는 작가로 『이븐바투타의 여행』, 『마음으로 듣는 노래』, 『세쿼야』, 『상형문자의 비밀을 찾아서』, 『베오울프』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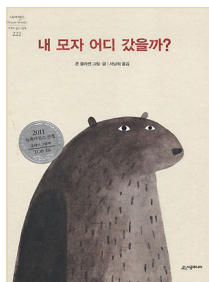
### 책 속 한 문장

새 학기가 되면, 다시 학교가 시작될 거예요. 그때는 토마도 형이 되어, 개학 날 동생들을 데리고 학교에 갈 거예요. 그러고는 활짝 웃는 선생님 앞에 서서 또다시 교실을 지을 준비를 할 거예요. (p.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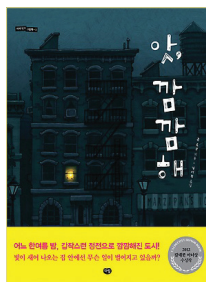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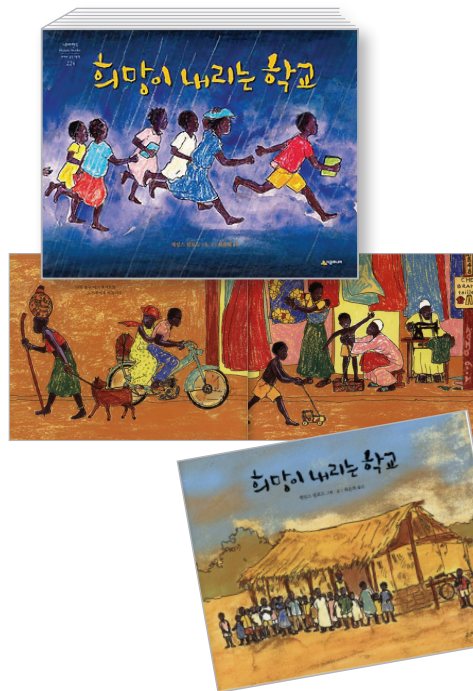
나에게 소중한 것들  
피터 가니바스 | 2012



내 모자 어디 갔을까?  
존 틀라센 | 2012



앗, 깜깜해  
존로코 | 2012







## 서명 찾아보기



ㄱ	● 가르친다는 것	51	● 나의 사춘 세라	112	
	● 가시고백	91	● 내 목소리가 들리나요	113	
	● 거북이가 2000원	106	● 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13	
	●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	22	● 내가 말하는 진심 내가 모르는 본심	24	
	● 게임왕	107	●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69	
	● 경제학자의 영화관	33	● 노벨상 수상자와 함께한 24일	45	
	● 고독의 권유	10	● 느림보 마음	14	
	● 과학, 10월의 하늘을 날다	92	ㄴ	● 다락방 명탐정	114
	● 광물, 역사를 바꾸다	44		● 도시락의 시간	55
	● (권오길의) 피짜 생물 이야기	43		● 두려움에게 인사하는 법	97
	● (중학생 토론학교) 교육과 청소년	93	ㅁ	● 마지막 한 걸음은 혼자서 가야 한다	25
	● 그 고래, 번개	108		● 마흔, 인문학을 만나라	70
	● 그들은 소리 내 울지 않는다	11		● 명태를 찾습니다!	115
	● 그리메 그린다	61		● 모든 슬픔에는 끝이 있다	26
	● 그림공부 인생공부	62	ㅂ	● 백마 탄 왕자들은 왜 그렇게 떠돌아 다닐까	80
	● 그림속에서 나를 만나다	63		● 빅데이터 혁명	34
	● 그치지 않는 비	94	ㅅ	● 삶과 죽음에 대한 커다란 책	116
	● 꼬마 사서 두보	109		● 생각해 봤어?	98
	● 꿈꾸는 카메라	12		● 서로를 보다	117
	● 꿈이 있는 공부는 배신하지 않는다	52		● 섬문화 답사기	81
ㄴ	● 나는 결심하지만 뇌는 비웃는다	23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82
	● 나는 랄라랜드로 간다	95		● 세상은 나의 멘토	35
	● 나는 아빠다	53		● 세상을 바꾼 경제학	36
	● 나는 어떤 집에 살아야 행복할까?	96		● 세상의 모든 전략은 전쟁에서 탄생했다	37
	● 나는 어린이입니다	110		● 소년은 철들지 않는다	15
	● 나는 오늘도 유럽에서 클래식을 듣는다	64		● 수상한 화가들	99
	● 나는 원래 행복하다	54		● 수학 시트콤	46
	● 나도 예민할 거야	111		● 시간 가게	118



☞ 식물, 세상의 은밀한 지배자 .....	47	☞ 조선의 왕비로 살아가기 .....	89
☞ 식민지 조선의 또 다른 이름, 시네마 천국 ...	65	☞ 좋은 아버지 수업 .....	60
☞ 식탁 위의 세계사 .....	100	☞ 죽음이란 무엇인가 .....	29
○ ☞ 아파트 테라피 .....	56	☞ 지금도 나를 가르치는 아이 .....	21
☞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가 없다 .....	83	☞ 진정한 교수, 詩에게 과학을 묻다 .....	49
☞ 안녕 다정한 사람 .....	16	☞ 질문이 답을 바꾼다 .....	74
☞ 어른공부 .....	17	☞ 집요한 상상 .....	40
☞ 어머니학교 .....	18	ㄸ ☞ 책 좀 빌려 줘유 .....	124
☞ 언제나 민생을 염려하노니 .....	84	☞ 책읽기 좋은날 .....	75
☞ 엄마라서 다행이다 .....	57	☞ 천사를 미워해도 되나요? .....	125
☞ 엄마를 졸업하다 .....	19	☞ 철학을 권하다 .....	30
☞ 여기가 우리 집이라면 .....	119	☞ 청춘, 그 이름만으로도 된다 .....	76
☞ 열한 살의 가방 .....	120	☞ 충분히 아름다운 너에게 .....	102
☞ 열혈 돼지 전설 .....	101	ㅋ ☞ 콰이어트 .....	31
☞ 영 .....	20	☞ 클래식이 필요한 순간들 .....	66
☞ 오래된 미래, 전통육아의 비밀 .....	58	ㅌ ☞ 탕고 인 부에노스 아이레스 .....	67
☞ 오래된 서울 .....	85	ㅍ ☞ 프로이트, 인생에 답하다 .....	32
☞ 왕의 서재 .....	86	☞ 프리 캣 .....	103
☞ 왜 부자들은 모두 신문배달을 했을까 .....	71	☞ 피그보이 .....	104
☞ 왜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가 .....	27	ㅎ ☞ 하나뿐인 친구 .....	126
☞ 우리 동네 전설은 .....	121	☞ 하루 .....	68
☞ 우주 다큐 .....	48	☞ 하버드의 세계를 움직이는 수업 .....	41
☞ 울 애기 예쁘지 .....	122	☞ 하워드의 선물 .....	77
☞ 음식 여행 끝에서 자유를 얻다 .....	59	☞ (고규홍의) 한국의 나무특강 .....	50
☞ (통찰력을 길러주는) 인문학 공부법 .....	72	☞ (학력 파괴로 세상의 경계를 허무는) 한국의 아웃라이어들 .....	79
☞ 일주일이 남았다면 .....	28	☞ 할머니, 왜 하필 열두 동물이에요? .....	127
ㅊ ☞ 자존감이 나를 세운다 .....	38	☞ 행복의 경제학 .....	42
☞ 잡스 사용법 .....	73	☞ 협상의 심리학 .....	78
☞ 장복이, 창대와 함께하는 열하일기 .....	123	☞ 호랑이 눈썹 .....	128
☞ 제국의 탄생과 몰락 .....	87	☞ 희망이 내리는 학교 .....	129
☞ 조선 사람의 조선여행 .....	88	기타 ☞ 1945, 철원 .....	90
☞ 조선의 리더십을 탐하라 .....	39	☞ 5학년 5반 아이들 .....	105



## 저자명 찾아보기



ㄱ	강민경 ..... 123	김지연 ..... 92	박신영 ..... 80
	강명관 ..... 98	김준 ..... 81	박연준 ..... 92
	강신주 ..... 98	김중석 ..... 120	박영택 ..... 68
	강양구 ..... 98	김창희 ..... 85	박용만 ..... 89
	고규홍 ..... 50	김택환 ..... 92	박중호 ..... 67
	고병권 ..... 98	김태관 ..... 27	박철민 ..... 108
	고정희 ..... 47	김택진 ..... 92	박찬일 ..... 16
	고제순 ..... 96	김훈 ..... 16	박칼린 ..... 16
	고현주 ..... 12	김형근 ..... 115	배병삼 ..... 98
	권대석 ..... 34	나오미양 ..... 107	배유안 ..... 127
	권오길 ..... 43	나카조 아키코 ..... 41	백영옥 ..... 16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88	노은주 ..... 96	비키 그랜트 ..... 104
	김고은 ..... 124	닐 아인랜드 ..... 24	서랍바람 ..... 92
	김광호 ..... 58	다시마 세이조 ..... 113	서윤영 ..... 96
	김기상 ..... 92	댄 애리얼리 ..... 22	서현 ..... 128
	김도연 ..... 20	데이나 메이시 ..... 59	선자은 ..... 107
	김동춘 ..... 98	데이비드 디살보 ..... 23	성완 ..... 114
	김려령 ..... 91	델핀 페레 ..... 110	셀리 케이건 ..... 29
	김미현 ..... 109	레오니트 아자로프 .... 45	상드라 푸아로 세리프 ... 116
	김민령 ..... 112	로버타 템즈 ..... 26	소준섭 ..... 86
	김민식 ..... 92	류은 ..... 108	소윤경 ..... 114
	김선현 ..... 63	리처드 H.K 비에토 .... 41	손낙구 ..... 96
	김승구 ..... 65	매릴린 케이건 ..... 24	송호근 ..... 11
	김영리 ..... 95	맥스웰 길링엄 라이언 .. 56	송현옥 ..... 92
	김영상 ..... 79	메리 로치 ..... 48	쇼 야노 ..... 52
	김영희 ..... 19	메릴 미도우 ..... 77	수전 케인 ..... 31
	김용섭 ..... 40	문태준 ..... 14	윈네 슌 뢰에스 ..... 102
	김유대 ..... 111	박경미 ..... 98	스기우라 한모 ..... 106
	김원동 ..... 87	박병률 ..... 33	스티븐 S. 일라디 ..... 54
	김이윤 ..... 97	박석근 ..... 99	신경숙 ..... 16



○

신명호	89
실뱅 뫼니에	126
실비 보시에	116
심재우	89
아베 나옴이	55
안상현	72
앤드루 소벨	74
야자와 사이언스 연구소	36
양순자	17
양연주	109
에릭 살린	44
에릭 시노웨이	77
엘리자베스 E. 파스칼	126
오문세	94
완즈프	76
윌리엄 에어스	51
UNGO아카데미 강사진	35
유은실	111
윤상욱	83
윤송이	92
윤신영	92
윤숙희	105
윤여림	117
윤정주	118
은희경	16
이나영	118
이다혜	75
이동원	92
이명세	16
이반디	128
이병욱	32
이병률	16
이순구	89

ㅈ

이성규	15
이승호	124
이영관	39
이영숙	100
이은희	92
이유정	117
이왕무	89
이원혜	92
이와사키 료코	106
이적	16
이정록	18
이정철	84
이지민	92
이재성	96
이현	90
임미희	38
임민혁	89
임용한	37
임정묵	60
왕주민	101
자일스 라로슈	119
자크 보세	82
장기하	16
장석주	10
장영복	122
잭 캔필드	57
전경일	61
정우성	53
정인호	78
정재승	92
정진홍	25
정호승	13
제럴드 파나스	74

ㅊ

제임스 럼포드	129
제프리 J. 폭스	71
조미진	58
조정육	62
조광제	96
존 블레이크	103
주강현	115
줄스 에반스	30
진정일	49
창신강	101
최나미	125
최종일	40
최종현	85
최효찬	70
최현묵	123

ㅋ

카렌 와이어트	28
칼 필레머	69
콜라스 귀트망	110
크리스토프 드뢰서	46

ㅎ

허구	127
하석배	64
한국철학교육연구원	93
한미화	73
한윤섭	121
한형주	89
홍기환	112
홍세화	98
홍승찬	66
홍정선	121, 125
황금성	21
황선미	120
황지은	92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42





2013 휴가철에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가 추천하는 읽기 좋은 책

---

인 쇄 일 2013년 7월 5일  
발 행 일 2013년 7월 5일  
발 행 인 임원선  
발 행 처 국립중앙도서관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홈페이지 [www.nl.go.kr](http://www.nl.go.kr)  
전 화 02) 3483-8805  
팩 스 02) 590-0607  
인 쇄 원화디앤피

---

ISBN 978-89-7383-832-5  
ISBN 978-89-7383-654-3 (세트)

